

제29권 제1호 / Vol.29 No.1

KDI 경제전망

KDI Economic Outlook

2012 상반기

KDI 경제전망 연구진

총괄	이재준 (연구위원)
종합예측	이한규 (연구위원) 명랑미 (연구원)
국내총생산	이재준 (연구위원) 명랑미 (연구원)
경기	이준상 (연구위원) 명랑미 (연구원)
소비	김태봉 (연구위원) 이경희 (연구원)
설비투자	이준상 (연구위원) 구희일 (연구원)
건설투자	김성태 (연구위원) 황세진 (연구원)
경상거래	이한규 (연구위원) 명랑미 (연구원)
자본거래	남창우 (연구위원) 김진호 (연구원)
노동시장	김인경 (연구위원) 이지은 (연구원)
물가	신석하 (연구위원) 박지원 (전문연구원)
통화금융	남창우 (연구위원) 김진호 (연구원)
재정	김성태 (연구위원) 황세진 (연구원)
세계경제	이상규 (전문연구원) 박지원 (전문연구원) 현지윤 (연구원) 임한나 (연구원)
편집간사	명랑미 (연구원) 임찬순 (연구행정원)

'KDI 경제전망'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단기 경제전망을 함과 동시에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과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경영과 학계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 2회 발간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958-4114 팩스번호 958-4088

※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3
II.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15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17
2.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17
3. 전망의 위험요인	19
III. 정책방향	23
1. 재정정책	25
2. 통화정책	27
3. 금융정책	28
4. 노동시장정책	30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I. 중국 내부요인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5
II.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43
III. 요인별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7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I. 국내경제 동향	69
1. 국내총생산	71
2. 경 기	77
3. 소 비	83
4. 설비투자	88
5. 건설투자	92
6. 수출입 및 국제수지	98
7. 노동시장	109
8. 물 가	117
9. 금융시장	125
10. 재 정	132
II. 세계경제 동향	139
1. 개 괄	141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151
3. 환율 및 금리	186
4.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	189

요 약

- 우리 경제는 2012년에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과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2013년에는 내수와 수출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2년에 3.6%, 2013년에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2012년과 2013년에 2.6% 및 2.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83억달러와 122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은 작년 1/4분기 4.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둔화 추세를 지속하며 금년 1/4분기에는 2.8%를 기록
 - 최근의 경기둔화는 대외수요가 약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 악화 및 낮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실질구매력) 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총수요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여 소비 및 투자 모두 부진한 모습
 -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금년 1/4분기 중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설비투자는 작년의 지속적인 둔화세가 금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약화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며,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어 안정되는 모습

- 한편 명목 임금상승률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고용 증가세에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낮은 수준을 지속
- 최근 소비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최근 육아비 지원정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 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 심화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년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및 비은행기관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최근 상승

■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은 재정긴축 및 부채조정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완만한 경기개선이 예상
- 신흥시장국의 경우 해외수요 부진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나, 비교적 건실한 내수 및 정책적 대응여력 등을 고려할 때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
 - IMF는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3.3% : '12.1)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약화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나, 대내여건의 개선으로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수출 증가세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반면, 물가안정, 임금상승 및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내수부문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 혹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은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부터는 건실한 회복세가 예상
 - 유럽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II.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2012년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 원유 도입단가는 2012년 전년(배럴당 105달러) 대비 약 10% 상승한 배럴당 115달러 내외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하향안정화되며 배럴당 11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2.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 2012년 우리 경제는 전년과 유사한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2년에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3.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년에는 수출 증가세 확대 및 내수 개선 추세로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2012년에는 양호한 고용증가세의 지속 및 유가상승세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 안정을 바탕으로 2.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2013년에는 유가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비교적 높은 4.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2012년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및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8.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2013년에는 대내외 수요 확대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을 배경으로 6.2%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극심한 부진은 다소 완화되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1% 및 4.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2012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10.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2012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축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며 5.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13년에는 내수 및 수출 증가세 확대에 10.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반영하여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내수 증가세 확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축소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83억달러 및 122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2년에 경기둔화 및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효과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는 성장세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등에 따른 정책효과가 소멸됨에 따라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며 2.8%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건실한 고용 증가세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4% 및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2년과 2013년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2~13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1	2012					2013
	연간 ¹⁾	1/4 ²⁾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 대비)	3.6	2.8 (0.9)	3.3 (1.0)	3.5 (1.2)	4.5 (1.3)	3.6	4.1
총소비	2.2	2.2	2.6	3.0	4.4	3.0	3.8
민간소비	2.3	1.6	1.8	2.8	4.6	2.7	4.0
총고정투자	-1.1	5.1	3.4	4.3	7.6	5.2	5.1
설비투자	3.7	9.1	4.4	7.2	12.1	8.1	6.2
건설투자	-5.0	2.1	2.4	2.3	5.2	3.1	4.4
총수출(물량)	9.5	5.0	5.2	5.3	10.6	6.6	10.0
상품수출(물량)	10.5	4.5	5.2	6.0	12.2	7.1	10.7
총수입(물량)	6.5	4.6	2.7	5.1	10.5	5.8	9.8
상품수입(물량)	8.7	4.6	2.4	4.6	10.3	5.5	10.2
경상수지	265	26	51	44	62	183	122
상품수지	310	27	81	70	92	269	242
수출(금액)	5,526	1,347	1,497	1,494	1,575	5,912	6,340
(증가율)	(19.7)	(5.5)	(4.9)	(5.7)	(11.9)	(7.0)	(7.2)
수입(금액)	5,216	1,320	1,416	1,425	1,483	5,643	6,098
(증가율)	(23.8)	(8.3)	(4.9)	(6.2)	(13.6)	(8.2)	(8.1)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	-44	-1	-29	-26	-30	-86	-12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0 (3.1)	3.0 (2.5)	2.5 (1.8)	2.4 (1.8)	2.6 (2.1)	2.6 (2.0)	2.8 (2.5)
실업률 (계절조정)	3.4	3.8 (3.5)	3.4 (3.4)	3.2 (3.3)	3.1 (3.3)	3.4	3.3

주: 1) 잠정치.
2) 속보치.

III.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재정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균형재정 회복으로 향후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바람직
 - － 최근의 경기둔화가 실물경기 급락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
 - － 다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향후에는 조세지출제도 정비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비과세·감면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되, 세외 수입은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
- 재정지출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적 검증과정을 강화할 필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

- 물가 등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불안요인에 대응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정책

- 저축은행 부실문제로 인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시할 필요
 -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
 - －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편
 - －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를 유인을 축소
 - － 아울러 저축은행의 도산 확률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함.
-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
 - 따라서 중소기업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

4. 노동시장정책

-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시기
 -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고,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궁극적으로 바람직
 - 제도 개선과 더불어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 시간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개선은 정부의 주도보다는 노사 간의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제1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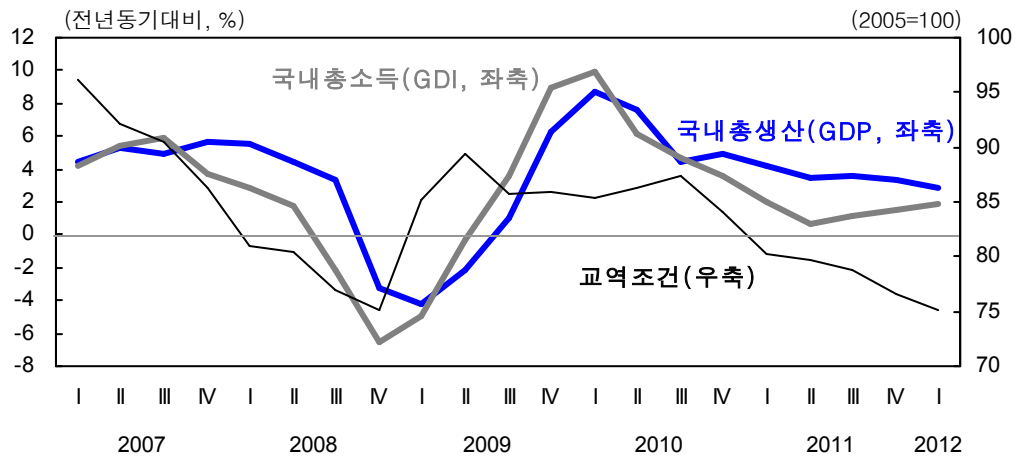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은 작년 1/4분기 4.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둔화 추세를 지속하며 금년 1/4분기에는 2.8%를 기록

— 특히 작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0.3%(연율 1.2%)를 기록하여 둔화폭이 다소 확대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의 성장률



주: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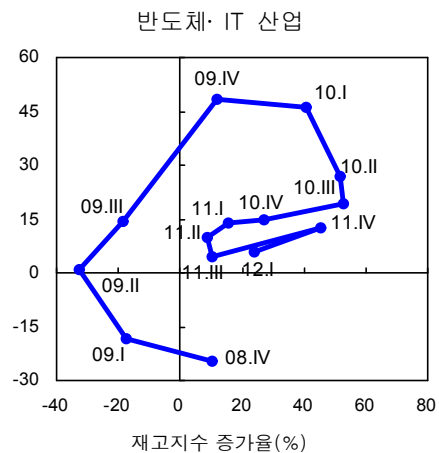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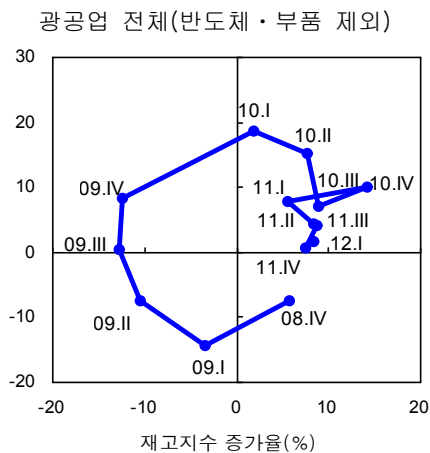
● 최근의 경기둔화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대외수요가 약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 악화 및 낮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실질구매력) 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금년 1/4분기 성장률의 내수 기여도는 2.8%p를 기록한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0.1%p를 기록

—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작년 1.1%(연간) 증가에 머물렀으며, 금년 1/4분기 중에는 1.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소폭 상승

- 최근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금년 1/4분기 전산업생산지수는 2.4%를 기록하며, 전년 3/4분기 이후 완만히 하락하는 모습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하여, 작년 4/4분기(5.0%)보다 하락한 3.7%를 기록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작년 4/4분기(2.7%)보다 다소 낮은 2.4%를 기록
- 생산·재고 순환상 재고 증가세는 금년 1/4분기 중 반도체·IT 산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산 증가세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생산·재고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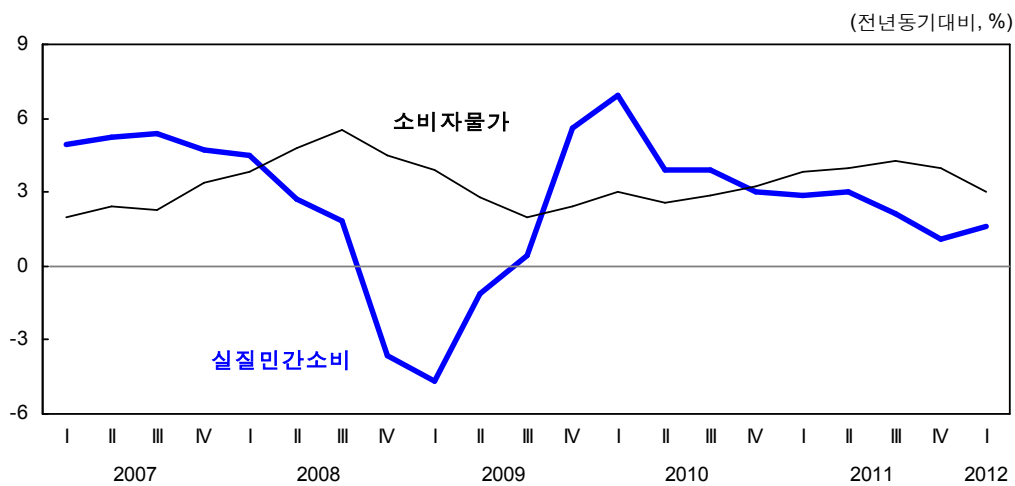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총수요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여 소비 및 투자 모두 부진한 모습

-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금년 1/4분기 중 소폭 개선되는 모습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1.1%로 둔화되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1.6%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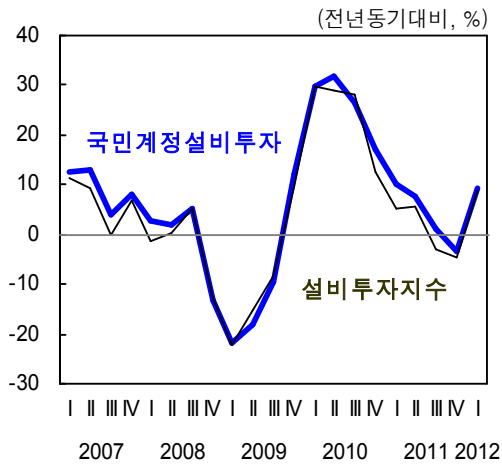
민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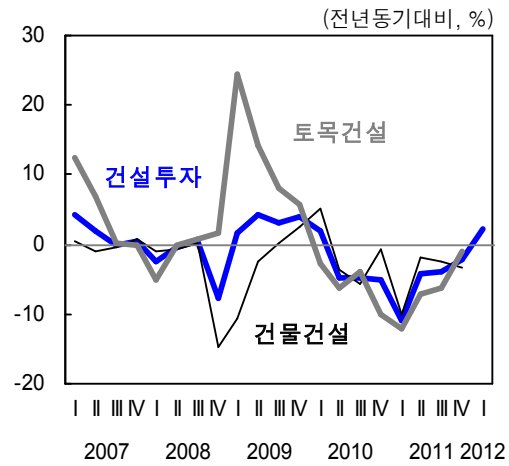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작년의 지속적인 둔화세가 금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이후 감소하여 작년 4/4분기에 -3.3%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중 9.1%로 상승
 - －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1/4분기 중 감소세는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

국민계정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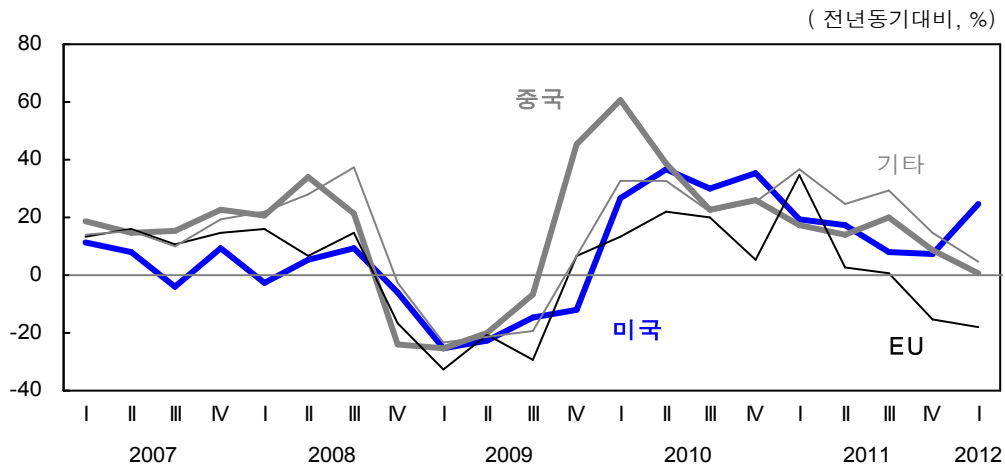


건설투자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최근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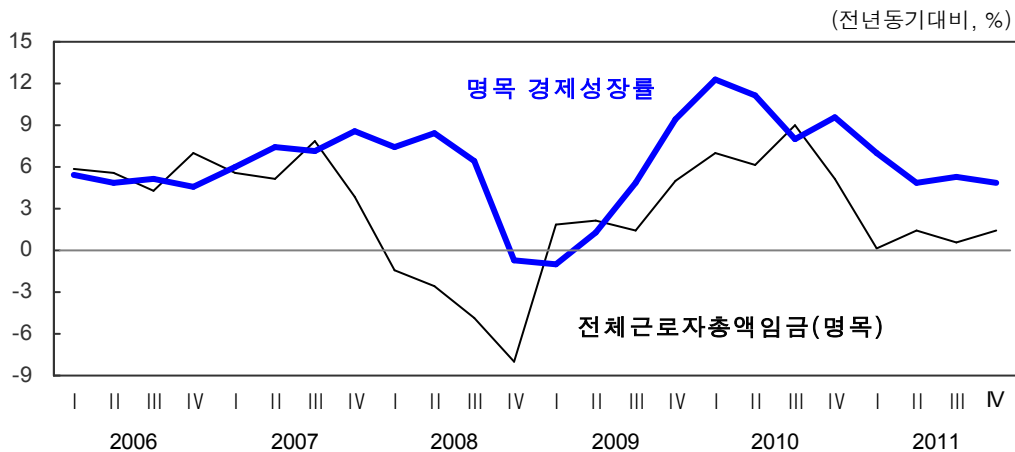
지역별 수출



■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모습

- 취업자는 금년 1/4분기에 46만 7천명(2.0%)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호조세를 유지
- 한편 명목 임금상승률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고용 증가세에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낮은 수준을 지속

명목 임금상승률과 명목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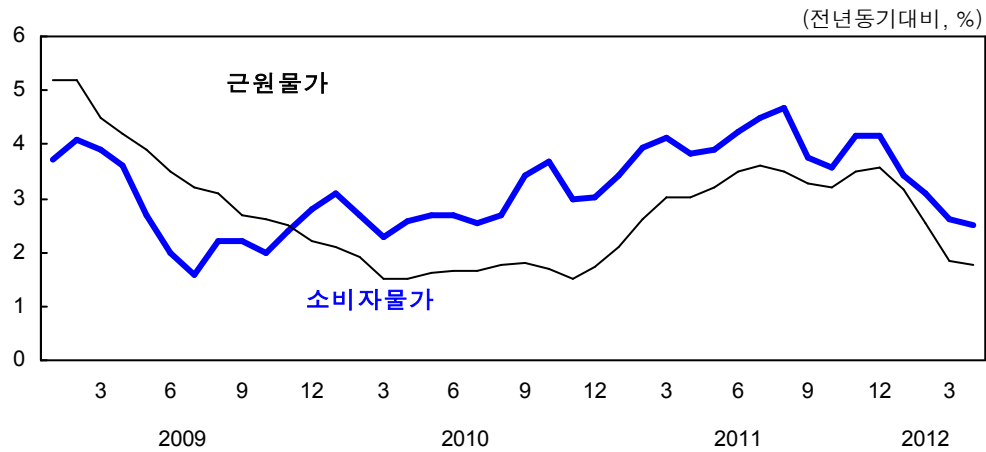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안정되어 가는 모습

- 최근 소비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 근원물가지수 상승률도 작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1.8%를 기록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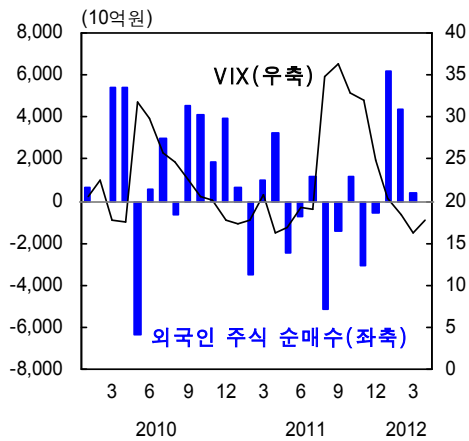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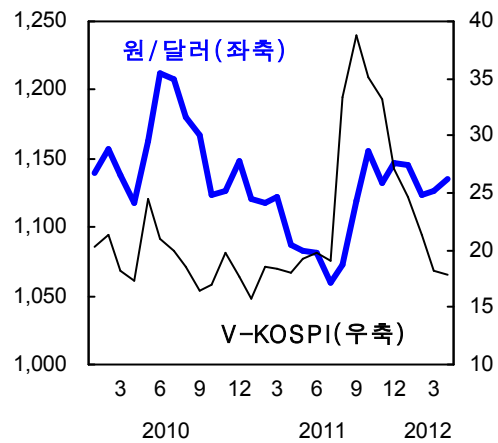
■ 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 심화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년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

● 작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금년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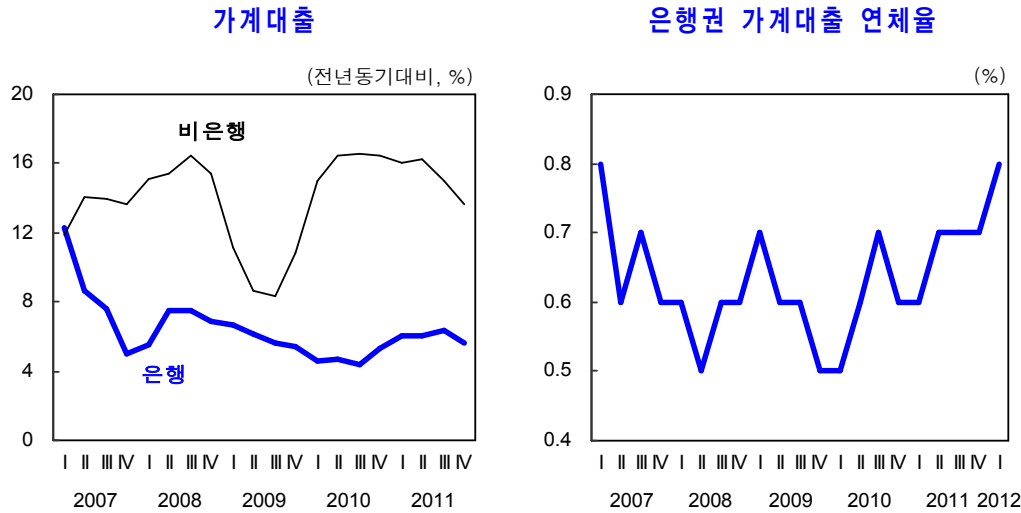
VIX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원/달러 환율과 V-KOSPI



-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및 비은행기관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최근 상승



-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은 재정긴축 및 부채조정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완만한 경기개선이 예상
- 신흥시장국의 경우 해외수요 부진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나, 비교적 견실한 내수 및 정책적 대응여력 등을 고려할 때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
 - IMF는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경기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3.5%로 전망

주요국의 2012~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IMF)

(%)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NIEs ¹⁾
2011년 9월	4.0 [4.5]	1.8 [2.5]	1.1 [1.5]	2.3 [2.0]	9.0 [9.5]	4.5 [4.4]
2012년 1월	3.3 [3.9]	1.8 [2.2]	-0.5 [0.8]	1.7 [1.6]	8.2 [8.8]	3.3 [4.1]
2012년 4월	3.5 [4.1]	2.1 [2.4]	-0.3 [0.9]	2.0 [1.7]	8.2 [8.8]	3.4 [4.2]

주: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2) [] 안은 2013년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January · April 2012.

■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약화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나, 대내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수출 증가세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반면, 물가안정, 임금상승 및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내수부문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 혹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은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재정긴축과 부채조정에 대한 유로 회원국 간의 이해상충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 한편, 유럽 재정위기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완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경제의 개선 추세가 견실해지는 경우 세계경제 회복 전망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

■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부터는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
- 금번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현재의 재정정책 기본방향은 바람직

- 유럽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위기관리보다는 안정적 성장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출 필요

II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2012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 IMF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개선되고 신흥시장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성장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2012년과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3.5%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는 2012년에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년(배럴당 105달러) 대비 약 10% 상승한 배럴당 115달러 내외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하향 안정화되며 배럴당 11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로 2013년에도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 원화가치는 2012년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

- 2012년 우리 경제는 전년과 유사한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개선 및 교역조건 안정을 바탕으로 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교역조건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을 바탕으로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2년에는 양호한 고용 증가세의 지속 및 유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 안정을 바탕으로 2.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는 유가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비교적 높은 4.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2011년 하반기의 부진에서 회복되며,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6~8%대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2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및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8.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는 대내외 수요 확대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을 배경으로 6.2%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극심한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토목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겠지만, 건축부문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1% 및 4.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2012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10.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입(물량 기준)은 2012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축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며 5.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13년에는 내수 및 수출 증가세 확대에 10.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반영하여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내수 증가세 확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축소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83억달러 및 122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둔화 및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효과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3년에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하락요인이 일부 존재하나,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2.8%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근원물가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0%와 2.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견실한 고용 증가세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4%로 유지되는 한편, 2013년에는 경기개선 추세를 반영하여 소폭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2년과 2013년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방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유럽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 IMF(G-20보고서, 2012.Feb)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하방위험이 실현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유럽 재정위기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완화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경제의 개선 추세가 견실해지는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IMF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20~30%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
- 최근의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인한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신용공급이 위축될 경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내수를 제약할 가능성

2012~13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1	2012					2013
	연간 ¹⁾	1/4 ²⁾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 대비)	3.6	2.8 (0.9)	3.3 (1.0)	3.5 (1.2)	4.5 (1.3)	3.6	4.1
총소비	2.2	2.2	2.6	3.0	4.4	3.0	3.8
민간소비	2.3	1.6	1.8	2.8	4.6	2.7	4.0
총고정투자	-1.1	5.1	3.4	4.3	7.6	5.2	5.1
설비투자	3.7	9.1	4.4	7.2	12.1	8.1	6.2
건설투자	-5.0	2.1	2.4	2.3	5.2	3.1	4.4
총수출(물량)	9.5	5.0	5.2	5.3	10.6	6.6	10.0
상품수출(물량)	10.5	4.5	5.2	6.0	12.2	7.1	10.7
총수입(물량)	6.5	4.6	2.7	5.1	10.5	5.8	9.8
상품수입(물량)	8.7	4.6	2.4	4.6	10.3	5.5	10.2
경상수지	265	26	51	44	62	183	122
상품수지	310	27	81	70	92	269	242
수출(금액)	5,526	1,347	1,497	1,494	1,575	5,912	6,340
(증가율)	(19.7)	(5.5)	(4.9)	(5.7)	(11.9)	(7.0)	(7.2)
수입(금액)	5,216	1,320	1,416	1,425	1,483	5,643	6,098
(증가율)	(23.8)	(8.3)	(4.9)	(6.2)	(13.6)	(8.2)	(8.1)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	-44	-1	-29	-26	-30	-86	-12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0 (3.1)	3.0 (2.5)	2.5 (1.8)	2.4 (1.8)	2.6 (2.1)	2.6 (2.0)	2.8 (2.5)
실업률 (계절조정)	3.4	3.8 (3.5)	3.4 (3.4)	3.2 (3.3)	3.1 (3.3)	3.4	3.3

주: 1) 잠정치.

2) 속보치.

III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4. 노동시장정책

1. 재정정책

■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재정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균형재정 회복으로 향후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바람직
 - 관리대상수지는 최근의 개선추이를 지속하여 내년에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최근의 경기둔화가 실물경기 급락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
 - 다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압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상의 재정수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다수의 총선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 재정 지출 규모가 당초 계획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조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중기재정
통합재정수지	-2.0	16.7	5.3	18.6	18.1	33.8
[GDP 대비, %]	[-0.2]	[1.4]	[0.4]	[1.5]	[1.4]	[2.3]
관리대상수지	-30.1	-13.0	-25.0	-13.5	-14.3	0.2
[GDP 대비, %]	[-2.7]	[-1.1]	[-2.0]	[-1.1]	[-1.1]	[0.0]
국가채무	407.2	392.2	435.5	420.7	445.9	460.0
[GDP 대비, %]	[36.1]	[33.4]	[35.1]	[34.0]	[33.3]	[31.3]

주: 1) 2012년 GDP 대비 비율은 KDI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산함.
자료: 기획재정부.

■ 향후에는 조세지출제도 정비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비과세·감면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되, 세외수입은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
 -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90여 개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현안분석 II 참조)
 - 탈루소득 파악, 체납정리 등 세정 강화 및 세원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를 지속 추진
 - 균형재정의 필요조건으로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되, 경기 및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재정지출은 성과미흡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적 검증과정을 강화할 필요
 - 재정지출은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미흡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결정
 - 국회법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 시 예결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국회규칙이 부재하여 실행되고 있지 않은바, 관련 규칙을 제정할 필요
 - 또한 국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의 예외조항을 강화하여 신규 법안 도입이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
- 더불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잠재적 재정위험을 최소화
 - 최근 주요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우려하여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별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사업구조 조정, 불용자산 매각 등 자발적 부채조정을 독려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 주요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계획 제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
- ※ 정부는 201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39개)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공운법 제39조 및 국가재정법 제9조)
 -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전제로 원가보상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기업이 실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인 부채 증가 요인을 최소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
 - 물가 등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불안요인에 대응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 현재 금리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물가안정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 한편, 최근 경기가 다소 부진하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완만한 조정(deleveraging)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
 - － 따라서 통화정책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나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 등과 같은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하여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가상승률 하락이 경기둔화요인 외에 일부 사회정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 －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화시킬 필요

3. 금융정책

■ 저축은행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 금융감독제도 및 예금보험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시할 필요

●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이 표면화됨에 따라 저축은행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청됨.

— 저축은행업의 부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미진한 금융구조조정, 2003년 가계신용 위기에 따른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과 PF대출 부실화 등이 중첩된 결과임.

—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는 과도한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취약한 지배구조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불법행위, 과도한 위험추구 등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

—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편

—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를 유인을 축소

—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운용을 제한하고 현행 위험 가중 자기자본규제에서 레버리지(단순자기자본비율) 중심의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규제차익을 이용한 위험 추구행위를 제어할 필요

— 아울러 저축은행의 도산 확률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함.

● 기존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 저축은행의 시스템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할 때 최소 비용의 원칙 적용을 통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가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도덕적 해이 기대심리를 제어하고 국민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

—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과감하게 자산부채매각방식(P&A)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정리비용을 최소화

■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
 -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신용보증 규모는 연평균 17.5%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제외)의 경우 2009년에는 전년대비 186%로 지원 규모가 확대
 - － 소규모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6년부터 증가하여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2010년에도 증가한 결과, 2011년 말 현재 30%를 넘었으며 이 중 25% 이상이 완전자본잠식 상태
-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
 - － 채권은행협약 중 세부 평가 시 비재무적 항목 위주의 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정량적 및 정성적인 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부실징후기업을 판단할 필요
 - － 현재 연 1회인 부실징후기업 대상 선정의 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중소기업부문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
 -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정기평가: 50억원 이상, 수시평가: 3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신용위험 평가대상 중소기업 수를 확대할 필요
 - － 또한 회생 가능한 소규모 한계기업들을 선별하여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

4. 노동시장정책

■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시기

-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고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 － 최근 법정 근로시간이 사업장 규모별로 점차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지속
 - ※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이며 OECD 평균 1,749시간의 1.25배에 달함.
 - － 장시간 근로의 지속은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유지되고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요인에도 기인
 - ※ 현재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26개 업종으로 전체 사업체의 약 55%에 해당하며 전체 근로자의 40%가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도개선과 더불어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 시간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딘 것은 주야 2교대제가 만연하고 유연 근무제 활용 역시 저조하기 때문
 - －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개선은 포괄임금제의 개선, 임금보존의 문제 등 노사 간 합의해야 하는 쟁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주도보다는 노사 간의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제2부

경제현안 분석

경제현안 분석

I. 중국 내부요인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위원 이한규〉

II.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위원 유한욱〉

III. 요인별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원 이준상〉
〈연구위원 신석하〉

중국 내부요인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위원 이한규

1. 문제의 제기

- 최근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경제의 내부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대두
 - 세계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동산가격 급락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우리나라의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을 근거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
- 본고는 중국의 경기변동 중 내부요인으로 인한 변동 부분을 식별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에 따른 중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은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로부터 기인하였을 가능성
 - 중국 내부여건 변화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변동을 각각 외부 충격요인과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2. 최근 중국 경제동향 및 대중국 수출

■ 최근 중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어,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있음.

- 수출은 세계경제의 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EU를 중심으로 둔화폭이 확대되며, 금년 1/4분기에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6%의 증가율을 기록
- 내수도 고정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
 - － 부동산 관련 투자는 201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금년 1/4분기에는 23.5%로 하락
 - － 소매판매도 2011년과 비교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어, 1/4분기에 14.8%의 증가율을 기록
-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금년 1/4분기에 8.1%로 하락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GDP 성장률	10.3	9.2	9.7	9.5	9.1	8.9	8.1	-
공업생산	15.7	13.9	14.4	13.9	13.8	12.8	11.6	11.9
소매판매	18.4	17.1	16.3	17.2	17.3	17.5	14.8	15.2
고정투자 ¹⁾	23.8	23.8	25.0	25.6	24.9	23.8	20.9	20.9
부동산	33.2	27.9	34.1	32.9	32.0	27.9	23.5	23.5
수출 ²⁾	31.3	20.3	26.4	22.0	20.5	14.2	7.6	8.9
수입 ²⁾	38.9	24.9	32.8	23.1	24.8	20.6	6.9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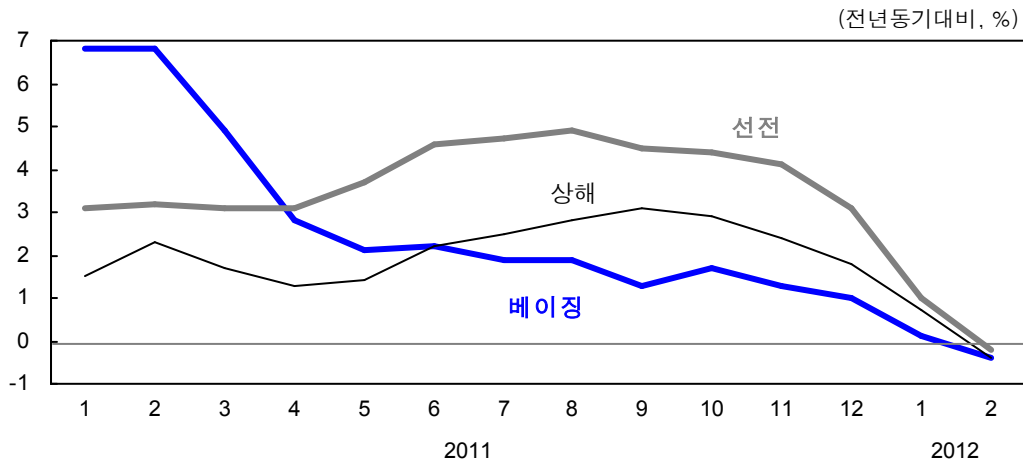
주: 1) 누계액 기준, 2) US\$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 일부에서 버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가격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베이징, 상해, 선전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판매가격이 최근 5개월째 전월대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이후 둔화세를 지속해 오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도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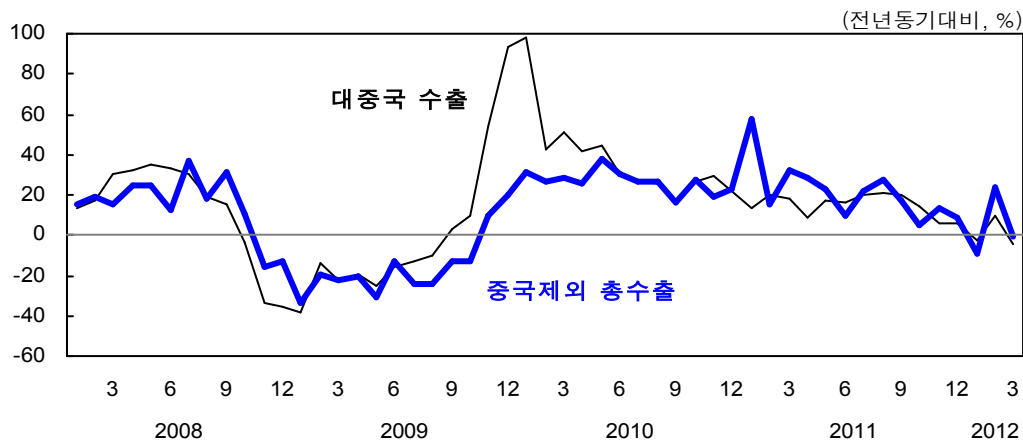
중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의 급락은 건설경기 둔화, 부의 효과를 통한 소비 위축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증대로 중국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
- 한편, 중국의 경기둔화를 반영하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
- 금년 1/4분기에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3.7%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0.7%에 그침.

우리나라의 중국 및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



자료: 무역협회.

3. 실증분석

■ 실증분석은 세계 GDP, 중국 GDP,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우리나라 GDP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모형을 통해 수행

● 각각의 변수는 모두 계절조정된 분기별 실질변수이며, 전기대비 증가율로 변환하여 실증분석에 사용

— 세계 GDP 변수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위 24개국의 GDP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세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중국경제의 변동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중국은 제외하였음.

— 대중국 수출은 명목 대중국수출금액을 수출단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였음.

● 분석대상 기간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하기 시작한 2000년 1/4분기부터 2011년 4/4분기까지로 설정

● 구조적 충격요인의 식별을 위해서는 Choleski 분해기법을 사용

— 벡터 내에서 변수는 세계 GDP, 중국 GDP,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 GDP의 순으로 배열되었으며, 이에 대해 Choleski 분해기법을 적용

* 실증모형의 시차구조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및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등을 참고하여 2분기의 시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

— Choleski 분해는 변수의 배열 순서상 하위 변수의 변동을 상위 변수들의 구조적 충격요인과 해당 변수 자체의 구조적 충격요인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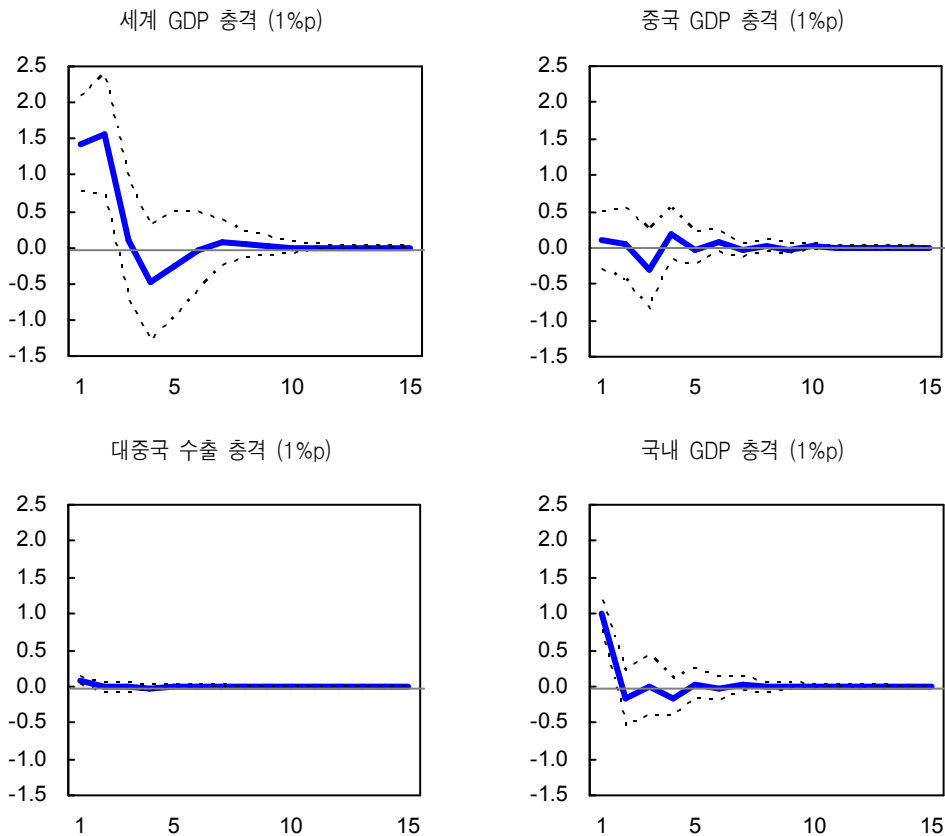
— 예컨대, Choleski 분해의 결과로 중국 GDP의 변동은 세계 GDP 충격요인에 따른 변동 부분과 중국경제 자체의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변동 부분으로 분해됨.

■ 실증분석 결과,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중국 성장률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한 내부 충격요인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p 상승하였을 경우, 충격 이후 1년간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 상승효과는 0.01%p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였을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충격 이후 1년 동안 평균 0.65%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률 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개별 구조충격요인에 대한 우리나라 성장률의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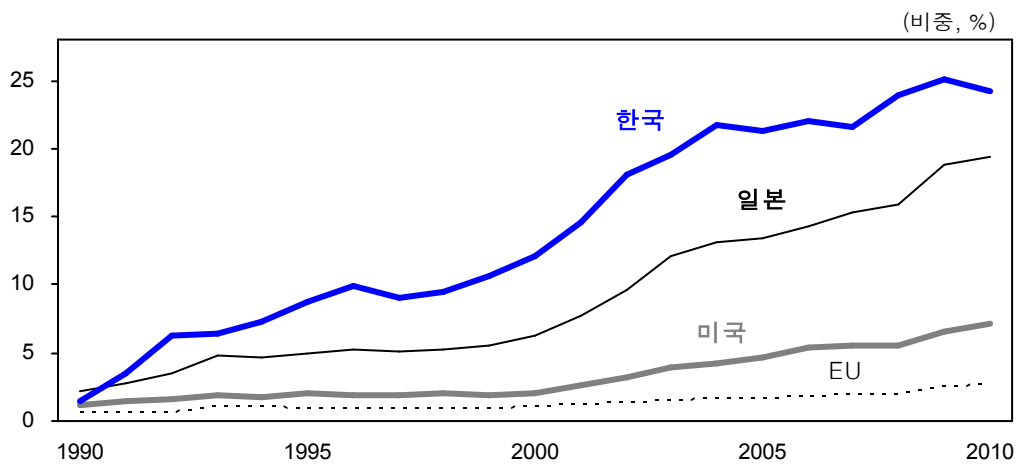
주: 점선은 추정된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95% 확률의 신뢰구간을 표시한 것임.

- 중국 내부 충격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였던 것은 중국의 내수보다는 중국의 수출과 관련이 높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4.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러한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을 근거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내수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수출구조는 중국 내부 충격요인의 무역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 대중국 수출은 무역형태별로 중국 내수품 생산을 위한 일반무역과 중국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가공무역·보세가공으로 구분될 수 있음.
- － 2010년 기준 미국과 EU의 일반무역 비중은 각각 65.4%와 77.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도 51.8%로 우리나라의 32.1%보다는 높은 수준임.

국가별 대중국 수출 비중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무역형태별 대중국 수출 비중

	미국		EU		일본		한국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일반무역	56.4	65.4	62.5	77.0	35.6	51.8	30.0	32.1
가공무역·보세가공	43.4	34.4	37.4	23.0	64.0	48.2	70.0	67.9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외투기업과 국유 및 집체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실적을 모수로 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해관총서, 이한규·이시욱의 “국제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수출구조” 중 <표 3-8>과 <표 3-9>의 일부를 재정리함.

● 한편, 내수 관련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경제의 위축이 무역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4. 요약 및 시사점

■ 실증분석 결과,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중국 성장률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을 근거로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실증분석 결과,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중국 경기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중국 성장률 변동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중국 내부 충격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중국의 내수 보다는 중국의 수출과 관련이 높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일반무역의 비중이 2010년 기준 32.1%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 내수와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향후 중국의 성장전략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내수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여 중국 내부 경기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성도 확대될 가능성

- 최근 중국의 양회(兩會)는 내수 확대 등 성장전략의 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에서 내수의 역할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
- 내수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성장전략이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도 중국의 내수 확대를 겨냥한 내수 관련 수출 비중을 높여, 대중국 수출구조의 중국 내수 연관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의 중국 내수 연관성이 확대될 경우, 중국 내부요인으로 인한 중국 경기여건 변화가 무역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수 있음.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위원 유한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된 반면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R&D 관련 세액공제 등 감면규모가 큰 기존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축소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6~11년 동안의 조세지출 확대율(43.5%)은 국세수입 확대율(39.7%)을 상당 규모 상회하는 수준
 - 조세지출의 폐지·축소 비율 추세: (’06) 49% → (’07) 64% → (’08) 48% → (’09) 32% → (’10) 34% → (’11) 26%
-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안정화가 긴요한 시점
- 저출산·고령화와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소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 최근의 재정건전성 저하 현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재정소요 증가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세출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세입 측면에서의 정책 노력도 매우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과 조세지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2. 조세지출 개요

가. 조세지출의 정의, 범위 및 유형

- 조세지출은 “일반 과세원칙에서 벗어난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세출예산에 대응되는 개념
- 국가재정법상의 정의(제27조):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 OECD(2010)상의 정의: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 집단을 위한 정부수입의 감소 혹은 연기
 - 조세지출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정부수입 감소 초래, 재정사업(세출)으로 전환 가능, 제한적 수혜계층,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벗어남.
 - 국가별 조세체계가 상이하므로 조세지출 개념 또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 규정에 의한 국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해당하고, 개별 세법상의 국세감면은 조세지출의 특성과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 연혁 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¹⁾
-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와 국가세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세지출에서 제외²⁾
- 조세지출의 특성과 일반적인 조세체계의 특성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구분하여 조세지출에 포함: (예) 소득세법상의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1) OECD(1996)는 조세지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특정성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해야 함.
대체 가능성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폐지 가능성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함.

2) 이 밖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 조세지출은 영구적인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직접 감면과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해주는 간접 감면으로 구분

- 직접감면: 비과세(특정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소득공제(과세소득에서 차감), 저율과세(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제외) 및 세액공제(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 간접 감면: 준비금(특정 목적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과세이연(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및 이월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출자자산에 대한 과세 연기)

다.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 조세지출예산제도(국가재정법 제27조): 정부는 예산안의 일부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조세지출과 세출의 연계,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음.
 - 1999~2009년에는 직전·당해 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추정액을 담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공표했으며, 2010년부터 직전·당해·차기 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추정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제한(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세감면율 = $\text{조세지출} \div (\text{조세지출} + \text{국세수입총액})$

■ 조세지출 사전제한(국가재정법 제88조 제2항): 새로운 조세지출 항목을 도입할 경우 기존 항목의 축소·폐지 혹은 재정지출의 축소방안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세지출 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3항): 필요시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효과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조세지출 현황

가. 조세지출 항목 수 및 규모

■ 전체 항목 수는 2006년 230개에서 2010년 177개로 감소했다가 2011년에 201개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인데, 2006~10년의 감소 추세는 조세지출의 지속적인 정비 결과로 보기 어려움.

● 항목 신설 및 폐지(일몰 종료)보다는 자의적인 항목 조정(추가·분리 및 삭제·통합)을 통해 매년 항목 수가 변화하고 있음.

— 2007~09년에는 기존 항목의 통합·분리와 임의 삭제·추가 등이 대폭 이루어졌고, 2010~11년에는 신설 및 사후 추가된 항목 수가 많았음.³⁾

■ 2006~11년 동안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수입 증가율(6.9%)을 0.6%p 상회하는 연평균 7.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R&D 관련 세액공제 등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의 확대에 주로 기인

● 고유가 및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제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2008~09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 2년 연속 조세지출 규모제한과 관련한 재정규율 미충족: 국세감면율(14.7% 및 15.8%)이 법정한도(13.6% 및 14%)를 상당 수준 초과

■ 감면규모가 큰 조세지출은 근로자, 농어민 등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기업투자, R&D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가 전체 조세지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간접세 지원, R&D 비용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전체 조세지출의 9%, 8% 및 7%를 차지

● 단일 항목으로서 감면규모가 가장 큰 조세지출은 R&D 비용 세액공제임.

3) 2008년의 경우 저축지원을 위한 다수의 조세지출 항목들이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및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3개 항목으로 통합되면서 26개 항목이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과거에 일몰 종료되었으나 경과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항목들을 일거에 삭제함에 따라 감소 항목 수가 확대되었음.

조세지출 항목 수 및 규모 추이

(단위: 개,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항목 수	230	219	189	180	177	201
감 소	5	38	44	24	34	6
증 가	9	27	14	15	31	30
조세지출	213,380	229,652	287,827	310,621	299,997	306,194
국세수입	1,380,443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8,405
국세감면율	13.4	12.5	14.7	15.8	14.4	13.7
법정한도	13.9	14.0	13.6	14.0	14.8	15.5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2006~09년) 및 조세지출예산서(2011~12년).

주요 조세지출 항목(감면규모순)

(단위: 억원, %)

항 목	2010 (실적)	2011 (잠정)	2012 (전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61,493 (20.5) ¹⁾	61,682 (20.1)	63,170 (19.7)
농임업업종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및 농축산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²⁾	28,397 (9.5)	24,329 (7.9)	28,778 (9.0)
R&D 비용 세액공제	18,571 (6.2)	23,106 (7.5)	25,994 (8.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³⁾	17,770 (5.9)	27,331 (8.9)	21,418 (6.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6,542	12,375	14,47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3,064	12,076	13,68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2,325	14,011	12,817
개인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7,958	8,514	8,551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6,080	6,415	6,380
근로장려금 ⁴⁾	4,344	4,001	6,301
합 계	186,544	193,840	201,565
전체 조세지출	299,997	306,194	319,871

주: 1) ()안은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임.

2)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사료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2011년도 감면규모가 감소함.

3)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2011년 감면규모 증가, 2012년에는 공제율 축소 조정에 따라 감면규모가 감소함.

4) 감면대상 및 급여액 추가 확대에 따라 2012년 감면규모는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

나. 조세지출 정비

■ 일몰 도래 항목에 대한 정비

-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의 폐지·축소 비율이 2008년 이전 절반 수준에서 최근에는 1/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11년도 조세지출 정비 결과

-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43개 중에서 10개 항목만이 종료되었고 33개 항목이 연장되었음.
 - 종료와 동시에 유사한 제도로 전환·흡수된 항목이 3개이고, 1개 항목은 애초에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1년 연장되었음.
 - 연장 형태를 살펴보면 축소된 형태로 연장되는 항목은 1개에 불과하고, 2개 항목은 확대된 형태로 연장
 - 연장 기한 또한 대부분 길게 나타남: 4개 항목만이 1년 연장되었고, 3년 연장된 항목은 21개에 달함.
-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여타 항목에 대한 정비도 불충분한 상태
 - 6개 항목만이 과세전환 혹은 효율화 과정을 거쳤고 대상확대, 조건완화 혹은 사전에 일몰이 연장된 항목은 13개에 달함.
 - 일몰 도래 이전에 조기 종료된 항목은 전무한 상태
- 한편, 2011년 말에 신설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만 13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음.
 - 종료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장기 미취업자 과세특례를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협 구조개편과 관련한 과세특례(5개 항목)
 -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신설됨.

일몰 도래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추이

(단위: 개,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몰 도래	55	22	34	87	50	43
폐 지	15	10	10	22	14	10
축 소	12	4	7	6	3	1
연 장	28	8	17	59	33	32
폐지·축소 비율	49.1	63.6	50.0	32.2	34.0	25.5

주: 2010년 이전은 연도별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제 정비 결과와 상이함.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세법개정안(2006~11년), 조세지출보고서(2006~09년) 및 조세지출예산서(2011~12년).

2011년 조세지출 정비 결과

(단위: 개)

일몰 도래 항목 (43)	종 료 (10)	유사 제도로 전환·흡수 (3)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단순 종료 (7)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여수세계 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등
	연 장 (33)	연장 유형	단순 연장 (3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확대 연장 (2)	고용창출세액공제(공제율 인상)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인상)
			축소 연장 (1)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기업 부분 제외)
		연장 기간	1년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과세특례 등
			2년 (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3년 (2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여타 항목 (159)	축 소 (6)	과세전환 (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국내 발행 채권에 대해 과세 전환)
		효율화 (5)		대학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일몰기한 명시),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사후관리 보완) 등
	확 대 (13)	확 대 (11)		근로장려금 지급(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자동차 추가) 등
		일몰 연장 (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주: 1)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일몰 도래 항목 정비계획 및 항목별 세부내역과 관련 세법개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결과임.

2) 유사한 세제지원 항목들을 1개로 통합한 3개 항목(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및 배당소득 저율과세)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집계함.

3) 2011년 4월에 종료되어 2011년 조세지출 항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1개 항목(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포함하여 총 202개 항목에 대한 정비 결과를 정리함.

자료: 1)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및 당정협의안,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

2)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및 각 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2012년도 조세지출 현황

- 이상의 2011년도 조세지출 정비 결과와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2012년 전체 조세지출 항목은 2011년보다 다소 많은 205개 정도로 추산
 - 2011년 기준 전체 항목 수(201) – 종료 항목 수(9) + 신설 항목 수(13)
 - 추가적인 항목 조정이 없음을 전제
- 2012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전체 항목 수 대비 43%를 차지하고, 전년도보다 2배 많은 87개로 집계⁴⁾
 - 이자 및 배당소득 관련 과세특례는 다수의 유사 항목들을 통합한 개념: 일몰 도래 항목이 실제로 90개를 상회
 - 주요 일몰 도래 항목: R&D 비용 세액공제,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일몰 도래 항목 중에서 감면규모가 가장 큰 R&D 비용 세액공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부터 지원대상 및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최근 5(3)년간 감면규모가 연평균 13(19%)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고, 2012년에는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감면규모의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이 8%에 달하며, 법인세수의 6%, R&D분야 예산 규모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다가 2009년에 일몰이 전격 해제되었고, 2010년에는 확대·분리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일몰(2012년 말)이 설정: 예상대로 일몰이 종료되더라도 2009년 이전보다 확대된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됨.
 - 따라서 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관리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 일반 R&D분야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일몰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지출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R&D분야에 대한 전체 정부지원(조세지출 및 세출) 틀 안에서 세제지원 존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

4) 2012년에 일몰 도래 항목 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3년 전인 2009년에도 일몰 도래 항목 수가 많았고, 이 중 대부분이 3년간 일몰이 연장된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추측됨(앞 페이지의 표 참조).

4.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가. 조세지출범위 확립 및 정보공개 확대

- 신설 혹은 폐지(일몰 종료)와 관계없는 항목 조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할 필요
 - 조세지출범위 설정은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에 부합하기 위한 주요 전제조건이나, 연도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자의적인 항목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 매년 조세지출의 범위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조세지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중 조세지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조세지출로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
 - 아울러 조세지출기준 변경에 따라 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
- 조세지출 항목의 변동내역, 전체 항목에 대한 정비계획, 추가 항목 신설계획 등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
 -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일몰 도래 항목의 정비계획 위주로만 정보가 공개
 -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비계획(확대, 축소, 과세전환 등)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신설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몰 연장 및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연장·신설 근거, 조세지출 추정치 등)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출 사전제한 원칙에 부합할 필요

나. 관련 재정규율 강화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 조세지출 규모와 관련한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
 - 현 재정규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은 상당히 느슨한 것으로 판단됨.

-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의 꾸준한 확대가 방지될 가능성: 국세감면율이 매년 0.25%p씩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정규율을 충족하게 됨.

(예) 14% ⇒ 14.25% ⇒ 14.5% ⇒ 14.75% ⇒ 15% ⇒ ...

- 또한 2008~09년과 같이 국세감면율이 급증한 경우 국세감면율을 정상 수준으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

- 법정한도 강화(국세감면율 상한 인하)를 통해 조세지출의 자연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정한도 준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

- 추가 재정규율을 설정함으로써 조세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필요: (예) 일몰 도래 항목 폐지비용의 하한, 혹은 신설 항목 수(비용)의 상한 부여

■ 사전 및 사후 관리 관련 재정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신설 항목(조세감면건의서)과 일몰 도래 항목(조세감면평가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대상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의 준수 여부 및 관련 정보의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문건의 작성 대상 및 내용을 보다 일관성 있게 구체화하고, 주요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정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일몰 도래 항목 관련 정보는 조세감면평가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공개하고, 신설 항목 관련 정보는 조세감면건의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공개

■ 조세지출에 대한 적절한 정비원칙⁵⁾을 수립하는 한편,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엄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평가·환류 체계가 미비한 상태: 조세감면평가서와 관련한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평가대상 또한 일몰 도래, 시행 2년 미만, 혹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 성과평가대상(조세감면평가서 작성대상 포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요 평가 결과를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

5) 정부가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밝힌 조세지출 정비원칙은 다음과 같이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일몰 연장: 경제정책적 지원(성장동력 확충, 자원배분 촉진 등), 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폐지·축소: 외국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③ 일몰 신설: 일몰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 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 범위 안에서 부여.

참고 1: 조세지출 관련 주요 법규정

[국가재정법]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등)

-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 ③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관서의 장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산을 작성하기 이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총액은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 ② 법 제88조 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 ③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 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 ①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참고 2: R&D비용 세액공제의 변천과정

연 도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일 물	조세지출 (억원)
1999~2000	초과분의 50% or 비용의 15%	초과분의 50% or 비용의 5% (중소기업에게 지출 → 10%)		
2001~02	상동	초과분의 50%		
2003~06	상동	초과분의 40%	3년 연장 (2003 → 2006)	
2007	상동	초과분의 40% (대학·중소기업에 위탁 → 초과분의 50%)	3년 연장 (2006 → 2009)	14,080
2008	상동	초과분의 40% (대학·중소기업에 위탁 → 초과분의 50%) or 비용의 6%까지* (비중이 증가한 경우)		15,331
2009	초과분의 50% or 비용의 25%	초과분의 40% (대학·중소기업에 위탁 → 초과분의 50%) or 비용의 6%까지 (비중 혹은 비용이 증가한 경우)	일물 해제	15,535
2010	신성장동력분야: 비용의 30% + 원천기술분야: 비용의 30% or 기타 일반분야: 초과분의 50% or 비용의 25%	신성장동력분야: 비용의 20% + 원천기술분야: 비용의 20% or 일반분야: 초과분의 40% or 비용의 6%까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에 대해 부여('12년)	18,571
2011	상동	신성장동력분야: 비용의 20% + 원천기술분야: 비용의 20% or 일반분야: 초과분의 40% or 비용의 6/10/15%**		23,106
2012	상동	상동 (최근 4년간 일반 R&D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분야 미적용)		25,994

주: '초과분'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4년간의 평균 R&D 비용을 초과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R&D 비용,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의 R&D 비용을, 그리고 '비중'은 해당 과세연도의 R&D 비용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함.

* 공제율 = $\text{Max}[6\%, 3\% + \text{비중}/2]$.

** 중소기업 지위 탈피 1~3년차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4~5년차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을,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의 공제율을 적용.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 및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요인별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원 이준상

연구위원 신석하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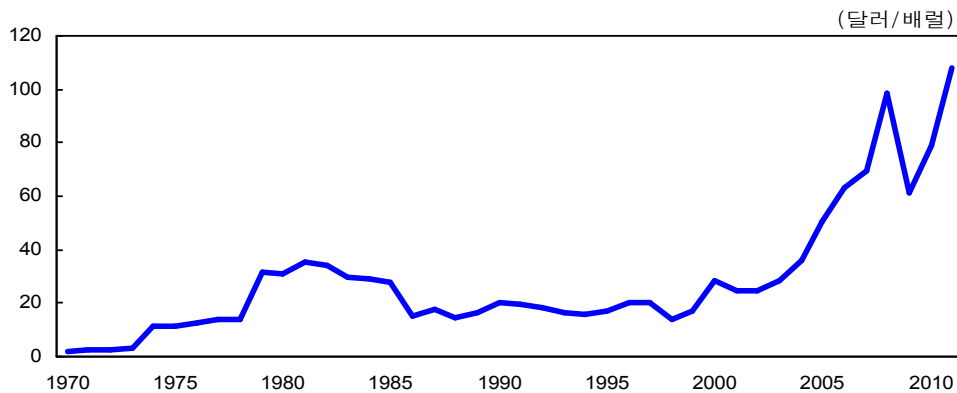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안정되었던 국제유가가 신흥시장국의 수요 확대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 신흥시장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원유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한편,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향후 생산 및 운송 등 공급 측면의 차질에 대한 우려 또한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본고는 유가 상승요인을 원유공급과 원유수요 요인으로 구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함.
 - 동일한 유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감산 등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경우와 세계경제 호황 등 수요 측면에서 기인한 경우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
 - 본고는 최근 문헌에서 제기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가 상승요인을 공급과 수요 요인으로 구분한 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2. 유가변동과 우리 경제

- 국제유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빠르게 상승

- 국제유가는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수요 확대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상승
- 통상적으로 1차 오일쇼크(1973년 9월), 2차 오일쇼크(1978년 10월), 이란·이라크 전쟁(1980년 9월), 걸프전쟁(1990년 7월) 등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공급이 감소하여 유가가 상승했던 경우로 인식되고 있음.
 - 위 사례들에서 나타난 공급 감소 규모는 대략 6~9%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
-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은 대체로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호황에 기인했던 것으로 파악

원유 도입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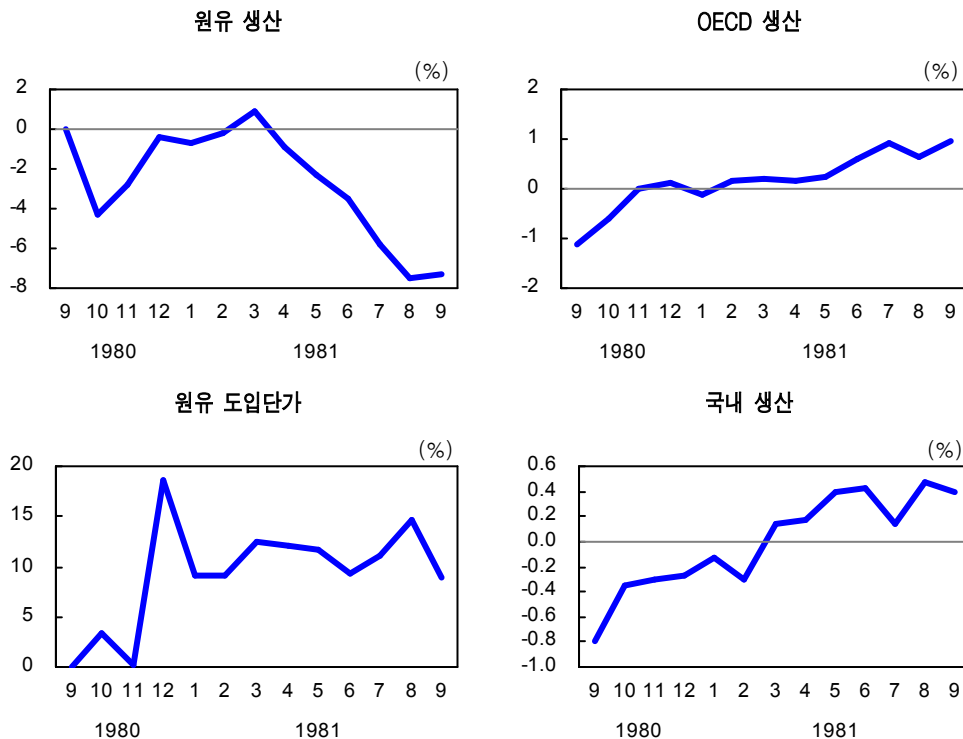
자료: British Petroleum, 한국석유공사.

■ 과거 경험들은 공급 감소에 기인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원유생산이 감소하여 유가가 상승했던 시기에는 국내 전산업생산이 추세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쟁발발에 의한 원유생산 차질로 누적 기준으로 유가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OECD 생산도 추세에 비해 1% 감소
- 유가 상승 및 이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등에 기인하여 대외여건이 악화되며, 국내 전산업 생산도 추세에 비해 약 0.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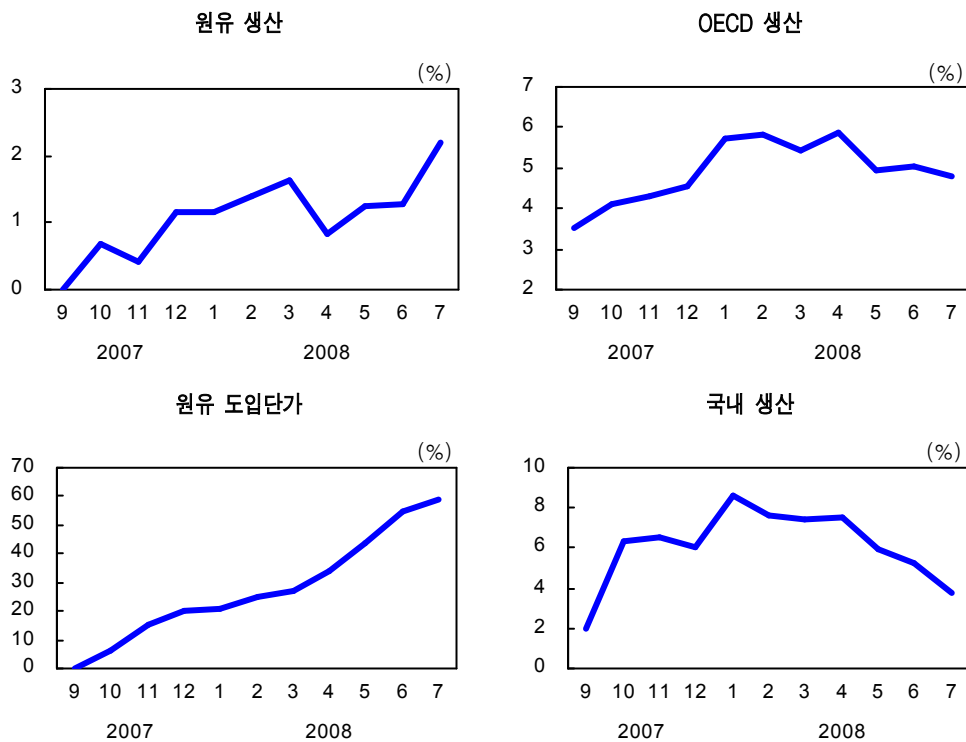
원유공급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과 관련 변수들의 추이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기간)



주: 원유 생산과 원유 도입단가는 전월대비 증가율의 누적분을 나타내고, OECD 생산과 국내 생산은 각각 OECD와 우리 경제의 전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HP 필터의 추세로부터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Kilian(200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ECD, 통계청

- 반면, 2007년 9월 이후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원유수요 확대로 유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국내 전산업생산이 추세보다 크게 증가
 - OECD 생산이 추세에 비해 5%를 상회하는 등 세계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원유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매우 높은 상승률(60% 내외)을 기록
 - 국내 전산업생산도 추세 대비 6%를 상회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여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유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회하였음을 시사

원유수요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과 관련 변수들의 추이
(2007년 세계경제 호황 기간)



주: 원유 생산과 원유 도입단가는 전월대비 증가율의 누적분을 나타내고, OECD 생산과 국내 생산은 각각 OECD와 우리경제의 전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HP 필터의 추세로부터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Kilian(200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ECD, 통계청

3. 유가 상승요인별 파급효과

■ 실증분석은 원유생산, 세계경제, 국제유가, 국내 GDP, 국내 소비자물가의 5변수로 이루어진 구조적 자기벡터모형을 이용하여 수행

● 본 연구에서는 Kilian(2009)의 3변수 구조적 자기벡터모형에 국내 GDP와 국내 소비자물가를 추가한 모형을 사용

- － Kilian(2009)에서와 같이 원유생산은 로그차분으로, 세계경제와 국제유가는 각각 추세와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로 측정되었으며, 국내 GDP는 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한 추세로부터의 차이로, 국내 소비자물가는 로그차분 형태로 변환
- － 국제유가는 원/달러 환율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 Kilian, Loutz, “Not All Oil Price Shocks Are Alike: Disentangling Demand and Supply Shocks in the Crude Oil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 No. 3, 2009.

● 실증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충격과 세계경제에 의한 원유수요 충격을 식별

- － 원유생산, 세계경제, 국제유가, 국내 GDP, 국내 소비자물가 순으로 배열한 후 Cholesky 분해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충격을 식별
- － 첫 번째 충격은 원유공급 충격으로서 산유국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원유생산 변화를 의미
- － 두 번째 충격은 원유수요 충격으로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변화에 따른 원유수요 변화를 나타냄.
- － Cholesky 분해는 이로부터 식별된 원유공급 충격이 해당 분기에 세계경제와 유가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원유수요 충격은 해당 분기의 유가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원유공급에는 다음 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 － 이 외에도 세 번째 충격은 원유수요를 제외하고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충격을 의미하며, 네 번째 충격과 다섯 번째 충격은 각각 국내 실물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으로 이해될 수 있음.

■ 1974~2011년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크기의 유가 충격이라도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경우 수요 측면에서 기인한 경우보다 국내 GDP 및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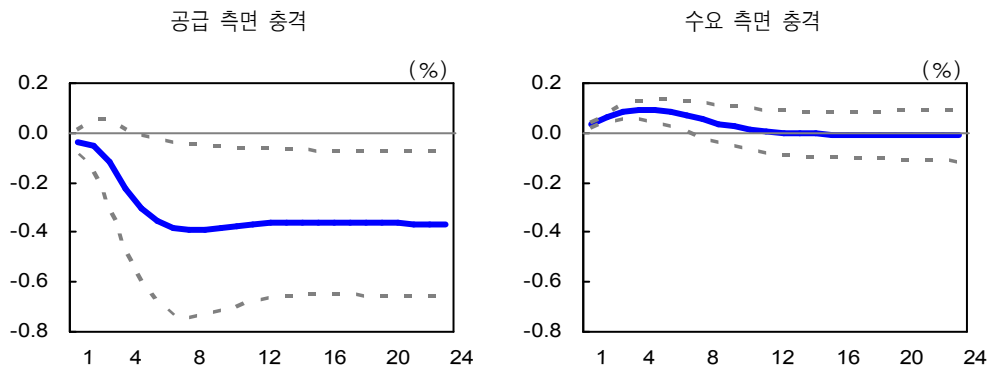
● 각 충격요인이 장기적으로 유가를 10% 상승시키는 경우에 국내 GDP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반응을 살펴봄.

— 원유 공급, 수요, 고유 충격요인 등이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구조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각 충격요인에 대한 유가의 반응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20분기를 기준으로 유가 10% 상승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제시

● 공급 측면의 충격에 의해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국내 GDP가 하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되는 반면, 수요 충격에 의해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GDP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세계경제의 호황이 수출 증가를 통해 국내 GDP를 높이지만, 유가 상승을 통한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점차 상쇄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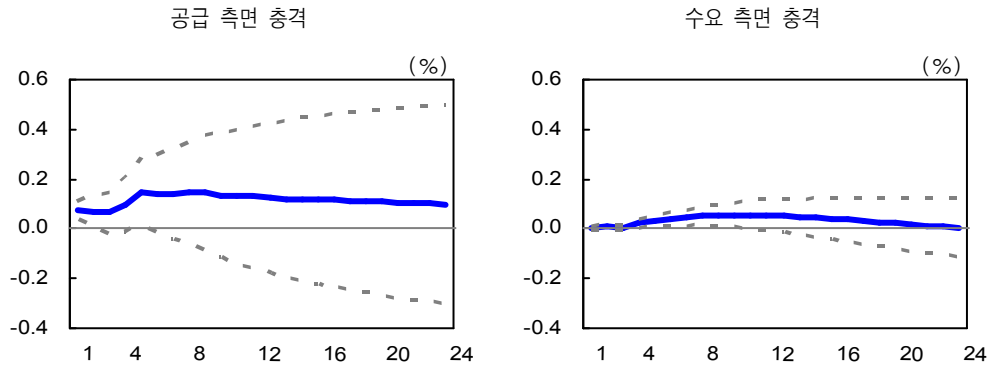
개별 충격요인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누적충격반응 함수



주: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 한편,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모두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1~2년 후에는 물가상승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충격요인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누적충격반응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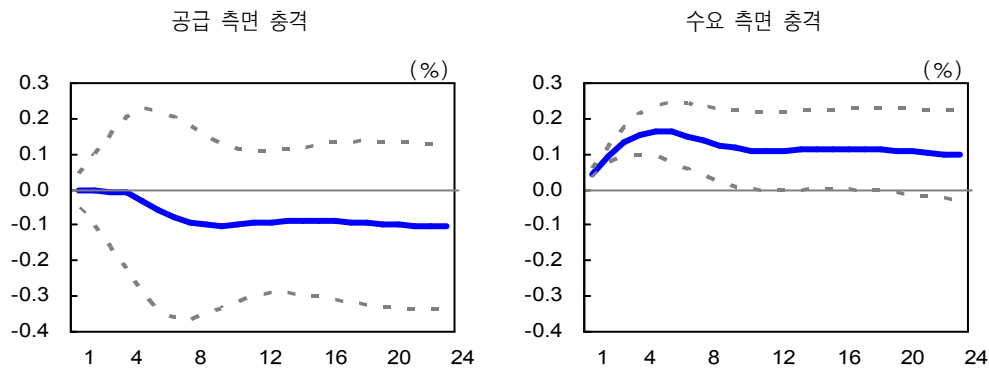
- 1·2차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1985년 이후 기간만을 고려한 경우, 수요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남.

- 1·2차 오일쇼크 이후 기간(1985년 1/4분기~2011년 4/4분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급 충격이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된 반면, 수요 충격의 영향은 확대되고 지속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수요 충격의 영향이 확대되고 지속성이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사료됨.

- 1974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공급 충격의 영향이 수요 충격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1·2차 오일쇼크와 같은 대규모 공급 충격에서 상당 부분 기인했을 가능성

개별 충격요인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누적충격반응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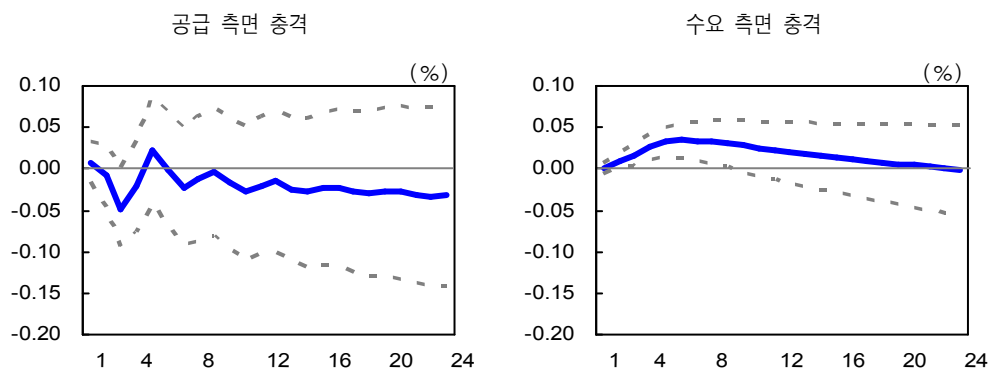


주: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급 충격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 충격의 영향도 크기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980년대 이후 거시경제 안정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물가의 반응이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개별 충격요인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누적충격반응 함수



주: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4. 요약 및 시사점

■ 동일한 유가 상승이더라도 수요 확대에 기인하는 경우보다 공급 감소에 기인한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유가 상승이 공급 감소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국내 GDP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세계경제 호황 등의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내 GDP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요 충격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유가 상승을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

-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은 모두 물가상승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공급 충격의 영향이 1·2차 오일쇼크 이후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규모의 원유공급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

- 1·2차 오일쇼크를 포함한 기간과 포함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1·2차 오일쇼크 이후 기간에 공급 충격이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 반면, 수요 충격의 영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모두 감소

- 과거에 비해 원유 공급 충격의 영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오일쇼크에 상응하는 규모의 유가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한편,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원유수요의 증가를 통해 유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나 세계경제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상회하여,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제3부

국내외 경제동향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수출입 및 국제수지
7. 노동시장
8. 물 가
9. 금융시장
10. 재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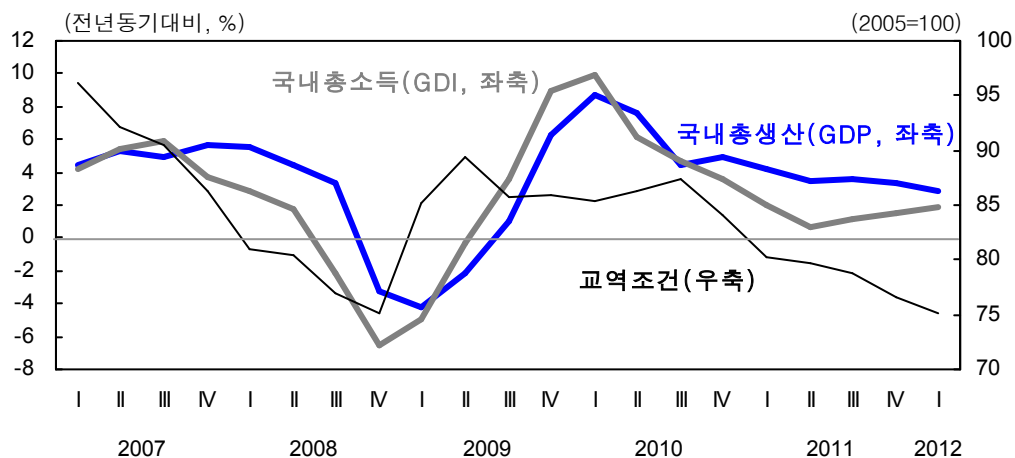
1. 국내총생산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여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전분기(0.3%)보다 증가한 0.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소 개선된 모습
-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1.9%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전분기(0.6%)보다 다소 악화된 0.2%를 기록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의 성장률



주: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의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

- 농림어업 증가율은 2.1%(전기대비 -4.3%)를 기록하며 증가폭이 감소
- 전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업은 3.0%를 기록하며 증가로 전환 (전기대비 -1.0%)
- 제조업은 4.2%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이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율을 유지하여 2.3%의 증가율을 기록
 -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지난 4/4분기(0.7%) 보다 소폭 증가한 0.9%의 증가율을 기록
 - － 금융보험업(전년동기대비, %): ('11.3/4) 0.8 → (4/4) 1.9 → ('12.1/4) 1.3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전년동기대비, %): ('11.3/4) 4.0 → (4/4) 3.9 → ('12.1/4) 2.6
 - － 보건사회복지업(전년동기대비, %): ('11.3/4) 3.8 → (4/4) 4.9 → ('12.1/4) 6.0
 - － 정보통신업(전년동기대비, %): ('11.3/4) 6.0 → (4/4) 5.6 → ('12.1/4) 4.5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0			2011					2012
	연간	3/4	4/4	연간 ¹⁾	1/4 ¹⁾	2/4 ¹⁾	3/4 ¹⁾	4/4 ¹⁾	1/4 ²⁾
국내총생산(GDP)	6.3	4.5	4.9	3.6	4.2	3.5	3.6	3.3	2.8
		(0.7)	(0.6)		(1.3)	(0.8)	(0.8)	(0.3)	(0.9)
농림어업	-4.4	-7.8	-5.9	-2.0	-7.9	-1.9	-4.1	3.7	2.1
		(-2.9)	(0.5)		(-3.0)	(4.5)	(-5.2)	(8.1)	(-4.3)
제조업	14.7	9.5	11.0	7.2	10.0	7.5	6.3	5.4	4.2
		(2.1)	(0.5)		(3.3)	(1.2)	(1.1)	(-0.3)	(2.2)
전기가수수도업	4.3	3.1	6.0	2.9	3.0	2.4	0.7	5.7	1.0
		(2.1)	(-0.5)		(0.1)	(0.7)	(0.5)	(4.2)	(-4.3)
건설업	-2.7	-2.0	-4.7	-4.6	-9.6	-7.1	-2.7	-0.6	3.0
		(-1.8)	(-2.6)		(-4.3)	(1.8)	(2.8)	(-0.2)	(-1.0)
서비스업 ³⁾	3.9	3.2	3.5	2.6	2.8	2.7	2.6	2.5	2.3
		(0.4)	(1.0)		(1.0)	(0.3)	(0.4)	(0.7)	(0.9)

주: 1)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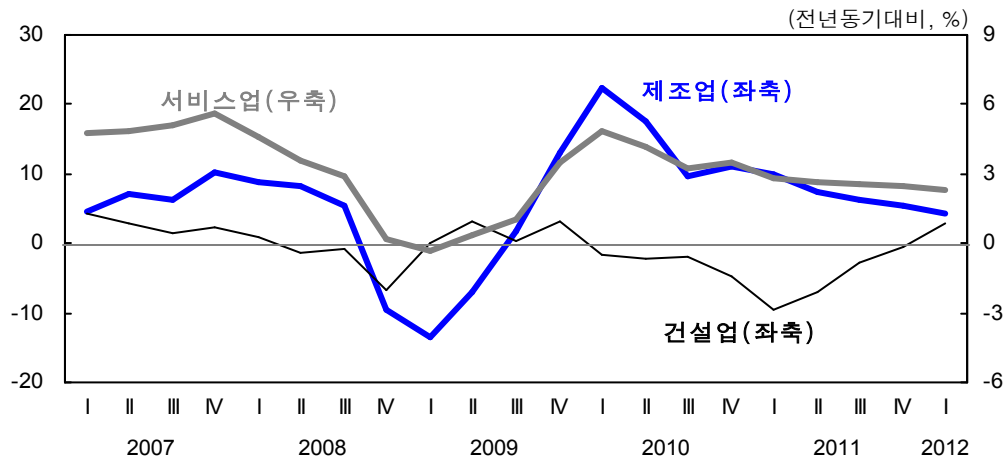
2) 속보치.

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 기타서비스업 포함.

4)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주요 부문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 지출별로는 소비와 투자는 완만한 둔화세에서 1/4분기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총소비는 작년 4/4분기(1.3%)보다 소폭 증가한 2.2%의 증가율을 기록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각각 9.1%, 2.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3.3%, -2.1%)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수출과 수입 모두 전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며 증가폭이 소폭 확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0			2011					2012
	연간	3/4	4/4	연간 ¹⁾	1/4 ¹⁾	2/4 ¹⁾	3/4 ¹⁾	4/4 ¹⁾	1/4 ²⁾
국내총생산(GDP)	6.3	4.5	4.9	3.6	4.2	3.5	3.6	3.3	2.8
		(0.7)	(0.6)		(1.3)	(0.8)	(0.8)	(0.3)	(0.9)
총소비	4.1	3.5	3.0	2.2	2.6	2.7	2.3	1.3	2.2
		(1.0)	(0.4)		(0.6)	(0.8)	(0.4)	(-0.5)	(1.5)
민간소비	4.4	3.9	3.0	2.3	2.9	3.0	2.1	1.1	1.6
		(1.2)	(0.4)		(0.6)	(0.8)	(0.2)	(-0.4)	(1.0)
총고정투자	5.8	5.6	2.3	-1.1	-2.1	0.7	-1.5	-1.8	5.1
		(1.4)	(-1.0)		(-3.1)	(3.8)	(-0.8)	(-1.5)	(3.7)
설비투자	25.7	26.3	16.9	3.7	10.3	7.7	1.2	-3.3	9.1
		(4.6)	(-0.2)		(-1.6)	(4.7)	(-1.8)	(-4.3)	(10.8)
건설투자	-3.7	-4.9	-5.2	-5.0	-11.0	-4.2	-4.0	-2.1	2.1
		(-0.9)	(-1.9)		(-4.4)	(3.5)	(-0.5)	(0.1)	(-0.7)
총수출	14.7	11.8	16.0	9.5	17.0	8.5	9.6	4.4	5.0
		(2.1)	(2.4)		(2.8)	(0.8)	(3.1)	(-2.3)	(3.4)
상품수출	16.0	11.7	17.4	10.5	18.6	10.9	10.3	3.8	4.5
		(2.6)	(3.2)		(4.1)	(0.4)	(2.1)	(-2.7)	(4.8)
총수입	17.3	14.7	14.8	6.5	10.8	7.9	6.2	1.6	4.6
		(2.9)	(1.4)		(1.4)	(1.9)	(1.3)	(-3.0)	(4.5)
상품수입	18.4	16.0	16.0	8.7	13.8	10.0	8.0	3.5	4.6
		(3.4)	(0.4)		(3.2)	(2.7)	(1.4)	(-3.6)	(4.1)
국내총소득(GDI)	6.0	4.7	3.6	1.1	2.0	0.7	1.1	1.5	1.9
		(0.3)	(0.3)		(-0.1)	(0.5)	(0.6)	(0.6)	(0.2)

주: 1) 잠정치.

2) 속보치.

3)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내수 기여도는 2.8%p를 기록한 반면,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0.1%p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

- 소비 기여도가 소폭 상승하고, 전분기 감소를 기록했던 투자가 모두 증가를 기록하면서 내수 기여도는 전분기(0.3%p)보다 높은 2.8%p를 기록
- 재고 증감의 성장기여도는 4/4분기(1.7%p)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된 -0.1%p를 기록
- 수입증가율의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전분기보다 하락한 0.1%p를 기록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기여도: %p)

	2010			2011					2012
	연간	3/4	4/4	연간 ¹⁾	1/4 ¹⁾	2/4 ¹⁾	3/4 ¹⁾	4/4 ¹⁾	1/4 ²⁾
내수(재고 제외)	4.5	4.1 (1.0)	2.8 (0.0)	1.2	1.3 (-0.4)	2.0 (1.5)	1.1 (0.1)	0.3 (-0.7)	2.8 (2.0)
민 간 소 비	2.4	2.1 (0.6)	1.6 (0.2)	1.2	1.6 (0.3)	1.5 (0.4)	1.1 (0.1)	0.6 (-0.2)	1.0 (0.5)
설 비 투 자	2.3	2.4 (0.5)	1.7 (0.0)	0.4	1.0 (-0.2)	0.8 (0.5)	0.1 (-0.2)	-0.3 (-0.4)	0.9 (1.0)
건 설 투 자	-0.7	-0.9 (-0.2)	-1.0 (-0.3)	-0.8	-1.6 (-0.7)	-0.7 (0.5)	-0.7 (-0.1)	-0.4 (0.0)	0.1 (-0.1)
재고증감	2.5	1.3 (-0.1)	1.0 (0.0)	0.8	-0.1 (1.0)	0.9 (-0.1)	0.5 (-0.2)	1.7 (0.8)	-0.1 (-0.7)
총수출	7.3	6.0 (1.2)	8.0 (1.3)	5.0	8.4 (1.5)	4.5 (0.4)	5.1 (0.7)	2.3 (-1.3)	2.8 (1.9)
총수입	7.9	6.8 (1.0)	6.9 (0.7)	3.2	5.4 (0.7)	3.9 (1.0)	3.1 (0.7)	0.8 (-1.6)	2.7 (2.3)
순 수 출	-0.6	-0.9 (-0.3)	1.1 (0.6)	1.8	3.0 (0.8)	0.6 (-0.6)	1.9 (1.1)	1.5 (0.3)	0.1 (-0.5)
국 내 총 생 산	6.3	4.5 (0.7)	4.9 (0.6)	3.6	4.2 (1.3)	3.5 (0.8)	3.6 (0.8)	3.3 (0.3)	2.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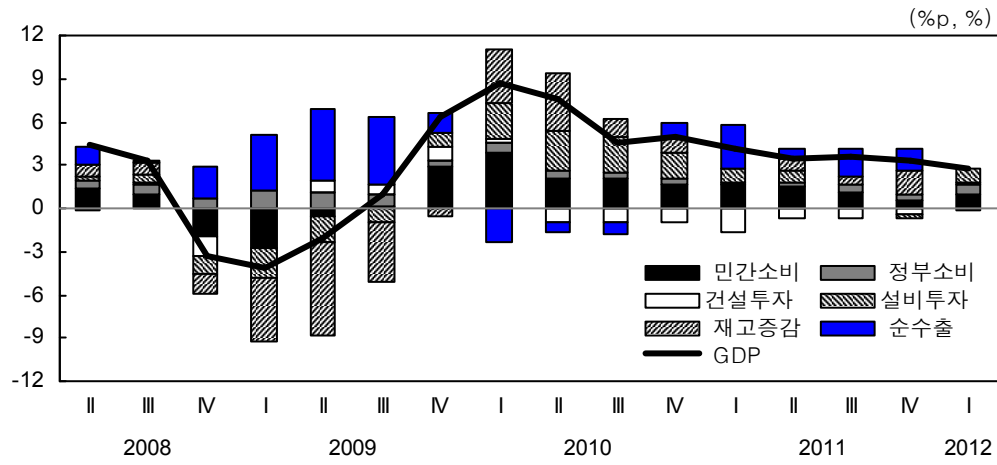
주: 1) 잠정치.

2) 속보치.

3)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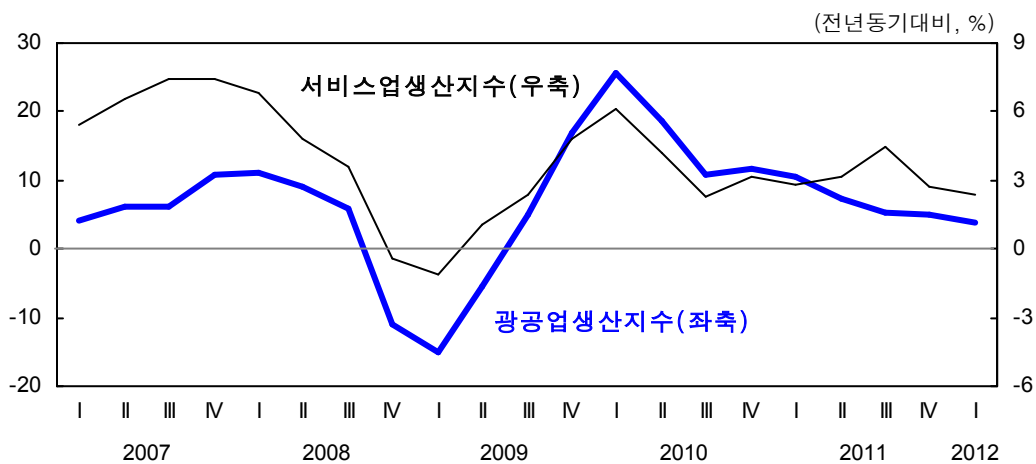
2. 경 기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모두 소폭 둔화되고 있으나, 선행지표는 다소 개선

■ 최근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1/4분기 전산업생산의 증가율은 전분기(3.1%)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2.4%를 기록
 -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전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이 지난 4/4분기 -0.2%에서 1.3%의 증가로 전환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분기(5.0%)보다 낮아진 3.7%를 기록
 -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전분기 감소(-0.1%)에서 2.0%의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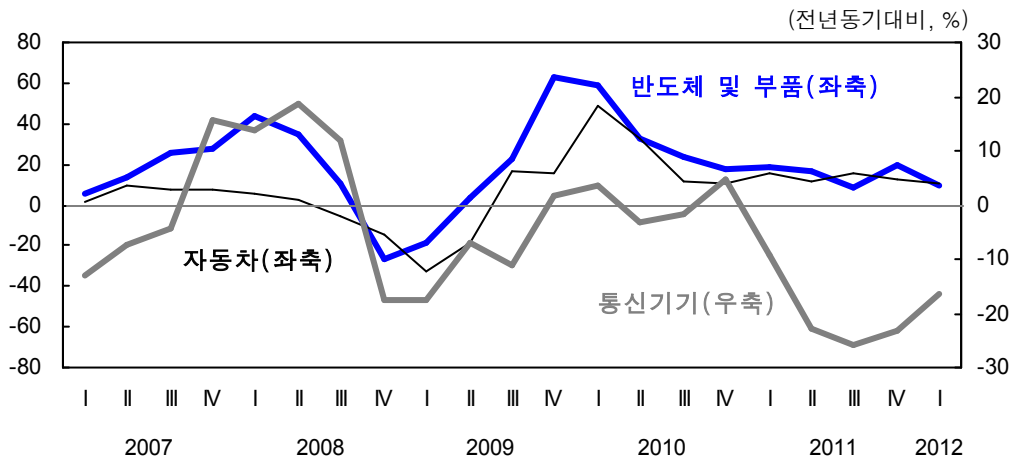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자료: 통계청.

-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은 지난 4/4분기(12.6%, 46.9%)보다 증가폭이 축소되며 각각 10.5%, 18.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전자부품과 통신장비는 감소폭이 축소되며 각각 -1.9%, -16.4%의 증가율을 기록
- 반면, 화학제품의 증가폭은 확대된 모습(1.0%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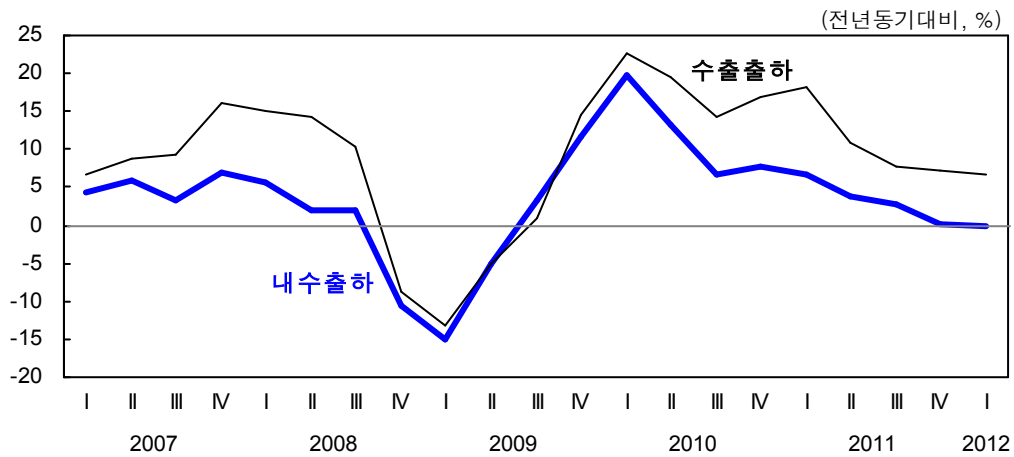
부문별 산업생산



자료: 통계청.

- 최근 출하지수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고지수도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
 - 1/4분기 중 수출출하는 6.7% 증가하여 전분기(7.2%)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내수 출하는 전분기(0.2%)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며 -0.1%를 기록
 - 재고지수 증가율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하면서 전분기(20.7%) 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15.4%를 기록

수출출하와 내수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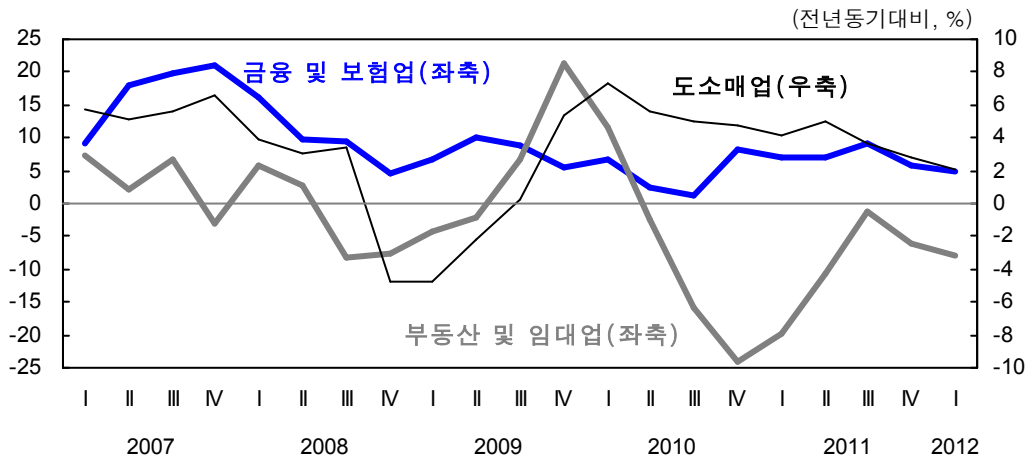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2.7%)보다 소폭 낮은 2.4%를 기록

-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은 전분기(-0.5%)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며 0.9%를 기록
-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의 감소폭이 확대되며 -7.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금융보험업(4.8%), 도소매서비스업(2.0%) 등의 증가폭은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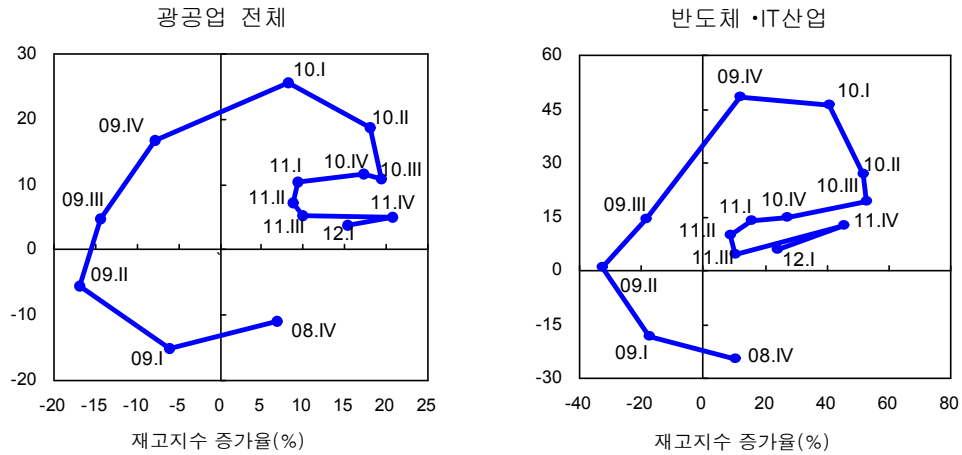
부문별 서비스생산



자료: 통계청.

- 생산·재고 순환은 반도체·IT산업을 중심으로 재고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생산·재고 조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생산·재고 순환



자료: 통계청.

생산·출하·재고

(전년동기대비, %)

	비중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p	3월 ^p
전산업생산지수		3.9	4.5	3.7	4.1	3.1	2.4	-1.0	8.7	0.2
광공업생산지수	10,000	6.9	10.4	7.2	5.3	5.0	3.7	-2.1	14.3	0.3
자동차	1,101.2	13.8	15.5	11.9	16.0	12.6	10.5	-7.4	35.3	8.3
반도체·IT산업 ²⁾	1,970.4	16.0	13.8	9.8	4.5	12.4	6.0	4.4	10.6	3.3
자동차·반도체·IT산업제외	6,928.4	4.2	7.9	5.1	4.0	0.3	1.4	-4.3	12.7	-2.5
서비스업생산지수	1,000	3.3	2.8	3.2	4.5	2.7	2.4	0.6	5.6	1.4
도·소매업	218.3	3.8	4.2	5.0	3.6	2.8	2.0	1.2	5.0	0.3
금융 및 보험업	152.6	7.3	7.0	7.1	9.1	5.9	4.8	2.1	10.4	2.2
출하지수		6.5	11.5	6.9	4.9	3.3	3.0	-2.6	13.4	-0.5
내 수		3.3	6.7	3.8	2.7	0.2	-0.1	-5.3	10.7	-4.2
수 출		10.8	18.1	10.9	7.7	7.2	6.7	0.6	16.7	4.0
재고지수 ³⁾		20.7	9.3	8.8	9.9	20.7	15.4	21.4	19.8	15.4

주: 1) p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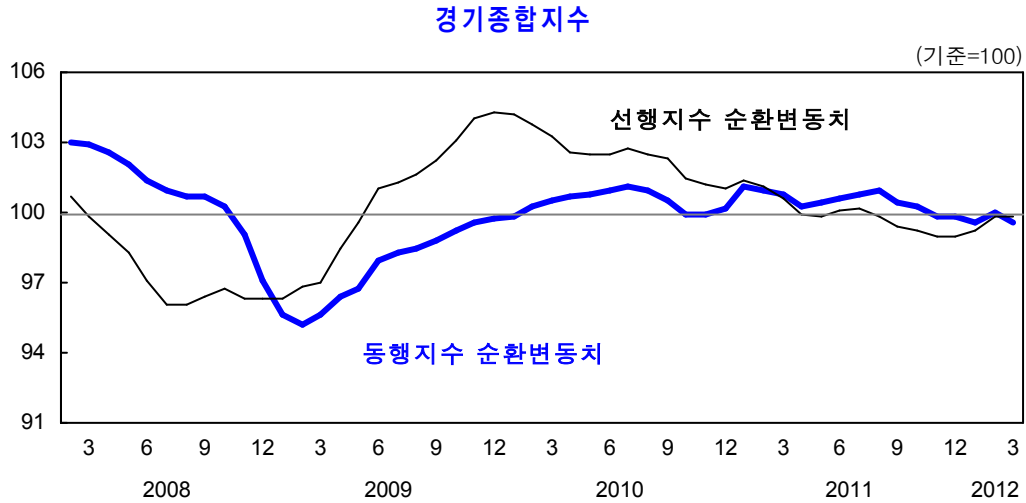
2) IT산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 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을 포함하며 반도체부문은 제외.

3)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 호.

■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가 다소 하락한 반면, 선행지수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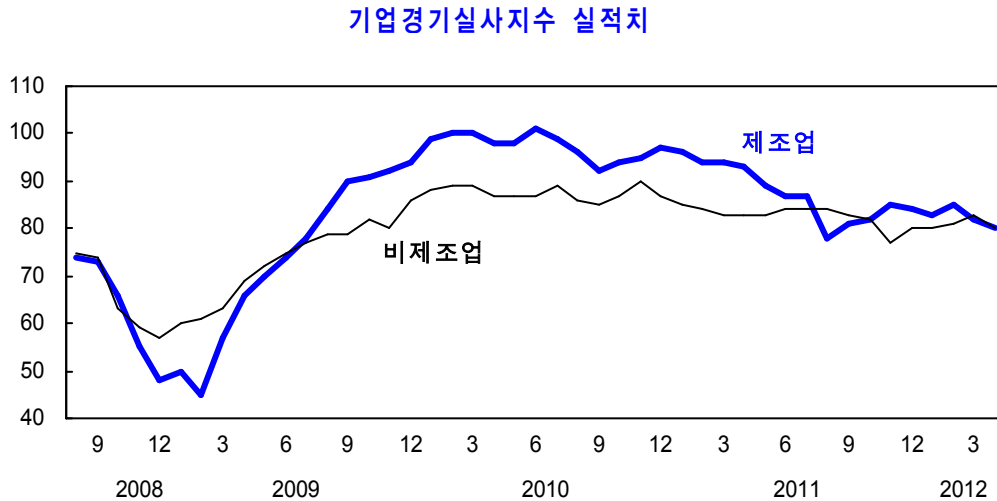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1월 이후 100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금년 1월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



자료: 통계청.

■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최근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출기업 부문은 다소 개선

-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완만한 둔화추세가 지속되는 모습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기 실사지수

		2011				2012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BSI (한국은행)	제조업*	81 (80)	82 (83)	85 (84)	84 (89)	83 (85)	85 (87)	82 (84)	80 (84)	- (84)
	수출기업	77 (80)	83 (80)	82 (84)	78 (83)	75 (78)	81 (79)	81 (87)	88 (85)	- (94)
	내수기업	83 (91)	81 (90)	84 (81)	81 (83)	80 (80)	79 (81)	81 (82)	82 (85)	- (87)
	대기업	82 (87)	88 (87)	89 (87)	89 (89)	84 (88)	87 (88)	87 (92)	91 (91)	- (98)
	중소기업	80 (86)	79 (86)	80 (80)	76 (80)	75 (75)	77 (77)	78 (80)	81 (82)	- (86)
	비제조업*	83 (83)	82 (86)	77 (83)	80 (82)	80 (82)	81 (81)	83 (80)	80 (84)	- (80)
BSI* (전경련)		93.2 (90.0)	95.3 (96.5)	95.3 (97.7)	93.8 (99.4)	95.7 (96.4)	101.6 (99.5)	93.6 (100.4)	93.8 (99.0)	- (100.4)

주: 1) ()는 전망BSI(Business Survey Index).

2) *는 계절조정지수.

자료: 한국은행, 전경련.

3. 소 비

민간소비는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내구재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소폭 상승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1.1%로 하락하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1.6%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

— 지난해 4/4분기 중 비내구재 소비와 서비스 소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7%, 2.3% 증가하여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민간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³⁾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¹⁾	1/4 ¹⁾	2/4 ¹⁾	3/4 ¹⁾	4/4 ¹⁾	1/4 ²⁾
민 간 소 비 (계절조정 ⁴⁾)	100.0	0.0	4.4	2.3	2.9 (0.6)	3.0 (0.8)	2.1 (0.2)	1.1 (-0.4)	1.6 (1.0)
소 비 재 ⁵⁾	40.8	0.5	6.3	3.3	4.3	4.5	3.4	0.9	-
내 구 재	9.7	8.3	12.1	6.3	8.9	12.1	6.8	-1.9	-
준내구재	7.1	-4.2	7.9	4.5	6.3	5.2	4.9	1.9	-
비내구재	24.1	-0.6	3.9	1.7	2.1	1.4	1.7	1.7	-
서 비 스	56.0	1.2	2.3	1.9	2.0	1.2	2.3	2.3	-
해외소비 ⁶⁾	0.8	-59.7 [-0.8]	82.6 [0.5]	-17.8 [-0.2]	-4.2 [-0.1]	86.4 [0.5]	-38.6 [-0.5]	-93.4 [-0.6]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2.7	3.9	3.9	4.2	5.7	4.9	2.2	3.8	3.6
정 부 소 비		5.6	2.9	2.1	1.4	1.8	3.3	1.8	4.4

주: 1) 잠정치.

2) 속보치.

3) 비중은 2011년 연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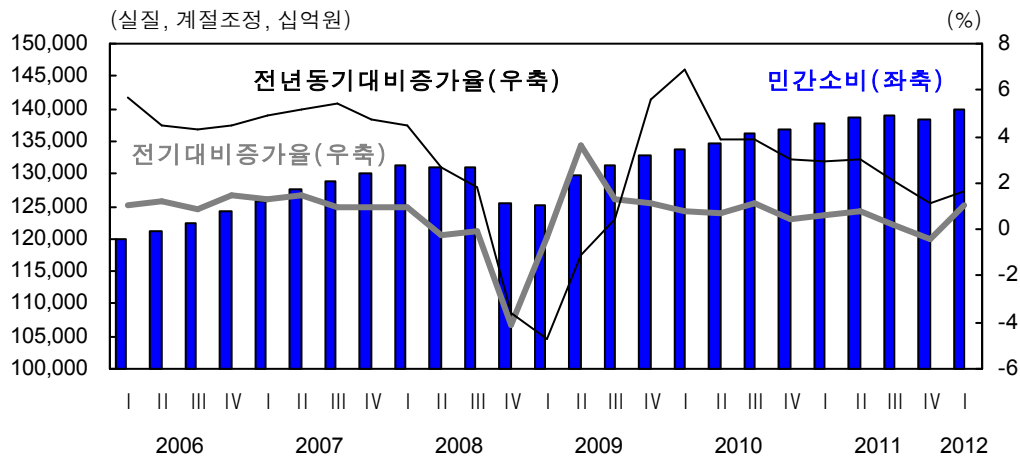
4) 전기대비임.

5) 소비재는 민간소비 중 가계의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의 합계임.

6) []는 순해외소비(=거주자의 해외소비 -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의 민간소비증가율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기여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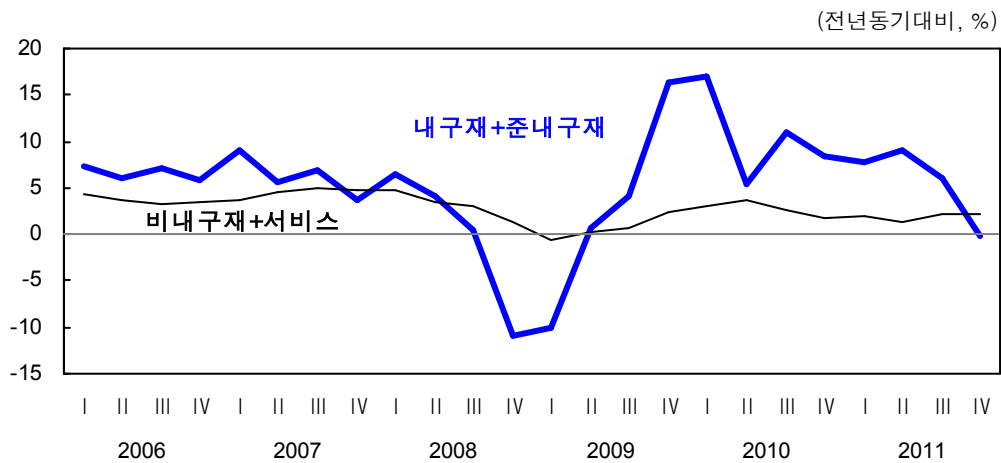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 내구성 소비지출(내구재, 준내구재)은 최근 부진한 가운데, 비내구성 소비지출(비내구재, 서비스)의 증가세는 다소 완만한 모습

형태별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4/4분기 이후 승용차 부문이 크게 하락하며 증가세가 둔화
 - 소비재의 구성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판매가 작년 4/4분기 이후 다소 부진한 모습이며 최근 비내구재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p	3월 ^p
소매판매액지수	2.7	6.7	4.3	5.4	5.7	4.7	1.9	1.9	0.8	5.4	0.0
(계절조정 ¹⁾)				(1.5)	(0.1)	(1.6)	(-1.3)	(1.0)	(0.8)	(2.5)	(-2.7)
내 구 재	8.2	14.8	10.8	12.5	17.3	10.8	3.4	3.6	1.9	11.1	-1.1
승용차	21.8	11.1	5.9	10.7	13.3	9.0	-7.5	-7.4	-13.9	7.5	-13.0
준내구재	1.3	6.8	4.2	5.8	5.0	4.1	2.4	0.6	-0.6	2.5	0.4
비내구재	1.2	2.2	1.1	1.4	-0.6	1.8	1.7	2.3	2.3	3.6	1.3
소비재출하지수	1.4	5.2	-1.1	2.0	-1.9	-0.7	-3.7	-1.1	-7.5	10.4	-4.1
(계절조정 ¹⁾)				(0.5)	(-3.5)	(2.4)	(-2.9)	(1.8)	(3.3)	(0.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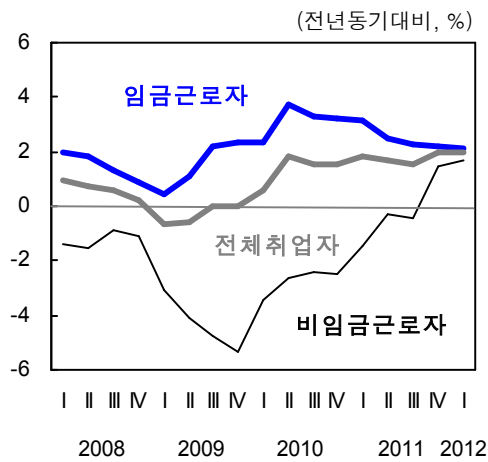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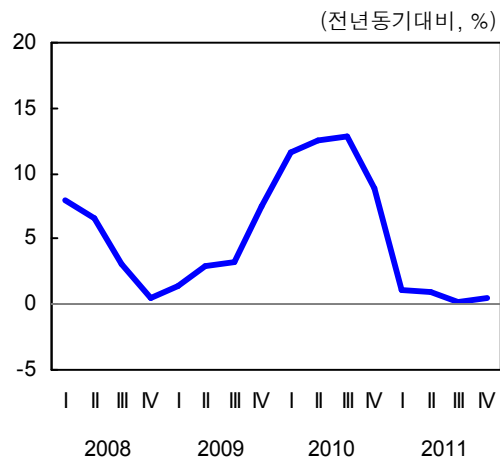
주: 1) 전월(기)비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 호.

-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의 둔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소비 증가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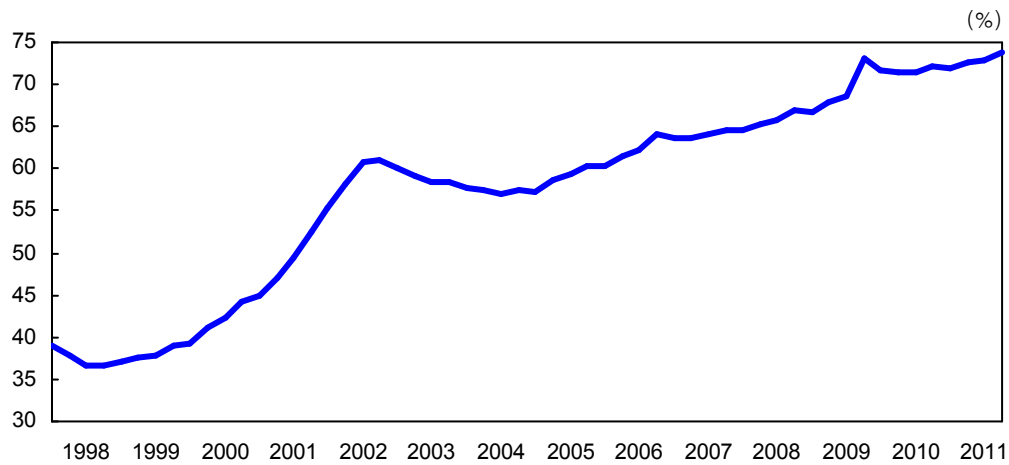
- 최근까지 취업자 증가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은 2011년 이후 크게 둔화
-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향후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킬 우려
 - 가계신용잔액/GDP(%): ('11.1/4) 71.9 → (2/4) 72.6 → (3/4) 72.9 → (4/4) 73.8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평균 실질노동소득 증가율¹⁾

주: 1)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용근로자의 분기임금을 상용근로자수로 곱한 후,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자료: 통계청.

GDP대비 가계신용잔액 비중



주: 각 분기별로 최근 4분기간의 명목 GDP 대비 해당 분기 가계신용잔액을 사용.
자료: 한국은행.

■ 소비관련 심리지표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다소 악화되었다가 최근 개선되는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하반기 소폭 하락하였으나, 금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

- －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4/4분기 100.7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4월에는 104.0을 기록
- － 4월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은 각각 전월보다 7p, 8p씩 상승한 모습

소비자심리지수

	2011				2012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심리지수	103.7	102.0	100.0	100.7	99.7	98.0	100.0	101.0	104.0
현재생활형편	87.0	86.7	85.0	86.0	84.3	83.0	86.0	84.0	87.0
생활형편전망	93.7	93.0	91.3	92.7	92.7	90.0	94.0	94.0	97.0
가계수입전망	99.3	96.7	96.0	96.3	96.0	95.0	96.0	97.0	99.0
소비지출전망	111.7	109.7	107.7	108.0	107.3	106.0	108.0	108.0	110.0
현재경기판단	78.0	75.7	69.3	69.7	67.7	65.0	68.0	70.0	77.0
향후경기전망	88.7	86.0	81.0	80.7	79.3	76.0	80.0	82.0	90.0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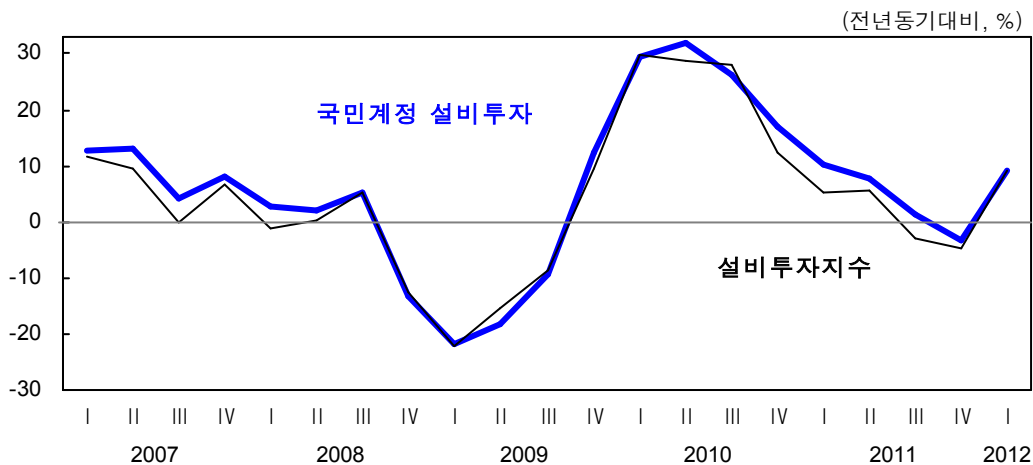
4. 설비투자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2/4분기 이후 둔화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년까지 완만한 둔화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개선되는 모습

- 설비투자는 전분기 감소(-3.3%)에서 금년 1/4분기에 증가로 전환하며 9.1%의 증가율을 기록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전분기 감소(-4.3%)에서 1/4분기에는 증가(10.8%)로 전환
 - 설비투자(국민계정, 계절조정 전기비, %): ('11.1/4) -1.6 → (2/4) 4.7 → (3/4) -1.8 → (4/4) -4.3 → ('12.1/4)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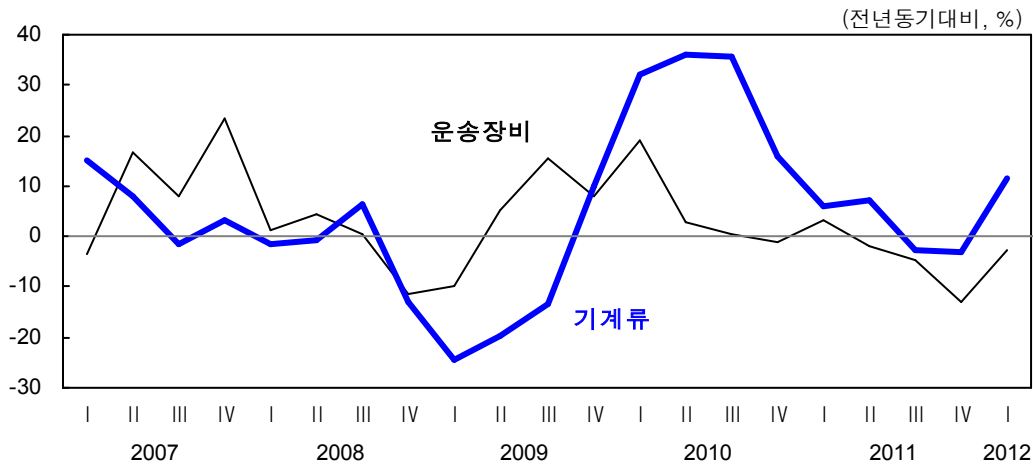
국민계정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설비투자지수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1/4분기에 증가로 전환
 - 기계류 부문은 2011년 3/4분기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2012년 1/4분기에는 증가(11.4%)로 전환
 - 운송장비 부문은 1/4분기에 -2.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12.9%)보다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

형태별 설비투자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비중	2011 ^p					2012			
		연간	1/4 ^p	2/4 ^p	3/4 ^p	4/4 ^p	1/4 ^p	1월	2월 ^p	3월 ^p
설비투자	1.00	3.7	10.3	7.7	1.2	-3.3	9.1			
(계절조정)			(-1.6)	(4.7)	(-1.8)	(-4.3)	(10.8)			
기계류	0.80	4.1	11.9	8.9	-0.7	-2.1	-			
운송장비	0.20	1.9	4.3	3.3	9.2	-8.0	-			
설비투자지수		0.7	5.4	5.7	-3.1	-4.7	9.0	4.9	23.8	1.0
(계절조정)			(-1.9)	(3.6)	(-1.5)	(-5.0)	(11.0)	(12.8)	(-3.9)	(-7.0)
기계류		1.7	6.0	7.3	-2.7	-3.1	11.4	8.7	25.9	2.5
운송장비		-4.1	3.2	-1.9	-4.6	-12.9	-2.9	-15.8	14.4	-6.4
기계류내수출하		1.4	9.2	3.6	-2.9	-3.7	1.3	-1.5	10.9	-4.2
내수용자본재수입액		10.4	10.2	14.4	13.2	4.2	14.5	13.7	36.8	-0.9
기계류수입액	1.00	7.1	8.1	10.6	9.3	1.0	15.2	13.1	38.9	-0.4
기계류	0.70	6.1	2.2	11.7	4.9	5.3	19.6	21.9	39.2	3.2
운송장비	0.30	9.6	23.8	7.9	19.7	-8.3	5.5	-7.4	38.2	-8.1
국내기계수주	1.00	11.0	19.5	10.0	3.4	11.5	-2.7	0.1	21.8	-26.0
(계절조정)			(9.2)	(-0.3)	(-5.4)	(8.8)	(-7.4)	(2.4)	(14.1)	(-33.6)
기계류	0.77	17.2	24.6	12.9	3.3	29.6	-10.3	9.9	-4.8	-30.1
운송장비	0.23	-5.3	5.3	2.1	4.1	-26.3	22.2	-24.6	112.4	-9.5

주: 1) p는 잠정치.

2) 2012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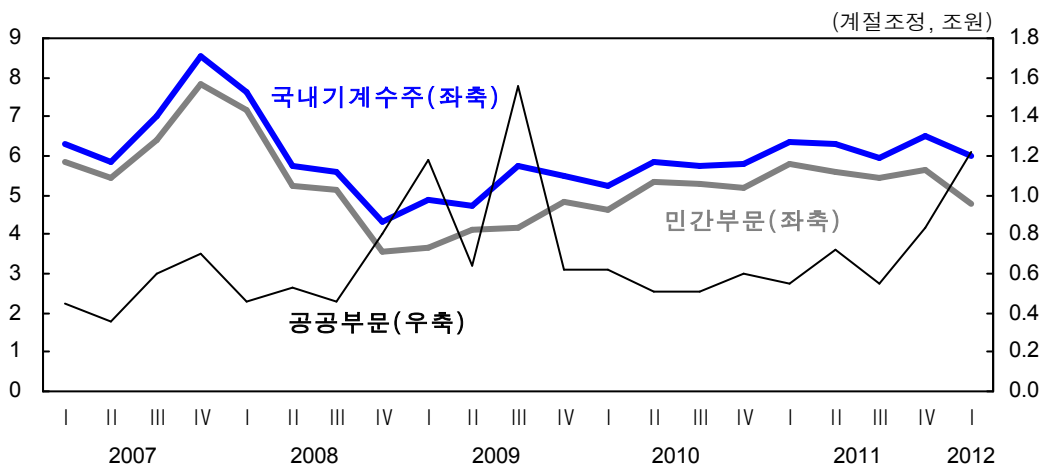
3) 비중은 2011년 연간 기준이며, (계절조정)은 전기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설비투자관련 선행지표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에서 1/4분기 중 다소 감소(-11.1%)하였으나, 공공부문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민간부문(전년동기대비, %): ('11.1/4) 22.7 → (2/4) 4.9 → (3/4) 3.2 → (4/4) 14.7 → ('12.1/4) -11.1
 - 공공부문(전년동기대비, %): ('11.1/4) -10.5 → (2/4) 81.1 → (3/4) 6.1 → (4/4) -3.1 → ('12.1/4) 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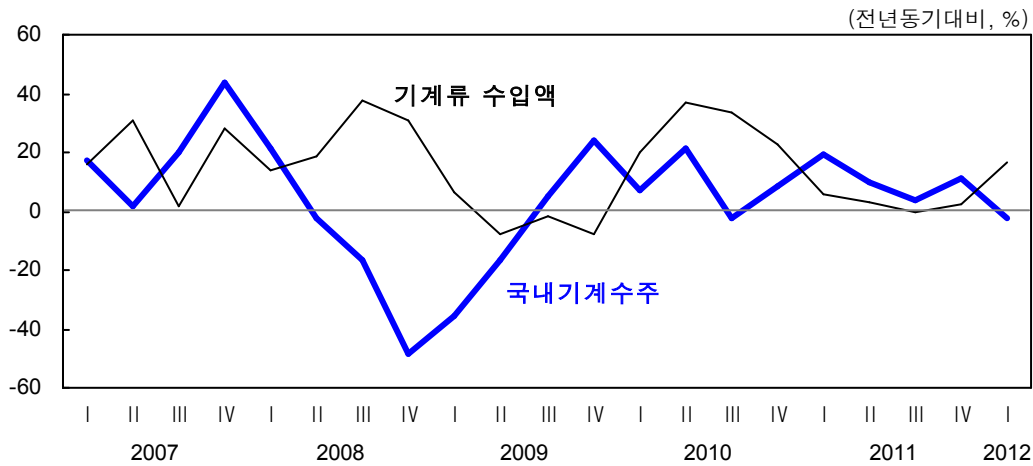
수요자별 국내기계수주(불변금액)



자료: 통계청.

- 형태별로, 기계류의 증가율은 감소(-10.3%)를 기록한 반면, 운송장비는 증가(22.2%)를 기록
 - 기계류(전년동기대비, %): ('11.1/4) 24.6 → (2/4) 12.9 → (3/4) 3.3 → (4/4) 29.6 → ('12.1/4) -10.3
 - 운송장비(전년동기대비, %): ('11.1/4) 5.3 → (2/4) 2.1 → (3/4) 4.1 → (4/4) -26.3 → ('12.1/4) 22.2
-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은 작년 4/4분기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며 금년 1/4분기에는 14.5%의 증가율을 기록
 - 기계류 수입액(원화기준, 전년동기대비, %): ('11.1/4) 5.8 → (2/4) 3.0 → (3/4) -0.2 → (4/4) 2.0 → ('12.1/4) 16.3

기계류수입액(원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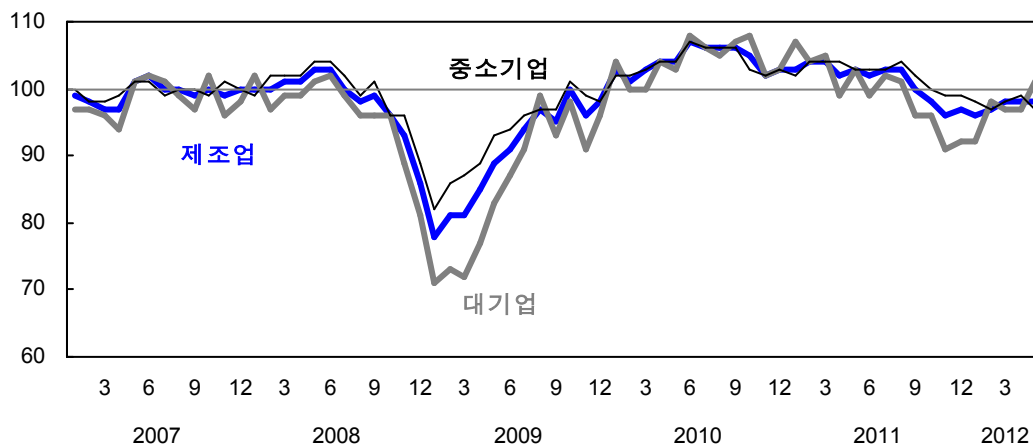
주: 기계류 수입액은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작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4/4분기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

— 제조업 BSI(전망치): ('11.3월) 104 → (6월) 102 → (9월) 100 → (12월) 97 → ('12.3월) 98 → (5월) 98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5.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행지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

■ 건설투자는 금년 1/4분기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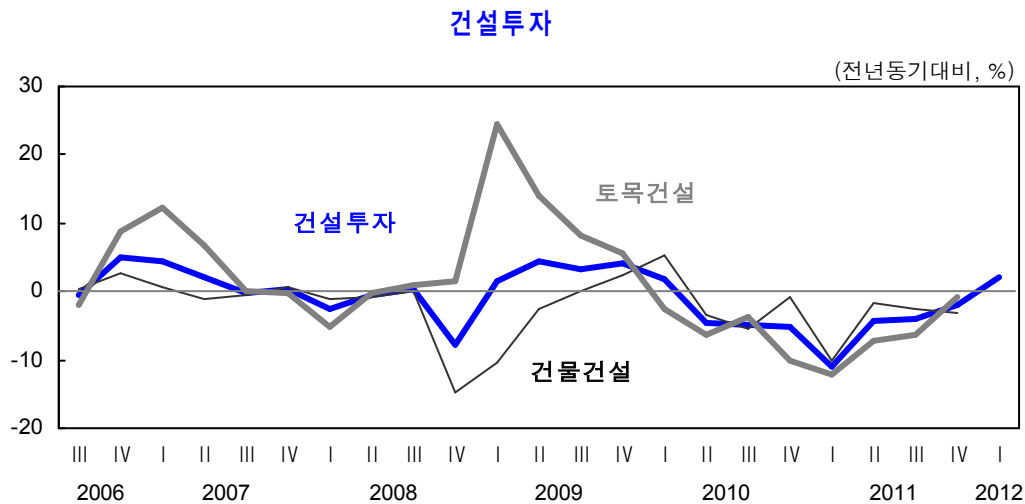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2.1% 증가하며 작년 2/4분기 이후의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0.7%를 기록

—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 ('11.1/4) -11.0 → (2/4) -4.2 → (3/4) -4.0 → (4/4) -2.1 → ('12.1/4) 2.1

● 주거용 건물건설의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비주거용은 감소로 전환

— 주거용(전년동기대비, %): ('11.1/4) -25.4 → (2/4) -16.5 → (3/4) -16.6 → (4/4) -5.4

— 비주거용(전년동기대비, %): ('11.1/4) 1.8 → (2/4) 7.2 → (3/4) 5.7 → (4/4) -1.9



자료: 한국은행.

■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 부문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 부문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 건설기성(불변) 증가율은 금년 1/4분기 중 -3.8%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도 -7.0%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

－ 건설기성(불변, 전년동기대비, %): ('11.1/4) -12.6 → (2/4) -6.6 → (3/4) -8.4 → (4/4) -0.5 → ('12.1/4) -3.8

－ 건축(불변, 전년동기대비, %): ('11.1/4) -15.1 → (2/4) -8.4 → (3/4) -8.0 → (4/4) -2.8 → ('12.1/4) -1.4

－ 토목(불변, 전년동기대비, %): ('11.1/4) -9.2 → (2/4) -4.2 → (3/4) -8.8 → (4/4) 2.2 → ('12.1/4)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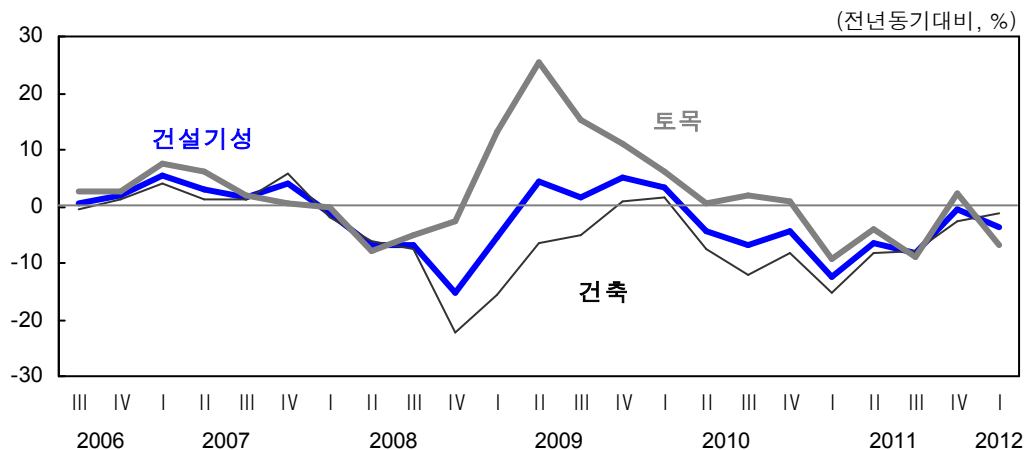
● 건설기성(경상)은 민간 부문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어 0.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7.1%를 시현

－ 건설기성(경상, 전년동기대비, %): ('11.1/4) -6.2 → (2/4) -0.7 → (3/4) -2.4 → (4/4) 5.1 → ('12.1/4) 0.4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전기 2.5%)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전기 6.9%)은 -1.1%를 기록

－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전기 2.5%)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여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토목 부문(전기 8.1%)은 -2.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건설기성(불변)



자료: 한국은행.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발주 모두가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건축의 호조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금년 1/4분기 중 건설수주는 36.6%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25.4% 증가

－ 건설수주(경상, 전년동기대비, %): ('11.1/4) -11.8 → (2/4) -1.7 → (3/4) 1.5 → (4/4) 22.4 → ('12.1/4) 36.6

－ 공종별로는 건축수주(전기 40.6%)가 전년동기대비 31.3% 증가하였고, 토목수주(전기 -1.1%)도 44.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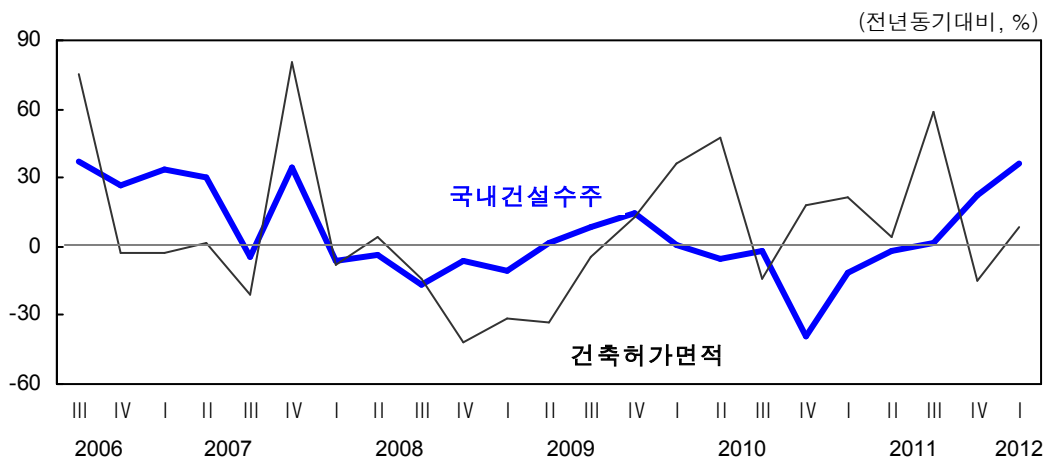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전기 54.2%)이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전기 11.3%)도 43.7%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

－ 다만, 금년 상반기의 재정조기집행 효과,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향후 LH공사의 발주계획 등을 감안할 때 건설수주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금년 1/4분기 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상업용 부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8.7%의 증가율을 기록

－ 건설허가면적(전년동기대비, %): ('11.1/4) 21.5 → (2/4) 3.8 → (3/4) 58.7 → (4/4) -14.8 → ('12.1/4) 8.7

건설수주(경상) 및 건축허가면적



자료: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구 분	비중 ²⁾	2011					2012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4 ^p	1월 ^p	2월 ^p	3월 ^p
건설투자(불변)	1.00	-5.0	-11.0	-4.2	-4.0	-2.1	2.1	-	-	-
(계절조정)	-	-	(-4.4)	(3.5)	(-0.5)	(0.1)	(-0.7)	-	-	-
건물건설(불변)	0.58	-4.1	-10.2	-1.8	-2.5	-3.2	-	-	-	-
토목건설(불변)	0.42	-6.0	-12.2	-7.1	-6.3	-0.9	-	-	-	-
디플레이터	-	6.0	6.5	5.9	6.0	5.4	-	-	-	-
건설기성액(불변)	1.00	-6.7	-12.6	-6.6	-8.4	-0.5	-3.8	-9.5	14.5	-7.9
(계절조정)	-	-	(-3.8)	(2.0)	(-4.3)	(5.7)	(-7.0)	(-15.4)	(10.7)	(-6.5)
건축부문(불변)	0.56	-8.4	-15.1	-8.4	-8.0	-2.8	-1.4	-7.6	18.4	-7.0
토목부문(불변)	0.44	-4.5	-9.2	-4.2	-8.8	2.2	-6.9	-12.0	9.5	-9.1
건설기성액(경상)	1.00	-0.7	-6.2	-0.7	-2.4	5.1	0.4	-5.0	19.6	-4.4
(계절조정)	-	-	(-2.6)	(4.8)	(-2.4)	(5.0)	(-7.1)	(-11.4)	(-0.1)	(2.2)
공공부문(경상)	0.39	1.0	-2.1	2.2	0.5	2.5	2.6	-10.2	27.6	3.4
민간부문(경상)	0.56	-2.9	-9.4	-5.4	-4.7	6.9	-1.1	-2.7	15.9	-9.0
국내건설수주(경상)	1.00	4.0	-11.8	-1.7	1.5	22.4	36.6	42.8	100.4	-3.5
(계절조정)	-	-	(12.5)	(11.7)	(3.3)	(-1.9)	(25.4)	(15.4)	(32.2)	(-40.6)
공공부문(경상)	0.30	-2.5	-49.2	-8.4	-3.1	54.2	37.7	48.4	55.7	9.0
민간부문(경상)	0.65	9.5	20.2	3.8	6.7	11.3	43.7	69.4	132.2	-9.3
건축부문(경상)	0.65	10.9	-7.7	-2.5	9.8	40.6	31.3	73.7	42.5	-0.7
토목부문(경상)	0.35	-6.6	-17.2	0.1	-11.0	-1.1	44.5	0.6	175.9	-8.4
건축허가면적	1.00	9.9	21.5	3.8	58.7	-14.8	8.7	-7.7	23.8	13.5
주 거 용	0.41	9.9	47.4	9.7	119.0	-30.3	19.4	1.0	43.6	21.5
상 업 용	0.25	27.7	11.9	23.1	37.8	38.0	14.4	23.3	26.4	1.7
공 업 용	0.29	6.6	9.3	2.5	24.8	-6.5	-5.0	3.7	-16.9	1.1

주: 1) p는 잠정치.

2) 비중은 2011년 연간 기준.

3) 2012년 1/4분기 건설투자(국민계정)는 속보치.

4) () 안은 계절조정은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 부동산 관련 지표는 1/4분기 중 주택 및 아파트건설 인허가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주택건설 인허가는 41.3%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

— 주택건설 인허가(전년동기대비, %): ('11.1/4) 42.3 → (2/4) 74.0 → (3/4) 132.1 → (4/4) 12.1 → ('12.1/4) 41.3

● 금년 3월말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약 6만 3천호를 기록하여 지난 2006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방 미분양 주택수 감소에 기인

— 2012년 3월말 수도권 미분양주택수는 26,961호, 지방 미분양주택수는 35,988호로 각각 전기대비 -3.3%, -14.2%를 기록

● 한편, 1/4분기 중 아파트 거래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매수 여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40.0%의 증가율을 기록

— 1/4분기 중 주택 준공이 전년동기대비 43.4% 증가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물량은 -39.8% 감소한 약 5만호에 그치면서 아파트 건설 경기의 부진을 시사

주택건설 동향

(천호, 천건)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주택건설 인허가	386.5 (1.2)	549.6 (42.2)	70.5 (42.3)	105.7 (74.0)	123.0 (132.1)	250.3 (12.1)	99.7 (41.3)	29.4 (59.0)	32.1 (67.4)	38.2 (16.2)
아파트건설 인허가	277.0 (-6.8)	356.8 (28.8)	38.2 (40.9)	52.2 (80.2)	74.6 (163.6)	191.8 (-0.4)	53.2 (39.3)	17.0 (74.7)	16.7 (58.7)	19.6 (8.8)
아파트거래 ¹⁾	820.1 (-7.9)	937.3 (14.3)	246.5 (21.1)	229.7 (21.0)	207.6 (22.0)	253.5 (-1.2)	147.9 (-40.0)	36.1 (-53.4)	51.7 (-31.4)	60.1 (-35.8)
주택 준공 ²⁾		338.8	67.5	75.4	76.8	119.2	96.8	26.7	26.6	43.6
아파트 준공		249.2	83.5	45.5	53.0	67.1	50.3	14.6	15.5	24.6
미분양주택	88.7	69.8	77.6	72.7	68.0	69.8	62.9	67.8	64.9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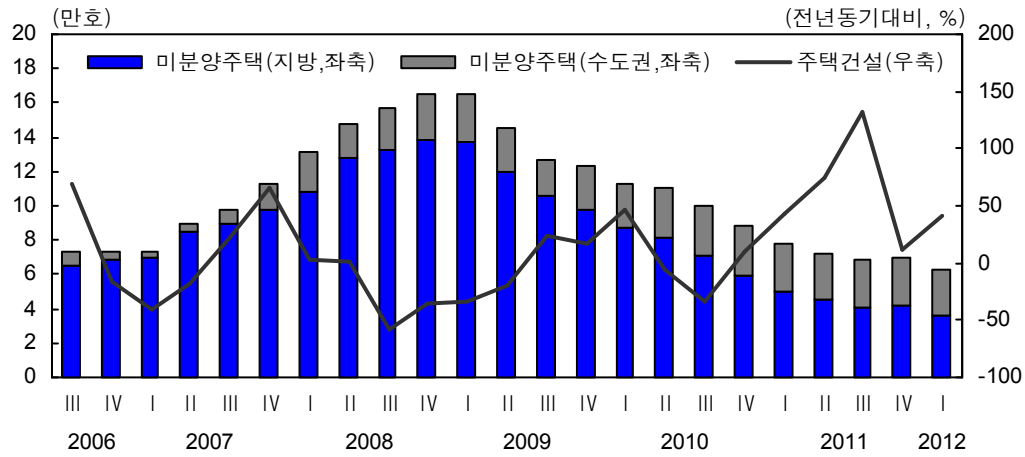
주: 1) 필지수 기준.

2) 동(호)수 기준.

3)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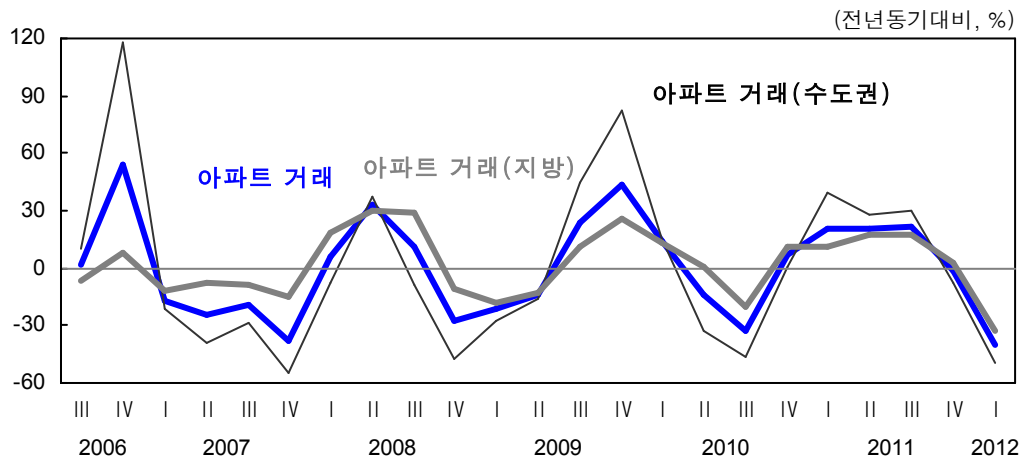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주택건설 인허가와 미분양주택



자료: 국토해양부.

아파트 거래



자료: 국토해양부.

6. 수출입 및 국제수지

수출과 수입은 최근의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 부진을 반영하며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는 모습

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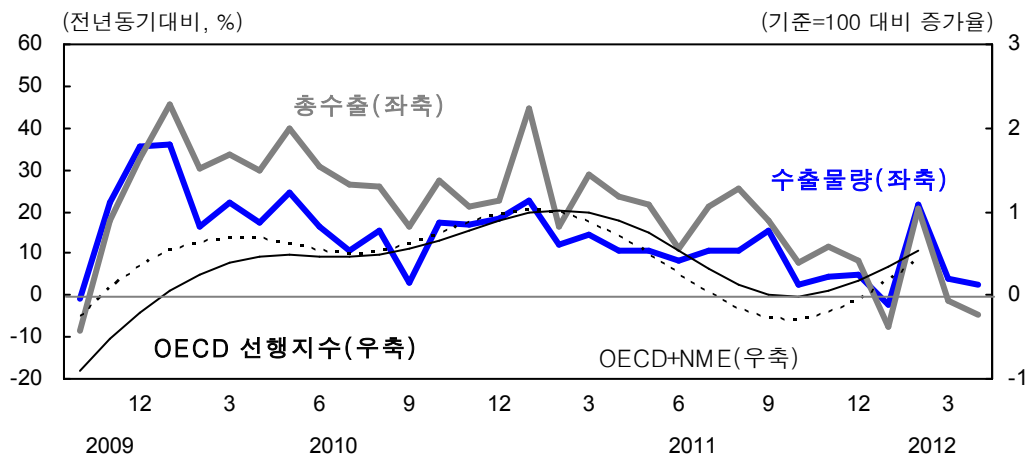
■ 수출 증가세는 작년 3/4분기까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며 크게 하락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와 IT 등 일부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감소를 기록

－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21.4 → (4/4) 9.0 → ('12.1/4) 3.0 → (4월) -4.7

－ 수출 금액(10억달러): ('11.3/4) 141.3 → (4/4) 140.4 → ('12.1/4) 134.9 → (4월) 46.3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 총수출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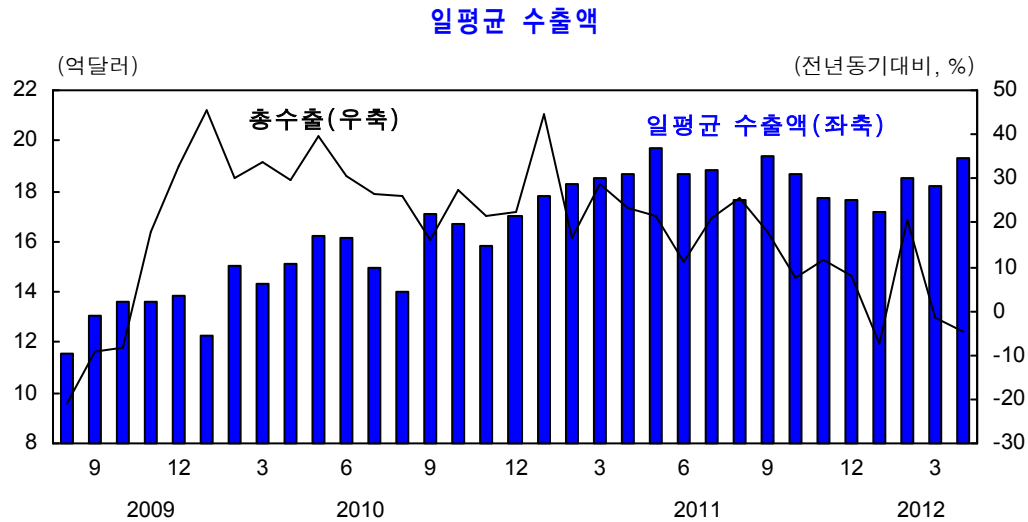


주: OECD+NME: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 주요 6개국(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선행지수.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OECD.

-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하는 모습

—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11.3/4) 18.6 → (4/4) 18.0 → ('12.1/4) 18.0 → (4월) 19.3



■ 품목별로는 선박과 IT부문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

-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IT 관련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4.3 → (4/4) -28.5 → ('12.1/4) -32.1 → (4월) -37.1

—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10.3 → (4/4) -1.8 → ('12.1/4) -2.2 → (4월) -8.3

— 액정디바이스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15.8 → (4/4) -2.2 → ('12.1/4) -6.9 → (4월) 0.4

- 선박 수출도 기저효과 등으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

— 선박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8.5 → (4/4) -6.5 → ('12.1/4) -25.5 → (4월) -21.7

— 선박 수출액 (억달러): ('11.3/4) 123.7 → (4/4) 122.9 → ('12.1/4) 122.0 → (4월) 49.0

● 석유관련 품목들은 유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단가요인으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수출은 호조세를 나타내며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

—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75.4 → (4/4) 41.0 → ('12.1/4) 28.5 → (4월) -11.1

— 석유화학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39.3 → (4/4) 16.7 → ('12.1/4) 4.6 → (4월) -4.9

—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29.0 → (4/4) 26.6 → ('12.1/4) 27.4 → (4월) 13.6

— 일반기계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28.9 → (4/4) 19.2 → ('12.1/4) 11.0 → (4월) 8.5

품목별 수출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4월 ²⁾
수출	100	19.0	29.6	18.6	21.4	9.0	3.0	-4.7
(선박제외)	(89.8)	(19.5)	(25.7)	(20.4)	(22.9)	(10.8)	(7.1)	(-2.2)
중화학제품	91.0	18.8	29.8	18.2	20.6	8.9	2.8	-
반도체	9.0	-1.1	14.3	-3.1	-10.2	-1.8	-2.2	-8.3
무선통신기기	4.9	-1.1	6.3	22.5	4.3	-28.5	-32.1	-37.1
컴퓨터	1.6	0.4	-5.1	-7.1	23.6	-6.3	-3.0	-0.1
석유제품	9.3	63.7	70.1	73.0	75.4	41.0	28.5	-11.1
일반기계	8.3	26.9	38.0	24.2	28.9	19.2	11.0	8.5
자동차	8.2	28.0	31.0	26.2	29.0	26.6	27.4	13.6
석유화학	8.2	27.6	27.6	27.8	39.3	16.7	4.6	-4.9
철강제품	6.9	33.3	43.0	27.9	42.8	22.7	8.7	4.0
선박	10.2	15.2	65.5	6.0	8.5	-6.5	-25.5	-21.7
액정디바이스	5.0	-7.0	-0.8	-7.6	-15.8	-2.2	-6.9	0.4
경공업제품	6.2	16.3	21.3	18.0	18.9	8.4	7.7	-

주: 1)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2011년 기준).

2) 4월 전체 잠정치.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각호.

□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

- 대 EU 수출은 유럽재정위기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대미 수출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
 - － 대 EU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0.7 → (4/4) -15.7 → ('12.1/4) -17.7
 - － 대 미국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8.1 → (4/4) 7.6 → ('12.1/4) 24.4
 - － 대 일본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40.8 → (4/4) 29.3 → ('12.1/4) 14.0
- 중국, ASEAN 등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
 - － 대 중국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20.2 → (4/4) 8.5 → ('12.1/4) 0.7
 - － 대 ASEAN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45.9 → (4/4) 24.5 → ('12.1/4) 13.9

지역별 수출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4월 ²⁾
수 출	100	19.0	29.6	18.6	21.4	9.0	3.0	-4.7
중 국	24.2	14.8	17.2	14.3	20.2	8.5	0.7	1.7
미 국	10.1	12.8	19.6	17.5	8.1	7.6	24.4	5.6
일 본	7.1	40.8	49.5	47.1	40.8	29.3	14.0	-11.3
E U	10.0	4.1	34.7	2.5	0.7	-15.7	-17.7	-16.7
ASEAN	12.9	35.0	39.5	32.1	45.9	24.5	13.9	4.0
중 동	5.9	15.9	31.9	10.8	13.0	11.9	15.2	34.9
중남미	7.2	10.9	26.2	-0.9	7.8	14.1	-7.6	96.5

주: 1)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2011년 기준).

2) 총수출을 제외한 지역별 수출은 4월 20일까지의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각호.

나. 수입

□ 수입 증가세는 우리경제의 내수 및 수출둔화에 기인하여 비교적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수입 증가율은 작년 4/4분기(13.4%) 이후 둔화되면서, 금년 1/4분기에는 7.5%를 기록

－ 수입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27.7 → (4/4) 13.4 → ('12.1/4) 7.5 → (4월) -0.2

●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율은 크게 하락한 반면, 자본재 수입은 증가로 전환

－ 원자재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38.2 → (4/4) 21.0 → ('12.1/4) 9.0

* 원유 도입물량 추이(백만배럴) : ('11.3/4) 231.1 → (4/4) 236.3 → ('12.1/4) 233.7 → (4월) 71.9

* 원유 도입단가 추이(달러/배럴) : ('11.3/4) 111.2 → (4/4) 110.7 → ('12.1/4) 117.1 → (4월) 127.8

－ 소비재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28.9 → (4/4) 12.6 → ('12.1/4) -0.7

－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3/4) 8.8 → (4/4) -0.2 → ('12.1/4) 7.0

용도별 수입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4월 ²⁾
수 입	100	23.3	26.3	27.1	27.7	13.4	7.5	-0.2
소비재	10.0	25.2	33.2	28.7	28.9	12.6	-0.7	-4.8
원자재	62.5	31.4	32.7	34.9	38.2	21.0	9.0	14.0
자본재	27.4	7.8	11.6	12.1	8.8	-0.2	7.0	4.6

주: 1)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2011년 기준).

2) 총수입을 제외한 용도별 수입은 4월 20일까지의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각호.

원유 수입동향

(억달러)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4월 ²⁾
원유수입액	1,008	231	258	257	262	274	92
(전년동기대비)	(46.8)	(44.3)	(50.5)	(56.2)	(37.5)	(18.4)	(5.3)
도입물량(백만배럴)	927	235	224	231	236	233	72
도입단가(달러/배럴)	109	98	115	111	111	117	128

주: 1)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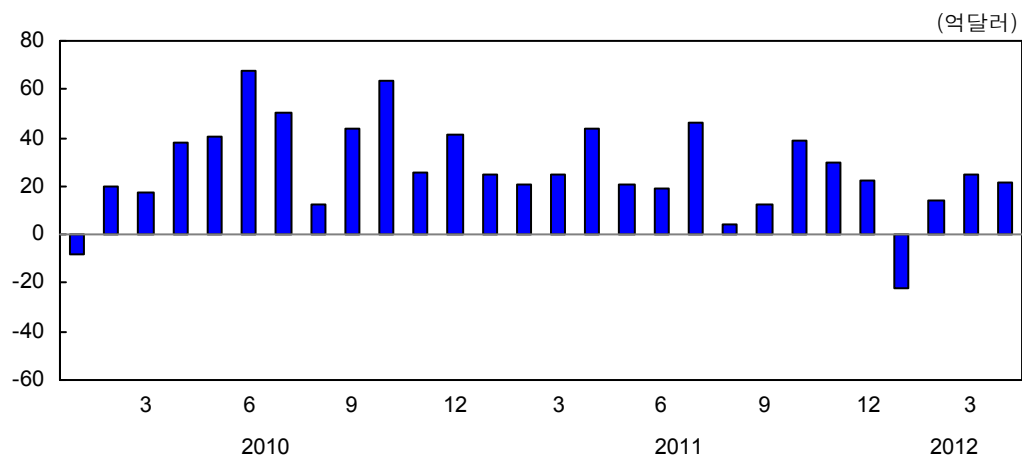
2) 4월 전체 잠정치.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각호.

다.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금년 1/4분기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며 16.7억달러 기록
- 무역수지의 흑자규모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율 감소에 기인하여 축소되는 모습
 - 무역수지(억달러): ('11.3/4) 63.0 → (4/4) 91.6 → ('12.1/4) 16.7 → (4월) 21.5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 교역조건

- 교역조건은 수출단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악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
- 수출단가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입단가는 이란사태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
 - 교역조건(2005=100): ('11.3/4) 78.7 → (4/4) 76.6 → ('12.1월) 75.6 → (2월) 74.5
 - 수출단가(2005=100): ('11.3/4) 112.7 → (4/4) 109.0 → ('12.1월) 105.6 → (2월) 105.5
 - 수입단가(2005=100): ('11.3/4) 143.1 → (4/4) 142.3 → ('12.1월) 139.7 → (2월) 141.7

- 철강제품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가 대부분 하락
 - － 철강제품 수출단가(2005=100): ('11.3/4) 139.1 → (4/4) 131.8 → ('12.1월) 127.1 → (2월) 127.2
 - － 반도체 수출단가(2005=100): ('11.3/4) 21.1 → (4/4) 16.6 → ('12.1월) 14.3 → (2월) 12.1
 - － 정밀기기 수출단가(2005=100): ('11.3/4) 62.3 → (4/4) 59.7 → ('12.1월) 56.7 → (2월) 57.2
 - － 전기·전자제품 수출단가(2005=100): ('11.3/4) 70.7 → (4/4) 68.2 → ('12.1월) 63.5 → (2월) 59.4
- 작년 4/4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나타내던 수입단가는 최근 원유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
 - － 소비재 수입단가(2005=100): ('11.3/4) 136.8 → (4/4) 133.3 → ('12.1월) 136.4 → (2월) 137.1
 - － 원자재 수입단가(2005=100): ('11.3/4) 175.6 → (4/4) 173.5 → ('12.1월) 170.4 → (2월) 172.7
 - － 원유 수입단가(2005=100): ('11.3/4) 217.8 → (4/4) 216.6 → ('12.1월) 220.6 → (2월) 226.3
 - － 원유 제외 총지수 수입단가(2005=100): ('11.3/4) 128.4 → (4/4) 127.2 → ('12.1월) 123.8 → (2월) 125.1
 - － 자본재 수입단가(2005=100): ('11.3/4) 87.1 → (4/4) 89.3 → ('12.1월) 86.4 → (2월) 88.1

수출입 단가 및 교역조건 동향

(2005=100)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수출단가	101.2 (11.8)	109.8 (8.5)	105.8 (8.2)	111.9 (9.7)	112.7 (9.5)	109.0 (6.7)	105.6 (1.1)	105.5 (0.3)
수입단가	117.7 (12.2)	139.3 (18.4)	132.0 (15.3)	140.4 (18.7)	143.1 (21.5)	142.3 (17.0)	139.7 (8.6)	141.7 (7.0)
원 유	155.1 (29.3)	213.3 (37.5)	193.5 (27.2)	225.8 (42.5)	217.8 (47.0)	216.6 (34.5)	220.6 (22.0)	226.3 (17.6)
교역조건	86.0 (-0.3)	78.8 (-8.4)	80.2 (-6.1)	79.7 (-7.5)	78.7 (-9.9)	76.6 (-8.9)	75.6 (-6.9)	74.5 (-6.3)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100.

자료: 한국은행, 「2011년중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 각호.

마.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금년 1/4분기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되는데 기인하여 전분기에 비해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26.3억달러를 기록

● 상품수지는 선박 및 IT관련 품목의 수출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폭이 크게 감소한 26.9억달러를 기록

— 상품수지 추이(억달러): ('11.3/4) 72.0 → (4/4) 102.5 → ('12.1/4) 26.9

● 서비스수지는 지난 4/4분기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지적재산권 사용료수지와 여행수지가 크게 악화되며 적자로 전환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11.3/4) -12.0 → (4/4) 1.5 → ('12.1/4) -6.5

— 운송수지 추이(억달러): ('11.3/4) 25.0 → (4/4) 19.4 → ('12.1/4) 22.2

— 여행수지 추이(억달러): ('11.3/4) -19.7 → (4/4) -6.8 → ('12.1/4) -16.4

항목별 경상수지

(억달러)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3월 ^P
경상수지	265.1	26.1	54.9	69.0	115.1	26.3	-9.7	5.6	30.4
상품수지	309.5	58.4	76.6	72.0	102.5	26.9	-16.2	13.1	30.0
수출(FOB)	5,526	1,277	1,427	1,414	1,408	1347	414	459	474
수입(FOB)	5,216	1,218	1,351	1,342	1,305	1320	430	446	444
서비스수지	-43.8	-25.4	-8.0	-12.0	1.5	-6.5	-1.3	-12.2	7.0
여행수지	-71.6	-22.4	-22.7	-19.7	-6.8	-16.4	-8.1	-5.3	-3.0
사업서비스수지	-169.2	-45.1	-34.8	-40.1	-49.1	-46.2	-17.4	-17.1	-11.7
본원소득수지	24.6	3.9	-8.2	13.1	15.8	14.9	11.9	6.1	-3.2
이전소득수지	-25.2	-10.8	-5.5	-4.2	-4.7	-8.9	-4.1	-1.5	-3.4

주: p는 잠정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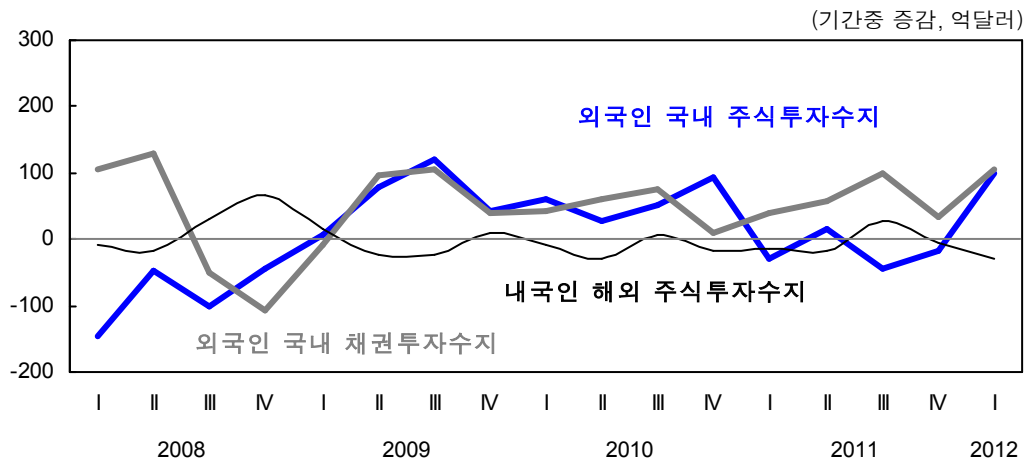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잠정)」 각호.

바. 금융 · 자본계정

■ 금융계정은 금년 1/4분기 중 12.7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하며 순유출 규모는 작년 4/4분기 이후 급격히 축소되는 모습

-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의 자금회수가 증가하여 작년 4/4분기 40.5억달러 순유출에서 금년 1/4분기 중 72억달러로 순유출 규모가 확대
-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순유입 규모가 작년 4/4분기 15.5억달러에서 금년 1/4분기 중 151.6억달러로 확대

증권투자수지 주요 항목별



자료: 한국은행.

- 파생금융상품수지는 금년 1/4분기 중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 － 파생금융상품수지(억달러): ('11.1/4) 7.3 → (2/4) -5.4 → (3/4) -14.9 → (4/4) -4.3 → ('12.1/4) 15.7
- 기타투자수지는 예금유출의 확대로 작년 4/4분기 27.9억달러 순유입에서 1/4분기 중 42.1억달러 순유출로 전환
 - － 대출(억달러): ('11.1/4) -2.4 → (2/4) -19.2 → (3/4) -66.3 → (4/4) -30.5 → ('12.1/4) -6.2
 - － 차입(억달러): ('11.1/4) 137.8 → (2/4) 61.5 → (3/4) -63.8 → (4/4) -30.5 → ('12.1/4) 11.7

금융·자본계정 동향

(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p
금융계정	-349.4	-272.6	-321.1	-25.7	-67.0	-85.6	-142.9	-12.7
직접투자	-149.5	-221.8	-156.9	-47.0	-41.4	-28.1	-40.5	-72.0
증권투자	497.3	424.8	103.1	-13.8	20.4	81.1	15.5	151.6
파생금융상품수지	-30.9	8.3	-17.4	7.3	-5.4	-14.9	-4.3	15.7
기타투자	20.4	-214.1	-110.8	62.5	-14.3	-186.9	27.9	-42.1
준비자산	-686.7	-269.7	-139.1	-34.8	-26.2	63.3	-141.4	-65.9
자본계정	2.9	-2.2	1.5	-1.8	-1.1	2.4	2.1	1.3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각호.

□ 외환보유액은 금년 1/4분기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작년 말 기준 소폭 감소

● 외환보유액은 작년 4/4분기 30.2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금년 1/4분기 95.5억달러 증가

준비자산 증감

(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p	4월
준비자산증감	686.7	269.7	139.1	34.8	26.2	-63.3	141.4	65.9	-
외환보유액 증감 (외환보유액 잔액)	688 (2,700)	216 (2,916)	18.9 (2,742)	70.5 (2,986)	58.7 (3,045)	-11.0 (3,034)	30.2 (3,064)	95.5 (3,160)	8.9 (3,168)

주: 외환보유액 잔액은 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증감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반영됨.

자료: 한국은행, 「각월 중 국제수지동향」.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작년 4/4분기말 기준 44.4%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총외채비중은 130.0을 기록하며 연초대비 소폭 증가

● 만기별로 장기외채는 작년말 기준 2,62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361억달러를 기록

외채관련 지표

(기말기준, %)

	2009	2010		2011			
	4/4	3/4	4/4	1/4	2/4	3/4	4/4 ^P
단기외채/외환보유액	55.3	50.1	46.3	49.7	49.2	45.7	44.4
총외채/외환보유액	127.9	126.3	123.5	128.1	130.7	129.9	130.0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2011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 '2011년 외환보유액'.

외채 및 대외채권

(억달러, %, 기말기준)

	총 대외채무				총 대외채권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3/4 ^r	4/4 ^P			3/4 ^r	4/4 ^P
계	3,457	3,594	3,943	3,984	4,147	4,510	4,920	4,964
일반정부	278 (8.0)	444 (12.4)	520 (13.1)	535 (13.4)	93 (2.3)	100 (2.2)	99 (2.0)	1.2 (0.0)
통화당국	400 (11.6)	356 (9.9)	337 (8.5)	305 (7.7)	2,751 (67.0)	2,962 (66.1)	3,080 (62.6)	3,111 (62.7)
					<2,700>	<2,916>	<3,035>	<3,064>
예금취급 기관	1,803 (52.1)	1,731 (48.2)	1,922 (48.6)	1,941 (48.7)	776 (18.9)	848 (18.7)	1,051 (21.4)	1,027 (20.7)
기타부문	976 (28.2)	1,064 (29.6)	1,165 (29.8)	1,203 (30.2)	527 (11.8)	600 (13.0)	690 (14.0)	723 (14.6)
장 기	1,965 (56.8)	2,197 (61.1)	2,558 (64.9)	2,622 (65.8)	743 (17.5)	769 (17.7)	846 (17.2)	872 (17.6)
단 기	1,492 (43.2)	1,398 (38.9)	1,385 (35.4)	1,361 (34.2)	3,404 (82.5)	3,742 (82.3)	4,074 (82.8)	4,091 (82.4)
순채권					690	916	977	980

주: 1) < >는 준비자산.

2) ()는 총대외채무 및 총대외채권에 대한 구성비.

3) p는 잠정치.

4) r은 수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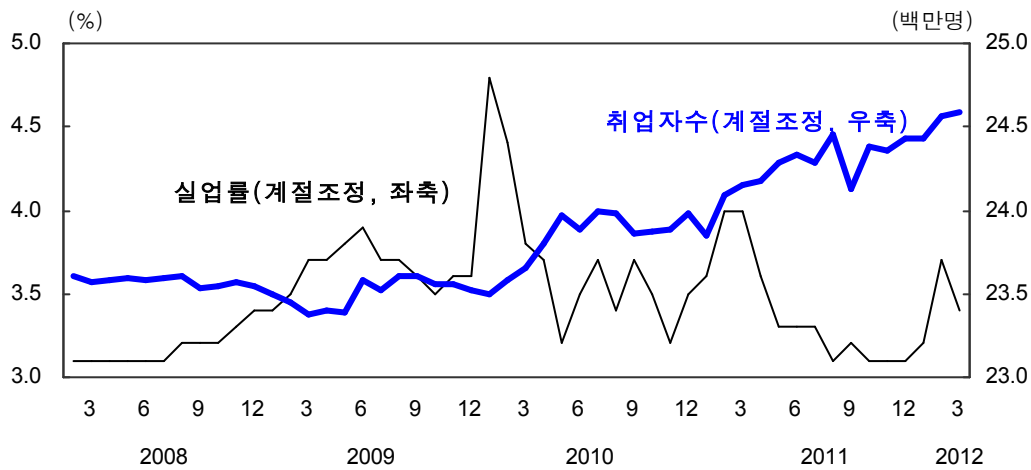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11년 12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7. 노동시장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는 등 고용호조세가 유지되는 모습

- 금년 1/4분기에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모습
 - 취업자는 금년 1/4분기 46만 7천명(2.0%) 증가하여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10.4/4) 358 → ('11.1/4) 423 → (2/4) 402 → (3/4) 363 → (4/4) 474 → ('12.1/4) 467
 - －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0.4/4) 1.5 → ('11.1/4) 1.8 → (2/4) 1.7 → (3/4) 1.5 → (4/4) 2.0 → ('12.1/4) 2.0
 -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57.8%(계절조정 59.3%)를 기록
 - － 고용률(%): ('10.4/4) 58.9 → ('11.1/4) 57.4 → (2/4) 59.9 → (3/4) 59.6 → (4/4) 59.4 → ('12.1/4) 57.8
 - 실업률은 3.8%(계절조정 3.4%)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
 - － 실업률(%): ('10.4/4) 3.3 → ('11.1/4) 4.2 → (2/4) 3.4 → (3/4) 3.1 → (4/4) 2.9 → ('12.1/4) 3.8
 - － 1/4분기 실업자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여 총 8만 2천명(-7.9%)이 감소

실업률 및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최근의 고용지표

(천명,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4,748 (1.5)	25,099 (1.4)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202 (1.6)	24,873 (1.6)
취업자	23,829 (1.4)	24,244 (1.7)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62 (2.0)	23,927 (2.0)
실업자	920 (3.5)	855 (-7.1)	1,028 (-9.0)	865 (-0.4)	786 (-10.0)	740 (-8.4)	947 (-7.9)
비경제활동인구	15,841 (0.9)	15,953 (0.7)	16,392 (0.8)	15,559 (0.4)	15,847 (1.2)	16,014 (0.3)	16,495 (0.6)
경제활동참가율	61.0	61.1	59.9 [61.1]	62.0 [61.3]	61.5 [61.0]	61.1 [61.1]	60.1 [61.4]
실업률	3.7	3.4	4.2 [3.9]	3.4 [3.4]	3.1 [3.2]	2.9 [3.1]	3.8 [3.4]
고용률	58.7	59.1	57.4 [58.8]	59.9 [59.2]	59.5 [59.1]	59.4 [59.2]	57.8 [59.3]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안은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연령계층별·학력별 실업자 증감

(천명, %)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전 체	119 (15.5)	31 (3.5)	-65 (-7.1)	-101 (-9.0)	-3 (-0.4)	-88(-10.0)	-68 (-8.4)	-82 (-7.9)
남 자	80 (15.8)	-7 (-1.2)	-47 (-8.2)	-70(-10.1)	-32 (-5.7)	-48 (-8.7)	-41 (-8.0)	-54 (-8.8)
여 자	40 (15.0)	38 (12.5)	-18 (-5.1)	-32 (-7.2)	29 (9.5)	-40(-12.1)	-27 (-9.1)	-28 (-6.7)
15~29세	33 (10.4)	-8 (-2.2)	-20 (-5.7)	-35 (-8.7)	1 (0.2)	-39(-12.0)	-5 (1.6)	-27 (-7.2)
30~59세	74 (17.5)	3 (0.6)	-14 (-8.8)	-39 (-6.8)	-13 (-2.7)	-57(-11.5)	-63(-13.8)	-60 (-11.1)
60세 이상	13 (40.8)	35 (79.1)	-3 (-3.2)	-27(-18.6)	9 (14.9)	8 (13.2)	-0 (0.2)	5.1 (4.3)
중졸 이하	12 (10.1)	24 (18.2)	-20 (-14.2)	-47(-19.3)	-19(-14.5)	-13 (-9.6)	-4 (-4.6)	-8 (-3.9)
고 졸	54 (14.0)	-18 (-4.0)	-22 (-5.1)	-28 (-5.7)	22 (5.7)	-37 (-8.9)	-44(-11.1)	-57 (-12.2)
대졸 이상	54 (20.0)	25 (7.7)	-23 (-6.6)	-27 (-6.7)	-6 (-1.8)	-38(-11.5)	-20 (-6.6)	-17 (-4.7)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는 단순유휴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

-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10만 3천명, 0.6%)는 2011년 4/4분기(5만 3천명, 0.3%)에 비해 확대
- 단순유휴자(쉬었음)는 1/4분기에 12만 6천명(7.3%)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
- 취업준비자 수는 4만 6천명(-7.8%)감소하여 2011년 1/4분기 이후 6%대 이상의 감소세를 지속
- 구직단념자는 2011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며 2만 2천명(-10%) 감소
 - 경기적 요인(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는 1/4분기에 1만 4천명(-10.1%) 감소하며 감소세를 유지

최근 취업자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천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가취업희망			취업준비	쉬었음	구직단념	
2009	-72 (-0.3)	23 (17.4)	119 (15.5)	447 (2.9)	-7 (-1.2)	123 (9.1)	43 (36.6)	
2010	323 (1.4)	-19 (-12.4)	31 (3.5)	143 (0.9)	34 (5.8)	-56 (-3.8)	58 (36.0)	
2011	416 (1.7)	-18 (-12.6)	-65 (-7.1)	112 (0.7)	-54 (-8.6)	182 (12.8)	-9 (-4.0)	
'09.1/4	-146 (-0.6)	38 (28.7)	107 (13.4)	514 (3.3)	-46 (-7.5)	162 (10.6)	54 (47.2)	
2/4	-134 (-0.6)	47 (34.5)	176 (23.0)	445 (3.0)	-16 (-2.5)	112 (9.4)	45 (43.8)	
3/4	-1 (0.0)	-5 (-3.3)	134 (17.9)	374 (2.5)	23 (3.7)	94 (7.1)	44 (35.5)	
4/4	-6 (0.0)	12 (10.2)	60 (7.9)	456 (3.0)	10 (1.8)	123 (8.9)	30 (23.0)	
'10.1/4	132 (0.6)	-13 (-7.7)	222 (24.4)	166 (1.0)	71 (12.6)	-187 (-11.1)	64 (38.1)	
2/4	433 (1.8)	-44 (-23.9)	-75 (-8.0)	146 (1.0)	44 (7.3)	-27 (-2.1)	70 (47.2)	
3/4	369 (1.6)	-8 (-5.7)	-13 (-1.5)	128 (0.8)	-5 (-0.7)	15 (1.1)	49 (29.2)	
4/4	358 (1.5)	-12 (-9.2)	-10 (-1.2)	133 (0.8)	26 (4.6)	-27 (-1.8)	50 (30.9)	
'11.1/4	423 (1.8)	-20 (-12.8)	-101 (-9.0)	138 (0.8)	-40 (-6.3)	241 (16.1)	-12 (-5.2)	
2/4	402 (1.7)	-22 (-15.7)	-3 (-0.4)	66 (0.4)	-58 (-8.9)	163 (12.8)	9 (4.0)	
3/4	363 (1.5)	-15 (-11.1)	-88 (-10.0)	191 (1.2)	-53 (-8.5)	193 (13.6)	-0 (-0.2)	
4/4	474 (2.0)	-13 (-11.0)	-68 (-8.4)	53 (0.3)	-63 (-10.7)	131 (8.8)	-31 (-14.8)	
'12.1/4	467 (2.0)	-14 (-10.1)	-81 (-7.9)	103 (0.6)	-46 (-7.8)	126 (7.3)	-22 (-10.0)	

주: 1) 2009~2011년은 1~12월 평균의 전년대비 증감, '09.1/4~'12.1/4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이며,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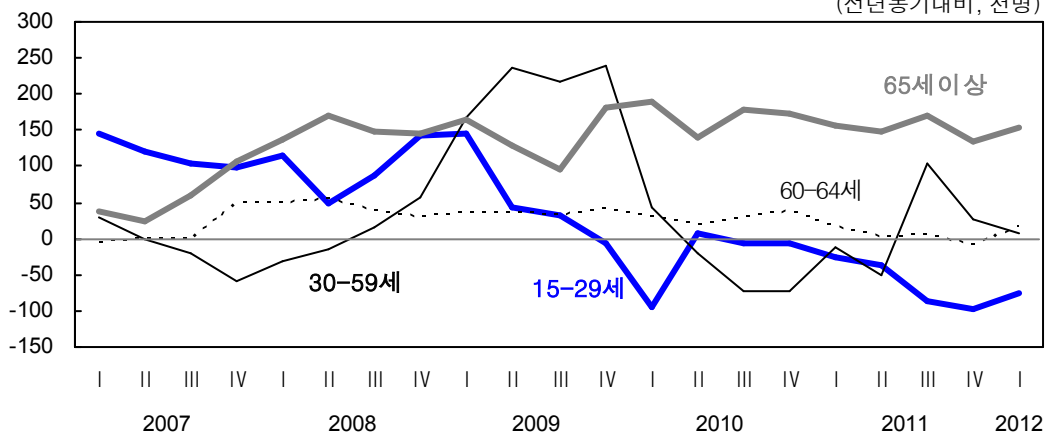
2) '취업준비'와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미참여 사유 중 일부만을 나타낸 것이며, '구직단념'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노동시장 사정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던 30~50대의 핵심근로연령대의 비경제활동인구가 2011년 3/4분기 이후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감소세(-7만 4천명, -1.4%)를 유지

연령 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년동기대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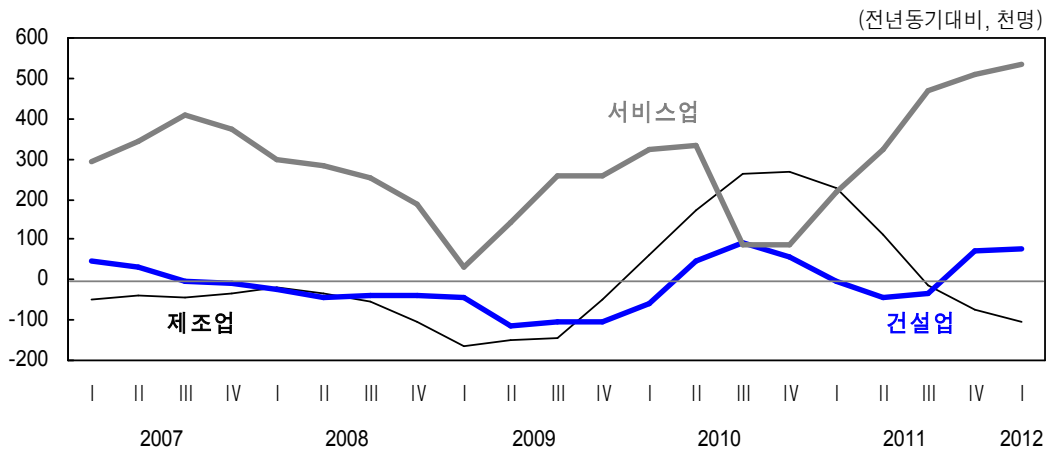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작년 3/4분기 이후 감소세가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는 1/4분기 53만 7천명(3.3%) 증가하여 전분기(51만명, 3.1%)에 비해 확대
 - －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10만명(1.8%)이 증가하며 2011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
 - － 운수·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에는 19만명(4.1%) 증가
 - －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취업자는 17만명(4.5%)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
 - － 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취업자는 1/4분기의 증가폭(7만 7천명, 3.1%)이 전분기(15만명, 6.2%)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
- 제조업 취업자는 1/4분기에 10만 2천명(-2.5%) 감소하며 하락폭이 확대
-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금년 1/4분기는 7만 9천명(4.8%)이 증가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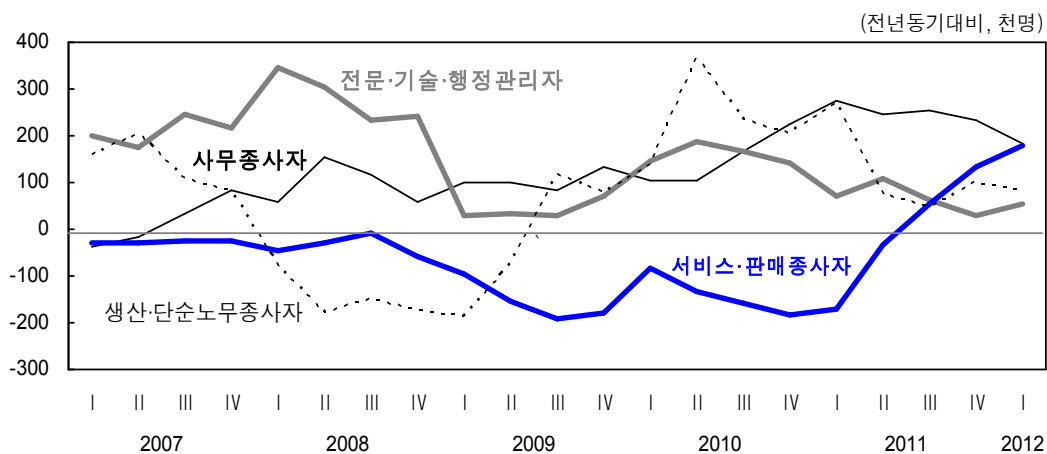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증가세 확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직업에서 증가세가 지속

- 1/4분기 사무종사자, 생산·단순노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각각 18만 2천명(4.7%), 7만 9천명(1.1%), 5만 5천명(1.1%)이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8만명(3.4%) 증가하여 전분기(13만 3천명, 2.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주요 직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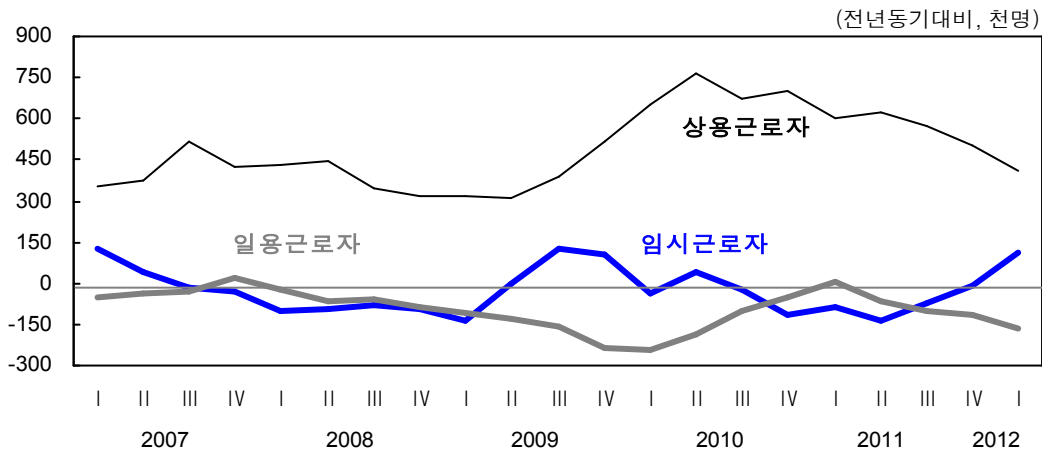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확대

- 1/4분기 임금근로자(36만명 2.1%)는 전분기(37만 4천명, 2.2%)와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
- 임시근로자는 1/4분기에 11만명(2.3%) 증가하면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일용근로자는 16만 3천명(-9.6%)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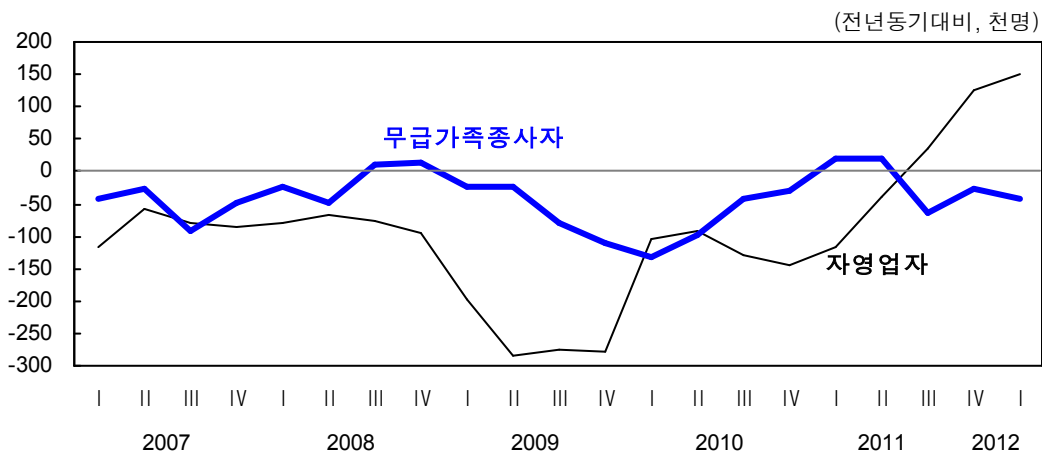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진입으로 자영업자(15만명, 2.8%)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비임금근로자(10만 8천명, 1.6%)는 2011년 3/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비임금근로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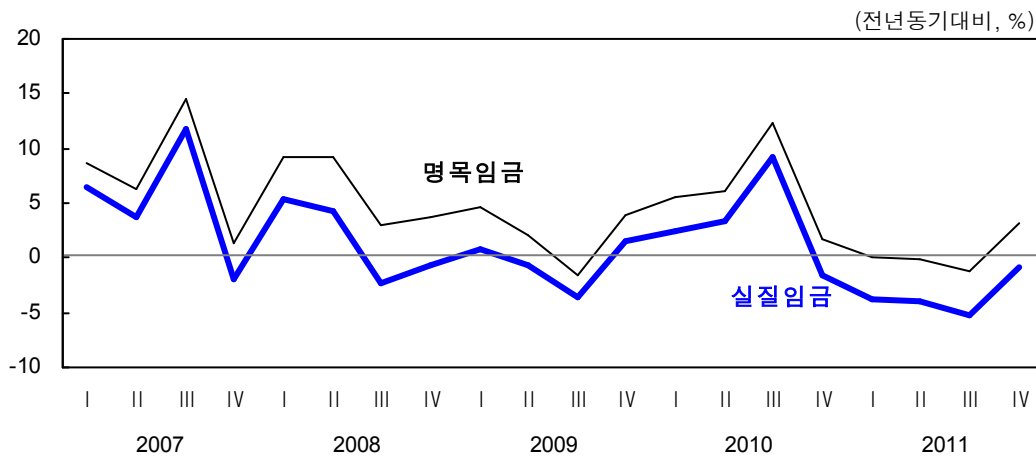
■ 1/4분기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작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시간으로 전년동기(45.1시간)에 비해 0.6시간 감소
-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4만 1천명(1.7%)으로 상승
- 주당 18시간미만의 단시간 취업자는 3/4분기 감소로 전환한 이래 3만 4천명 (-3.1%) 감소한 반면, 주당 18~35시간 취업자는 10만 1천명(4.8%)이 증가

■ 2011년 4/4분기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명목임금은 전분기의 일시적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4/4분기 시간당 명목임금은 상용직(3.1%)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12.0%)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근로자 전체로는 3.5% 상승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상승률(명목·실질)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8. 물가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 1/4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의 상승폭이 축소되며 3.0%로 둔화되었고 근원물가는 2.5%의 상승률을 기록

 - 상품물가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공업제품 가격(5.8% → 4.3%)의 상승세가 완화되어 전분기(5.4%)보다 하락한 4.1%의 상승률을 기록
 - 서비스물가는 3월 중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요금(3.8% → 2.4%)이 인하되면서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2.2%의 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물가가 하락하면서 전분기(3.4%)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된 2.5%의 상승률을 기록
-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월(2.6%)과 유사한 2.5%의 상승률을 기록

 - 상품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며 전월과 동일한 4.1%를 기록
 -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축산물 가격의 하락세도 소폭 축소되면서 전월(3.0%) 보다 높은 4.1%의 상승률을 시현
 - 반면 공업제품은 의약품(1.2% → -3.6%)과 가공식품(7.1% → 6.6%)을 중심으로 전월(4.0%)보다 소폭 낮아진 3.8%의 상승률을 기록
 - 서비스물가는 대부분의 항목이 전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1.3%의 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1.9%)과 유사한 1.8%의 상승률을 기록

품목별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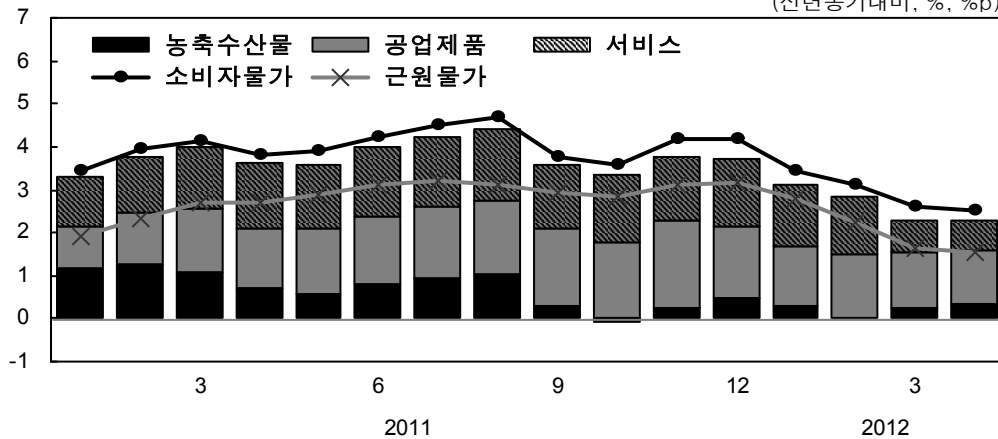
	가중치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물가	1000.0	3.0	4.0	3.8 (1.9)	4.0 (0.8)	4.3 (1.1)	4.0 (0.2)	3.0 (1.0)	3.4 (0.5)	3.1 (0.4)	2.6 (-0.1)	2.5 (0.0)
상 품	443.6	4.6	5.7	5.7 (2.8)	5.4 (0.6)	6.1 (1.8)	5.4 (0.2)	4.1 (1.5)	4.4 (0.6)	3.9 (0.6)	4.1 (0.6)	4.1 (-0.3)
농축수산물	77.6	10.0	9.2	16.0 (4.7)	9.1 (-3.5)	9.5 (5.1)	2.8 (-3.2)	2.3 (4.3)	3.6 (2.7)	0.3 (-0.2)	3.0 (1.6)	4.1 (-0.8)
공업 제품	317.7	3.2	4.9	3.8 (2.5)	4.6 (1.4)	5.5 (1.1)	5.8 (0.7)	4.3 (1.0)	4.3 (0.1)	4.7 (0.8)	4.0 (0.4)	3.8 (-0.1)
서 비 스	556.4	1.9	2.7	2.3 (1.1)	2.8 (0.9)	2.9 (0.6)	2.7 (0.1)	2.2 (0.6)	2.7 (0.4)	2.5 (0.3)	1.4 (-0.7)	1.3 (0.2)
집 세	91.8	1.9	4.0	2.7 (1.0)	3.7 (1.5)	4.4 (1.2)	5.0 (1.2)	5.0 (1.0)	5.0 (0.3)	5.0 (0.3)	4.9 (0.5)	4.8 (0.4)
공공서비스	143.7	1.2	-0.4	0.1 (0.0)	-0.4 (-0.6)	-0.5 (0.1)	-1.0 (-0.5)	-0.2 (0.8)	-0.7 (0.5)	-0.6 (0.1)	0.7 (0.4)	0.6 (-0.1)
개인서비스	320.9	2.2	3.7	3.2 (1.6)	3.9 (1.4)	3.9 (0.6)	3.8 (0.2)	2.4 (0.3)	3.4 (0.4)	3.0 (0.4)	0.7 (-1.4)	0.7 (0.3)
근원물가	891.6	1.8	3.2	2.6 (1.5)	3.2 (1.0)	3.4 (0.7)	3.4 (0.2)	2.5 (0.6)	3.2 (0.3)	2.5 (0.1)	1.9 (-0.4)	1.8 (0.1)
생활물가	560.3	3.3	4.4	4.4 (2.4)	4.2 (0.5)	4.7 (1.2)	4.1 (0.0)	2.7 (1.0)	3.3 (0.6)	2.8 (0.5)	2.0 (-0.4)	2.0 (-0.1)

주: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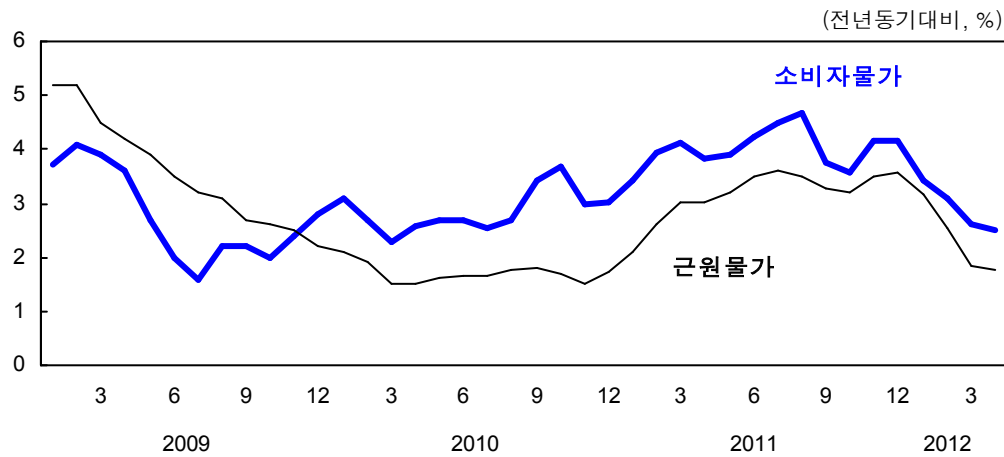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

(전년동기대비, %, %p)



자료: 통계청.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 1/4분기 중 수출물가는 석유화학및고무제품 가격의 둔화세가 지속되며 전분기(5.6%)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2.2%의 상승률을 기록

● 석유화학및고무제품은 최근 석유제품 및 기초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8.1%p 하락한 5.9%의 상승률을 기록

● 계약통화표시 수출물가도 전분기(4.4%)보다 낮은 1.3%의 상승률을 기록

— 원화기준 수출물가(전년동기대비, %): ('11.2/4) 3.4 → (3/4) 2.1 → (4/4) 5.6 → ('12.1/4) 2.2

—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전년동기대비, %): ('11.2/4) 9.7 → (3/4) 10.5 → (4/4) 4.4 → ('12.1/4) 1.3

— 원/달러 환율(전년동기대비, %): ('11.2/4) -6.8 → (3/4) -8.6 → (4/4) 1.1 → ('12.1/4) 1.0

■ 1/4분기 중 수입물가는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분기(11.5%)보다 6%p 하락한 5.5%의 상승률을 기록

● 원자재가격은 연료광물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분기의 24.7%에서 13.1%로 둔화

— 원자재(전년동기대비, %): ('11.2/4) 29.9 → (3/4) 25.5 → (4/4) 24.7 → ('12.1/4)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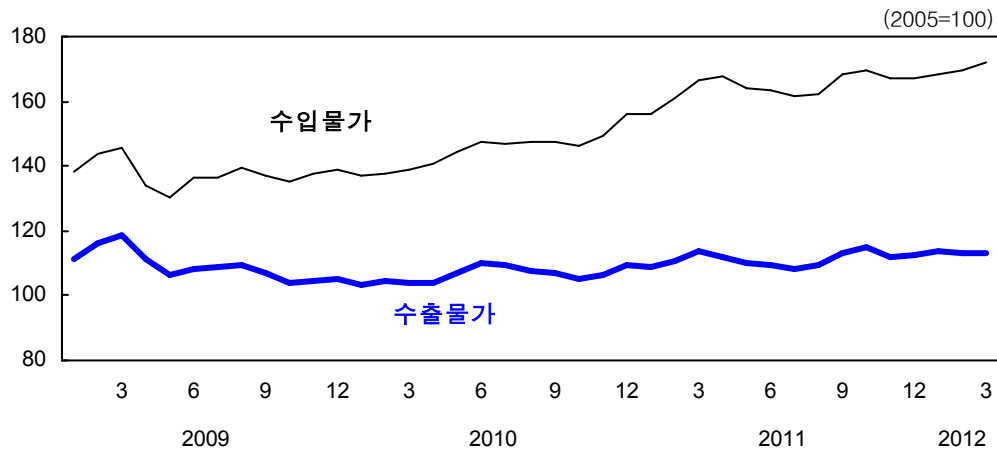
— 두바이유(전년동기대비, %): ('11.2/4) 41.3 → (3/4) 44.6 → (4/4) 25.4 → ('12.1/4) 15.6

— 로이터지수(분기말): ('11.2/4) 3,161 → (3/4) 2,811 → (4/4) 2,704 → ('12.1/4) 2,978

📊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도 전분기(10.1%)보다 낮은 4.4%의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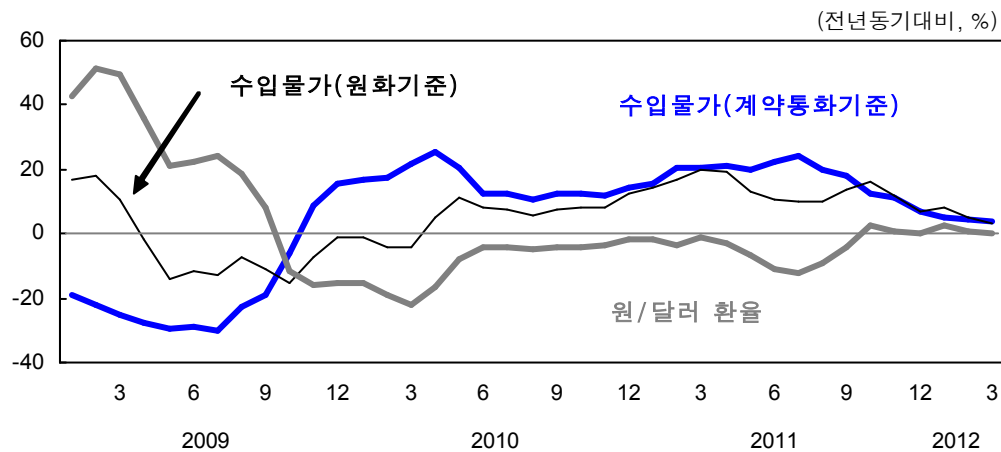
- 원화기준 수입물가(전년동기대비, %): ('11.2/4) 14.2 → (3/4) 11.3 → (4/4) 11.5 → ('12.1/4) 5.5
-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전년동기대비, %): ('11.2/4) 21.2 → (3/4) 20.6 → (4/4) 10.1 → ('12.1/4) 4.4

수출입물가 지수



자료: 한국은행.

환율 및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전분기(5.0%)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3.2%의 상승률을 기록

● 농림수산물물가는 축산물 가격(11.1% → -15.2%)의 큰 폭 하락에 기인하여 -5.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분기(-2.1%) 보다 하락세가 확대

● 공산품물가는 코크스및석유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분기보다 2.7%p 낮아진 4.0%의 상승률을 기록

수출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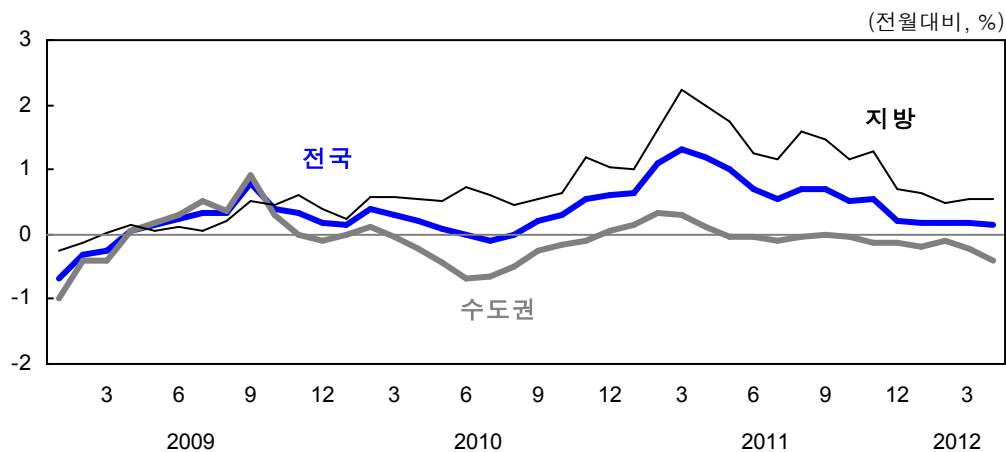
	가중치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수출물가	1000.0	-0.2	-2.6	4.4	6.6 (3.6)	3.4 (-0.4)	2.1 (-0.3)	5.6 (2.6)	2.2 (0.2)	4.6 (1.1)	2.1 (-0.6)	0.0 (0.5)
계약통화기준	1000.0	-14.4	7.5	8.3	8.7 (4.8)	9.7 (2.7)	10.5 (-0.4)	4.4 (-2.6)	1.3 (1.7)	2.3 (1.3)	1.6 (1.3)	0.1 (0.5)
수입물가	1000.0	-4.1	5.3	13.4	16.9 (7.1)	14.2 (2.3)	11.3 (-0.6)	11.5 (2.4)	5.5 (1.3)	7.9 (0.8)	5.2 (0.5)	3.5 (1.7)
원자재	278.2	-16.9	16.7	27.6	30.9 (13.6)	29.9 (7.3)	25.5 (-1.0)	24.7 (3.4)	13.1 (3.1)	16.8 (0.8)	12.5 (1.8)	10.4 (3.8)
계약통화기준	1000.0	-18.8	15.5	17.6	18.9 (8.4)	21.2 (5.5)	20.6 (-0.9)	10.1 (-2.9)	4.4 (2.9)	5.3 (1.0)	4.6 (2.6)	3.5 (1.9)
생산자물가	1000.0	-0.2	3.8	6.1	6.7 (3.2)	6.4 (1.2)	6.2 (0.4)	5.0 (0.1)	3.2 (1.5)	3.4 (0.7)	3.5 (0.7)	2.8 (0.6)
농림수산물	43.6	8.7	9.0	7.4	21.0 (11.1)	6.7 (-10.9)	5.1 (2.8)	-2.1 (-3.8)	-5.2 (7.6)	-8.0 (0.5)	-4.4 (4.3)	-3.1 (1.4)
공 산 품	644.8	-1.6	4.2	7.7	7.9 (3.8)	8.2 (2.4)	8.1 (0.2)	6.7 (0.2)	4.0 (1.2)	4.7 (0.7)	4.3 (0.7)	3.1 (0.7)
서 비 스	264.4	0.7	1.7	1.8	1.9 (0.8)	2.2 (0.6)	1.9 (0.0)	1.3 (-0.2)	1.3 (0.9)	1.3 (0.9)	1.3 (0.0)	1.3 (0.2)

주: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방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유사한 상승세를 지속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전기대비, %): ('11.2/4) 2.9 → (3/4) 2.0 → (4/4) 1.3 → ('12.1/4) 0.6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전기대비, %): ('11.2/4) 0.0 → (3/4) -0.1 → (4/4) -0.3 → ('12.1/4) -0.5
 -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전기대비, %): ('11.2/4) 5.1 → (3/4) 4.3 → (4/4) 3.2 → ('12.1/4) 1.7

아파트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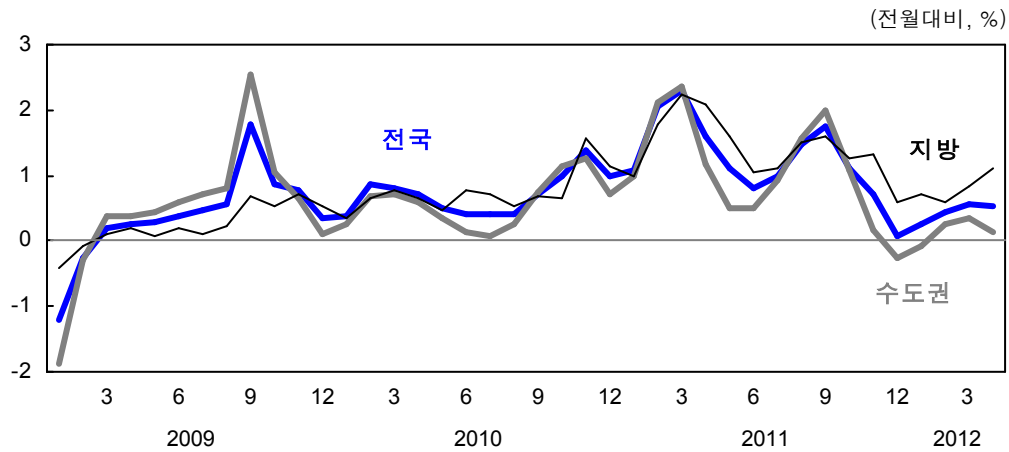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1/4분기 중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 계절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달로 인한 수요 감소에 일부 기인하여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전기대비, %): ('11.2/4) 3.6 → (3/4) 4.3 → (4/4) 1.9 → ('12.1/4) 1.3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전기대비, %): ('11.2/4) 2.2 → (3/4) 4.6 → (4/4) 1.0 → ('12.1/4) 0.5
 -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전기대비, %): ('11.2/4) 4.8 → (3/4) 4.3 → (4/4) 3.2 → ('12.1/4) 2.2

아파트 전세가격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 전세가격의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주택가격

(전기대비 증가율,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주택 매매	1.5	1.9	2.2	2.0	1.5	1.0	0.5	0.2	0.2	0.1
아파트	1.6	2.5	3.1	2.9	2.0	1.3	0.6	0.2	0.2	0.1
서울 아파트 (강남지역)	2.6 (3.9)	-2.2 (-1.8)	0.6 (0.8)	-0.2 (-0.3)	-0.4 (-0.4)	-0.5 (-0.7)	-0.5 (-0.7)	-0.1 (-0.2)	-0.2 (-0.3)	-0.4 (-0.6)
주택 전세	3.4	7.1	4.2	2.7	3.3	1.5	1.1	0.4	0.5	0.4
아파트 (강남지역)	4.5 (10.4)	8.8 (8.8)	5.4 (4.6)	3.6 (1.5)	4.3 (5.0)	1.9 (0.8)	1.3 (0.3)	0.4 (0.2)	0.6 (0.2)	0.5 (-0.1)
단독주택	1.0	3.1	1.7	1.0	1.3	0.8	0.6	0.2	0.2	0.2
연립주택	2.5	6.0	2.9	1.6	2.2	0.9	1.1	0.3	0.4	0.2

주: 1) 연간 수치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2) 분기 수치는 전분기말대비 증가율.
 3) 월별 수치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국민은행.

□ 1/4분기 중 지가는 전분기와 유사한 0.3%의 상승률을 기록

● 서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분기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

지가

(전기대비 증가율,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전 국	1.0	1.2	0.3	0.3	0.3	0.3	0.3	0.1	0.1
서 울	0.5	1.0	0.4	0.3	0.2	0.3	0.2	0.0	0.1
경 기	1.5	1.5	0.3	0.4	0.4	0.4	0.3	0.1	0.1
인 천	1.4	0.7	0.2	0.2	0.2	0.2	0.2	0.0	0.1
충 남	1.2	1.8	0.1	0.2	0.2	0.2	0.3	0.1	0.1
서울 용산구	0.8	0.9	0.4	0.2	0.1	0.2	0.2	0.0	0.1
성동구	0.7	1.0	0.4	0.3	0.2	0.3	0.2	0.0	0.1
종로구	0.5	0.8	0.3	0.2	0.1	0.2	0.2	0.0	0.1
강남구	0.2	1.1	0.5	0.3	0.2	0.3	0.3	0.1	0.2
송파구	0.6	1.2	0.5	0.3	0.2	0.3	0.2	0.0	0.1
서초구	0.5	1.2	0.5	0.3	0.2	0.3	0.2	0.0	0.1
경기 파주시	0.9	0.9	0.1	0.2	0.5	0.2	0.2	0.1	0.1
성남 분당	1.1	1.2	0.2	0.3	0.3	0.3	0.4	0.1	0.1

주: 1) 연간 수치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2) 분기 수치는 전분기말대비 증가율.

3) 월별 수치는 전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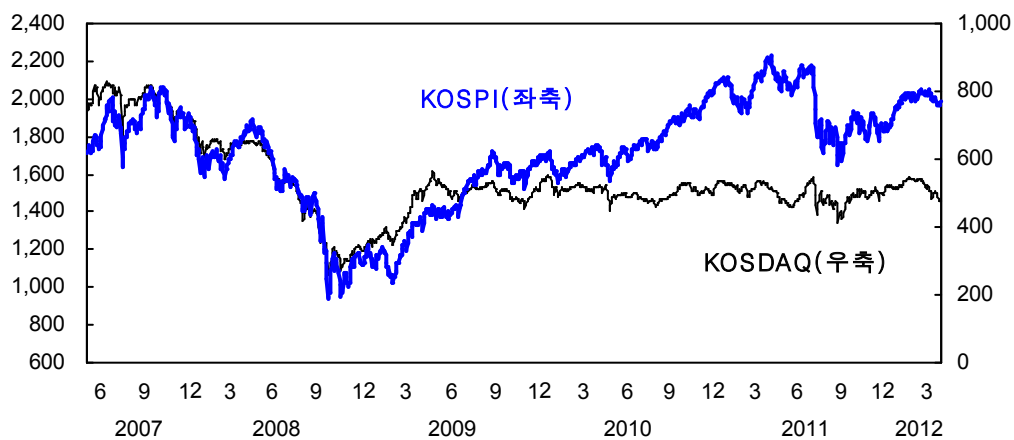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9.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유럽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 1/4분기 중 주가는 대외불확실성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 위기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소폭 하락하여 4월말 현재 1,981.9를 기록

일별 KOSPI · KOSDAQ 지수



자료: KRX.

증시주변 자금동향

		2010		2011				2012	
		3/4	4/4	1/4	2/4	3/4	4/4	1/4	4월
거래대금		348	417	417	477	451	358	365	99.3
투자자예탁금		13.8	13.7	15.6	15.8	19.1	17.7	18.2	17.7
외국인순매수	거래소	6,644	9,225	-2,045	-144	-4,520	-1,433	10,884	-24
	코스닥	213	596	207	184	-865	-1,022	10	21

주: 1) 거래대금(코스닥 시장은 제외), 투자자 예탁금은 말잔,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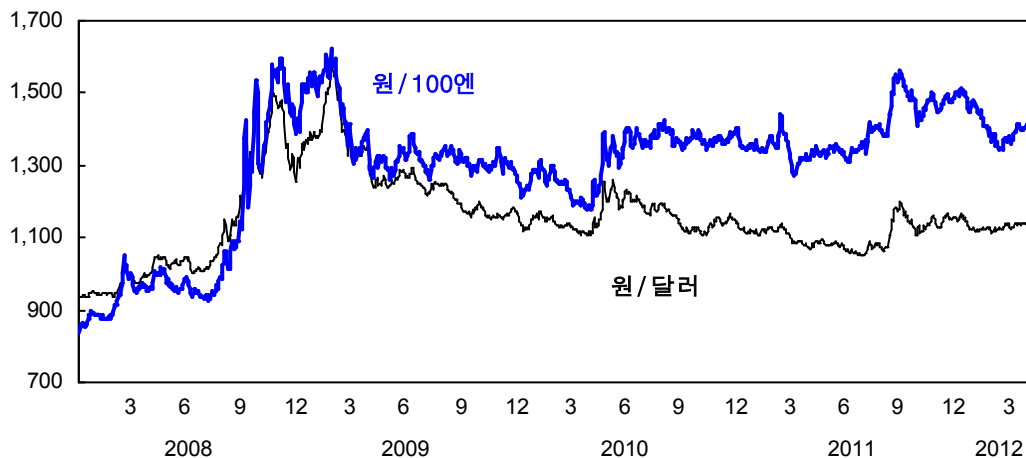
2)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누계,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원/달러 환율은 대북 리스크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

- 금년 1/4분기 중 달러 매도세 확대와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소폭 하락하여 4월말 현재 1,134.2원을 기록

일별 환율



자료: 한국은행.

■ 금리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하는 모습

- 금리는 유럽재정위기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외국인 국채순매수 등의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
 - 국고채 수익률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4월말 현재 3.45%를 기록

- 회사채 수익률(AA-)은 국고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작년 4/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1/4분기말 상승하여 4월말 현재 4.14%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1/4분기 점차 확대되는 모습
- AA-등급 회사채와 BBB-등급 회사채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4월말 현재 565bp를 기록
 - 국고채와 AA-등급 회사채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4월말 현재 69bp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

금 리

(기말기준, %)

	2010				2011				2012	
	1/4	2/4	3/4	4/4	1/4	2/4	3/4	4/4	1/4	4월
Call(1일)	2.00	2.03	2.28	2.49	2.99	3.28	3.28	3.27	3.25	3.26
CP(91일물)	2.90	2.71	2.79	3.01	3.56	3.70	3.68	3.68	3.66	3.58
국고채(3년)	3.89	3.86	3.32	3.38	3.73	3.76	3.55	3.34	3.55	3.45
회사채(3년,AA-)	4.89	4.77	4.26	4.27	4.51	4.49	4.36	4.21	4.35	4.14
회사채(3년,BBB-)	10.93	10.72	10.19	10.26	10.57	10.49	10.30	10.01	10.06	9.79
장단기 Spread ¹⁾	1.89	1.83	1.04	0.89	0.74	0.48	0.27	0.07	0.30	0.19
신용 Spread ²⁾	1.00	0.91	0.94	0.89	0.78	0.73	0.81	0.87	0.80	0.69
신용 Spread ³⁾	6.04	5.95	5.93	5.99	6.06	6.00	5.94	5.80	5.71	5.65

주: 1) 국고채-Call.

2) 회사채(AA-)-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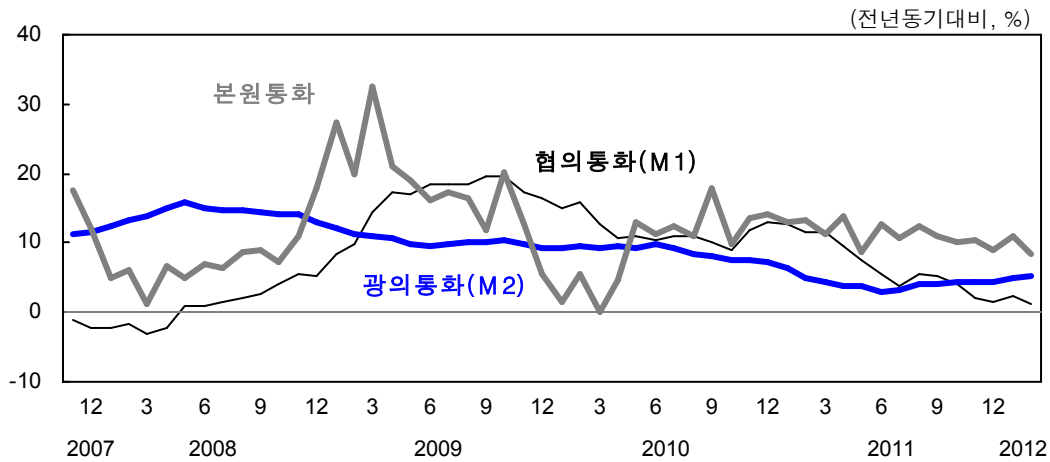
3) 회사채(BBB-)-회사채(AA-).

자료: 한국은행.

■ 협의통화(M1)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증가로 전환

- 협의통화(M1)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금년 2월말 현재 1.1% 증가를 기록
 - M1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0.12월) 12.9 → ('11.3월) 11.6 → (6월) 5.4 → (9월) 5.1 → (12월) 1.6 → ('12.1월) 2.3 → (2월) 1.1
-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작년 2/4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증가로 전환하여, 2월말 현재 5.3%를 기록
 -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0.12월) 7.2 → ('11.3월) 4.3 → (6월) 3.0 → (9월) 4.2 → (12월) 4.4 → ('12.1월) 4.8 → (2월) 5.3

통화지표 증가율(평잔)



자료: 한국은행.

1/4분기 중 금융기관 수신은 자산운용사 수신의 증가에 기인하여 증가규모 확대

은행수신은 정기예금의 증가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1/4분기 중 증가세 지속

- 정기예금은 일부은행의 예금 유치노력 약화 및 일부기관의 대규모 자금인출 등으로 감소한 반면, 수시입출식 예금은 전분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0		2011					2012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³⁾
은행수신 ¹⁾	36.8	3.1	58.9	5.0	18.8	17.8	5.0	14.0	-10.0	8.8	15.2
수시입출식예금 ²⁾	25.8	23.7	13.3	-3.7	-1.0	-4.1	-3.7	4.9	-5.2	-0.8	10.9
정기예금	95.7	-1.8	64.1	23.2	18.4	23.6	23.2	14.4	-2.3	11.9	4.8
CD+RP+표지어음	-68.9	-14.1	-9.7	-4.4	-0.7	-0.1	-4.4	0.7	-1.3	2.1	-0.2
은행채	-12.2	-2.9	-8.5	-8.2	1.9	-2.4	-8.2	-5.7	-1.0	-4.6	-0.1
자산운용사	-16.7	-11.2	-16.6	-13.1	-1.0	8.1	-13.1	5.0	5.7	-4.7	4.0
MMF	-4.8	-7.4	-13.8	-6.4	-6.7	2.5	-6.4	9.7	7.8	-3.0	4.9
주식형	-25.2	-6.2	3.2	0.4	0.1	2.4	0.4	-6.4	-1.7	-2.2	-2.5
채권형	6.5	0.0	-7.7	-7.2	2.6	-1.1	-7.2	1.5	0.2	-0.5	1.9
혼합형	1.3	-0.5	-2.6	-1.7	0.5	0.6	-1.7	-0.3	0.0	0.2	-0.5
신종펀드	5.5	3.0	4.2	1.8	2.4	3.7	1.8	0.6	-0.6	0.9	0.3

주: 1) 예금은행(산업은행 포함).

2)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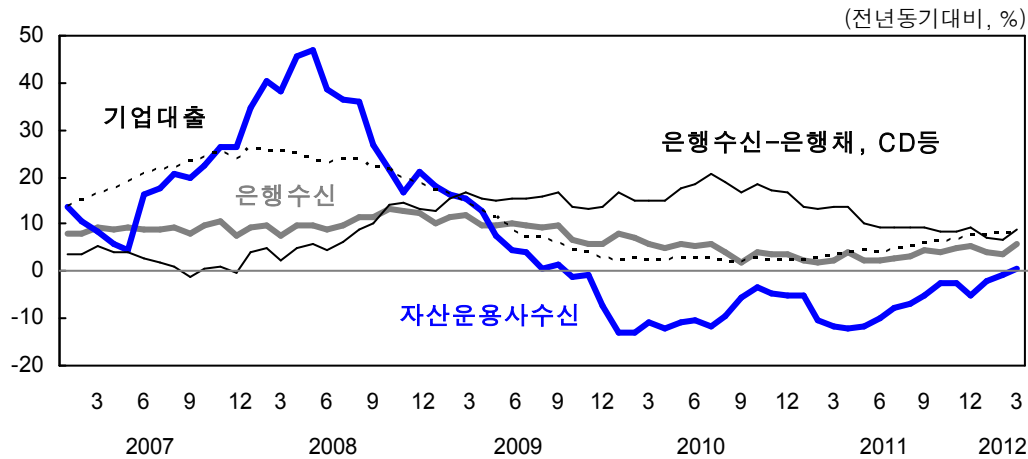
3) 3월 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를 중심으로 1/4분기 중 증가로 전환

- MMF가 전년말 유출된 법인자금 및 국고자금 등의 유입 등으로 큰 폭으로 전환

은행 여·수신 증가율 및 투신사수신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기업대출은 1/4분기 중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가계대출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 확대

-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증가, 일부기업의 M&A 자금 대출 규모 등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증가폭 확대 (5.0조 → 10.3조)
- 중소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 수요,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증가하였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가폭 축소 (7.7조 → 4.8조)

● 가계대출은 작년 4/4분기 이후 감소로 전환

- 주택담보대출(4.7조 → 0.9조)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고, 마이너스통장대출 (-1.7조 → -3.5조)은 감소세가 확대
- 한편, 모기지론양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폭 축소(5.8조 → 2.4조)

● 대기업의 은행대출 증가에 따라 주식 및 회사채 발행규모는 대폭 축소

은행여신 및 기업금융 동향

(전기대비 증감액, 조원)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은행대출	39.1 (6.7)	15.6 (4.4)	19.2 (5.0)	19.3 (6.0)	8.9 (6.7)	12.4 (6.2)	4.1 (6.7)	5.5 (6.5)	2.8 (6.2)
대 기업	27.8 (31.8)	5.0 (14.9)	7.2 (19.8)	9.2 (24.6)	6.4 (31.8)	10.3 (35.9)	4.9 (34.1)	4.3 (35.6)	1.1 (35.9)
중소기업	11.3 (2.6)	7.7 (0.8)	2.9 (1.2)	4.6 (1.9)	-3.9 (2.6)	4.8 (1.9)	2.0 (2.0)	0.8 (2.0)	2.1 (1.9)
가 계	24.0 (5.7)	3.0 (6.1)	9.1 (6.1)	5.4 (6.4)	6.4 (5.7)	-2.8 (4.2)	-2.8 (5.3)	0.5 (4.9)	-0.4 (4.2)
CP순발행	3.8	1.2	-2.2	6.2	-1.5	6.6	5.4	-0.0	1.2
회사채순발행 ¹⁾	2.0	4.1	5.1	4.8	5.6	2.7	0.9	1.8	0.0
주식발행	12.9	2.9	3.7	0.6	5.7	0.9	0.3	0.3	0.3

주: 1) 일반기업 발행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대출잔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가계신용은 작년 4/4분기 중 22.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27.8조원)보다 증가 규모 감소 (작년 12월말 잔액은 912.9조원)

● 4/4분기 중 가계대출은 19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23.4조원)보다 증가폭 감소

-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대출이 5.6조원으로 전년동기(6.3조원)보다 감소하였고, 기타대출의 증가폭 역시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 감소(8.8조원 → 6.2조원)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주택대출이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이 전년 동분기보다 감소하여 증가폭 축소(8.7조원 → 7.9조원)
-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폭 축소(5.8조원 → 5.0조원)

●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를 중심으로 4/4분기 중 3.2조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은 감소(4.4조원 → 3.2조원)

가계신용 동향

(기간 중 증감액, 조원)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가계신용	67.3	16.3	27.8	10.5	18.9	14.3	22.3
가계대출	59.6	14.6	23.4	10.7	17.8	13.1	19.0
예금은행	22.0	3.7	8.8	3.7	9.2	5.4	6.2
주택대출	15.9	2.8	6.3	4.5	5.1	4.0	5.6
(주택담보대출)	20.3	3.6	7.7	5.4	5.4	4.3	6.5
기타대출	6.0	1.0	2.5	-0.9	4.1	1.3	0.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3.2	6.5	8.7	2.7	6.4	5.4	7.9
주택대출	8.4	1.8	2.9	1.8	2.5	2.6	3.0
(주택담보대출)	8.5	1.8	2.9	1.9	2.5	2.6	3.0
기타대출	14.8	4.7	5.9	0.9	3.9	2.8	4.9
기타금융기관	14.5	4.4	5.8	4.4	2.2	2.3	5.0
판매신용	7.7	1.8	4.4	-0.3	1.1	1.3	3.2

자료: 한국은행.

-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의 금융기관별 비중은 2010년말대비 예금은행(54.1% → 53.1%)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의 비중은 상승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6% → 21.8%), 기타금융기관(25.3% → 25.1%)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

	2010		2011			
	3/4	4/4	1/4	2/4	3/4	4/4
예금취급기관	74.7	74.7	74.5	74.8	74.9	74.9
예금은행	54.6	54.1	53.8	53.8	53.6	53.1
은행예금취급기관	20.1	20.6	20.7	21.0	21.3	21.8
상호저축은행	0.9	1.0	1.0	1.1	1.1	1.2
신용협동기구	19.0	19.4	19.5	19.8	20.0	20.4
우체국 등	0.2	0.2	0.2	0.2	0.2	0.2
기타금융기관	25.3	25.3	25.5	25.2	25.1	25.1
보험기관	8.7	8.6	8.5	8.4	8.6	8.7
여신전문기관	4.5	4.6	4.6	4.6	4.6	4.5
기타 ¹⁾	12.1	12.2	12.4	12.2	11.9	11.9

주: 1) 연금기금,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한국장학재단 등.

자료: 한국은행.

10. 재 정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국세수입 호조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이어갈 전망

- 2011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수입 호조의 영향으로 18.6조원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16.7조원 흑자)보다 흑자폭이 소폭 증가
- 2011년 결산상 통합재정 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292.3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273.7조원을 기록
 - － 통합재정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2011년 예산(284.8조원)대비로는 7.5조원 증가를 기록
 - －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는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낮게 시현됨에 따라 2011년 예산(279.5조원)대비로는 5.8조원 감소를 기록
 -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13.3조원이 개선된 18.6조원 흑자를 시현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 적자(GDP 대비 -1.1%)를 시현하며 작년(13.0조원 적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통합재정수지¹⁾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예산	결산
수입 ²⁾	250.7	255.3	270.9	284.8	292.3
(전년대비 증가율)	(2.9)	(6.1)	(6.1)	(5.1)	(7.9)
지출 및 순융자	238.8	272.9	254.2	279.5	273.7
(전년대비 증가율)	(13.8)	(14.3)	(-6.8)	(10.0)	(7.7)
통합재정수지	11.9	-17.6	16.7	5.3	18.6
[GDP 대비]	[1.2]	[-1.7]	[1.4]	[0.4]	[1.5]
관리대상수지	-15.6	-43.2	-13.0	-25.0	-13.5
[GDP 대비]	[-1.5]	[-4.1]	[-1.1]	[-2.0]	[-1.1]

주: 1) 결산기준.

2) 용자수입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 2011년 국세수입은 192.4조원으로 전년대비 14.7조원(8.3%)이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로는 4.8조원(2.6%)이 증가

● 2011년 국세수입의 호조세는 2010년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입 여건 개선의 영향이 2011년으로 일부 이연된데 주로 기인

- － 소득세 수입은 자영업자의 소득 상승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와 고용상황 개선 및 성과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8조원 증가한 42.3조원을 기록
- － 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신고분 증가와 법인예금 및 채권발행액 증가에 따른 원천 징수분 증가로 전년대비 7.6조원 증가한 44.9조원을 기록
- －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입액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51.9조원을 기록

● 결산상잉여금 11.6조원 중 2012년 이월액 5.1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5조원(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으로 집계

-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2.0조원, 국가채무 상환에 1.6조원을 지출한 후 잔여 1.5조원을 2012년도 세입으로 이입

국세수입 추이

(조원, %)

구 분 ³⁾	2009		2010		2011		2012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¹⁾	예산안 ²⁾
총국세	164.0	164.5	170.5	177.7	187.6	192.4 (8.3)	205.9 (9.7)
일반회계	157.3	157.9	163.5	170.9	180.8	185.0 (8.2)	197.4 (9.2)
소득세	36.3	34.4	37.2	37.5	40.0	42.3(12.9)	46.0(15.0)
법인세	32.2	35.3	36.9	37.3	41.3	44.9(20.4)	44.5 (7.6)
부가가치세	45.6	47.0	47.0	49.1	52.9	51.9 (5.7)	56.8 (7.3)
특별회계	6.7	6.6	7.0	6.8	6.9	7.4 (9.5)	8.5(23.2)

주: 1) 괄호는 2010년 실적대비 2011년 실적의 증가율.

2) 괄호는 2011년 예산대비 2012년 예산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11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8.5조원 증가한 420.7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34.0%를 기록

● 2011년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5조원 증가한 420.7조원을 기록

－ 2011년 국가채무는 2010년 결산상 국가채무가 약 15조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2011년 예산대비로는 14.8조원이 감소

－ 201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0%로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예산상의 전망치(35.1%)대비로는 1.1%p 감소

－ 2011년 중앙정부 채무는 402.8조원으로 전년대비 29.0조원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17.8조원으로 전년대비 0.6조원 감소

● 2011년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전년대비 14.6조원이 증가한 213.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적자성 채무는 전년대비 13.8조원이 증가한 207.1조원으로 집계

국가채무 추이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¹⁾
				본예산	결산	
국가채무 (C=A+B) [GDP대비]	309.0 [30.2]	359.6 [33.8]	392.2 [33.4]	435.5 [35.1]	420.7 [34.0]	445.9 [33.3]
금융성 채무(A) [GDP대비]	176.4 [17.2]	190.9 [17.9]	199.0 [17.0]	215.4 [17.4]	213.6 [17.3]	225.0 [16.8]
－ 외평기금	94.0	104.9	120.6	138.4	136.7	155.7
－ 국민주택채권	45.2	48.5	49.3	48.2	48.9	48.5
－ 기타	37.2	37.5	29.1	28.8	28.0	20.8
적자성 채무(B) [GDP대비]	132.6 [13.5]	168.8 [15.9]	193.3 [16.5]	220.0 [17.7]	207.1 [16.7]	221.0 [16.5]
－ 일반회계 적자국채	63.0	97.0	119.7	146.7	135.3	149.2
－ 공적자금 국채전환	49.2	49.5	47.0	47.0	45.7	45.7
－ 지방정부 순채무	11.0	13.5	18.4	18.2	17.8	18.2
－ 기타	9.4	8.8	8.2	8.1	8.3	7.9

주: 1) 2012년은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012년 예산 규모는 총수입 343.5조원, 총지출 325.4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1조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총수입은 금년에 전년(314.4조원)대비 9.3%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309.1조원) 대비 5.3% 증가하여,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4.0%p 높게 설정

— 2012년 총수입은 예산수입 234.0조원(전년대비 10.3%)과 기금수입 109.5조원(전년대비 7.1%)으로 구성

— 2012년 총지출은 예산지출 228.1조원(전년대비 5.4%)과 기금지출 97.3조원(전년대비 5.0%)으로 구성

●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에 작년 예산(5.3조원 흑자)대비 12.8조원이 개선된 18.1조원을 기록할 전망

— 2012년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예산(-25.0조원 적자)대비 10.7조원이 개선된 -14.3조원 (GDP 대비 1.1%)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2년 국가채무는 445.9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3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재정규모 추이(예산기준)

(조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총수입 ¹⁾ (전년대비 증가율) ²⁾	291.0 (6.1) <6.1>	279.8 (2.0) <2.1>	290.8 (-0.1) <3.9>	314.4 (8.1)	343.5 (9.3)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²⁾	284.5 (10.6) <8.3>	301.8 (17.3) <14.8>	292.8 (2.9) <-3.0>	309.1 (5.5)	325.4 (5.3)
통합재정수지	6.4	-22.0	-2.0	5.3	18.1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24.8 [-2.4]	-51.0 [-5.0]	-30.1 [-2.7]	-25.0 [-2.0]	-14.3 [-1.1]
국가채무 ³⁾ [GDP대비, %]	359.6 [33.8]		407.2 [36.1]	435.5 [35.1]	445.9 [33.3]

주: 1) 용자수입 포함.

2) ()안은 직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안은 직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

3) 2009년은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재정집행 규모는 2012년 1/4분기까지 89.4조원(집행률 32.3%)을 기록하여 당초 계획인 30.0% 대비 2.3%p를 초과 집행
- 정부는 금년상반기 중 재정집행 관리규모 276.8조원의 60%에 해당하는 166.1조원을 배정함으로써 전년대비 조기집행 기조를 확대
- 한편, 작년 재정집행 실적은 집행계획 272.1조원의 97.1%인 264.3조원을 기록

재정집행 실적 추이 (누적 기준)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¹⁾
1/4분기	실 적	50.0	83.7	84.1	78.3	89.4
	재정집행률	22.2	30.7	31.0	28.8	32.3
2/4분기	실 적	109.0	171.5	165.4	154.5	166.1
	재정집행률	48.5	62.9	61.0	56.8	60.0
3/4분기	실 적	155.5	228.8	206.2	201.5	221.1
	재정집행률	69.2	83.9	76.0	74.0	79.9
4/4분기	실 적	215.4	273.1	258.0	264.3	276.8
	재정집행률	95.8	100.1	95.1	97.1	100.0

주: 재정집행률은 (실적/재정집행 관리규모)×100.

1) 2012년 2/4분기 이후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계획상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 공기업 경영실적은 작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37.5조원 증가한 328.4조원을 기록
- 2011년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0.5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력공사의 대규모 손실에 기인
 - 전력공사가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낮은 원가보상률(87.4%)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말 현재 공기업 자산(496.4조원)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반면 공기업 부채(328.4조원)는 전년대비 12.9% 증가하여,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
 - 공기업 부채 증가는 주로 보금자리사업·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과 발전소 건설, 해외 자원개발 등 국내외 시설투자 확대에 기인

주요 공기업 손익현황

(단위: 십억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토지주택공사	13,161	15,260	1,059	1,292	510	791
전력공사	39,507	43,532	2,260	-685	-69	-3,293
도로공사	7,027	5,693	1,055	1,064	66	103
가스공사	22,741	28,494	970	1,018	275	175
석유공사	7,168	8,948	578	985	6	-153
철도공사	4,545	4,632	1,016	891	573	451
수자원공사	6,399	6,326	264	597	148	293
전체 공기업	115,017	128,587	8,530	6,900	2,335	-540

주: 2011 회계 연도 공기업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자 산			부 채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토지주택공사	147.9	158.5	7.2	121.5	130.6	7.4
전력공사	129.5	136.5	5.4	72.2	82.7	14.4
도로공사	48.0	49.3	2.7	23.7	24.6	3.6
가스공사	30.0	36.0	19.9	22.3	28.0	25.4
석유공사	26.0	31.6	21.2	15.9	20.8	31.1
철도공사	21.0	22.2	5.4	12.6	13.5	6.6
수자원공사	18.6	23.4	25.7	8.1	12.6	55.6
전체 공기업	457.8	496.4	8.4	290.9	328.4	12.9

주: 2011 회계 연도 공기업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II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

1. 개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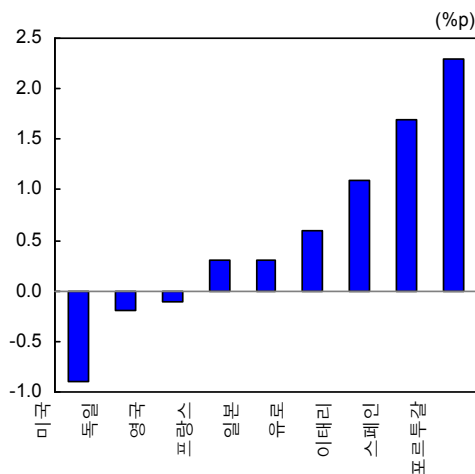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부진 등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위험은 상존하지만, 일부 선진국의 경제지표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은 점차 개선

■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실물경기 위축 및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지표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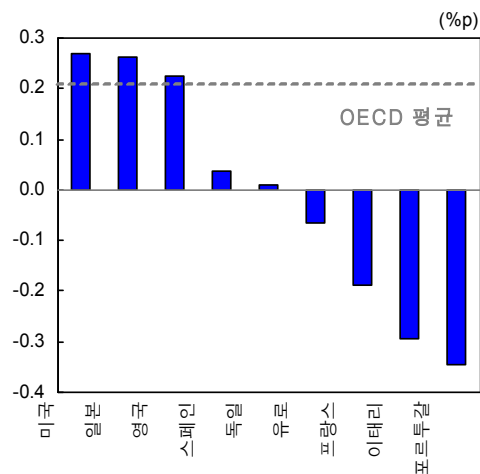
● 선진국의 경우 긴축재정 등으로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소비와 고용여건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

- － 작년 4/4분기 이후 유로지역의 실물경기는 생산이 둔화되고 가계 소비도 크게 위축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지표도 빠르게 악화
- － 유로지역의 주요 구제금융 조치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각국의 선행지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고용 증가세도 유지
- － 다만, 재정위기 국가들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은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이며, 주요 선진국 주택 부문의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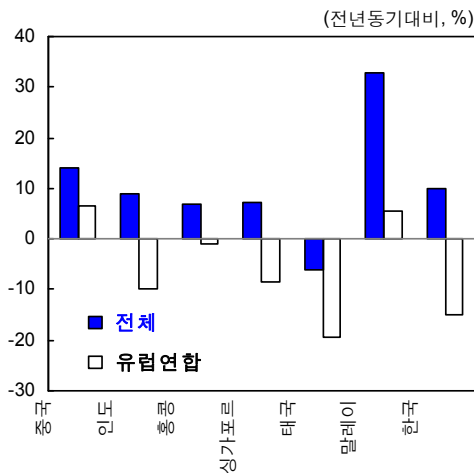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선행지수 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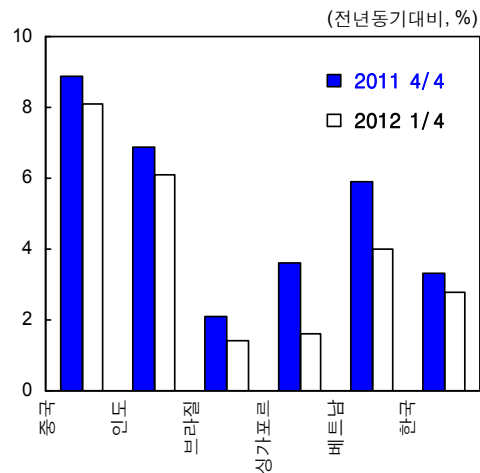
주: 실업률과 선행지수 증가율은 각각 작년 9월과 12월 대비 변화 폭.
자료: 블룸버그, Eurostat, OECD.

-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주요 내수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둔화로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가계소비와 기업 활동도 위축되면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
 - 급격한 실물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긴축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 신흥시장국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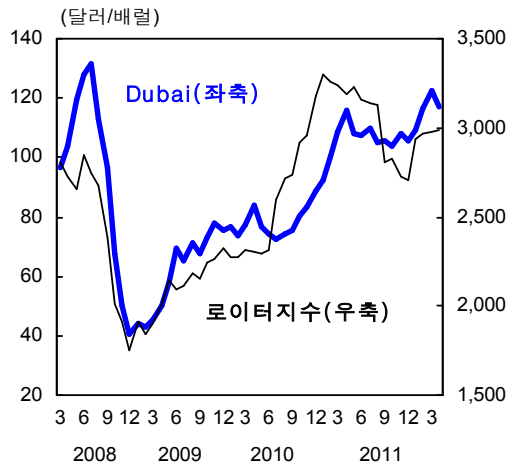
주요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률



주: 1)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기준, 2) 인도와 브라질의 성장률은 작년 3/4분기와 4/4분기 기준.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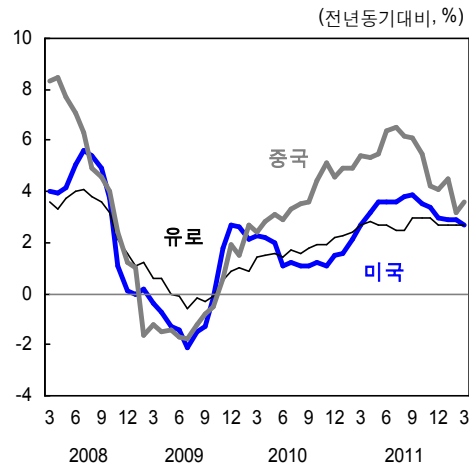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제원유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당초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강화되면서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상승
 - 4월 이후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일부 원자재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근원물가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일부 신흥시장국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유가 및 원자재가격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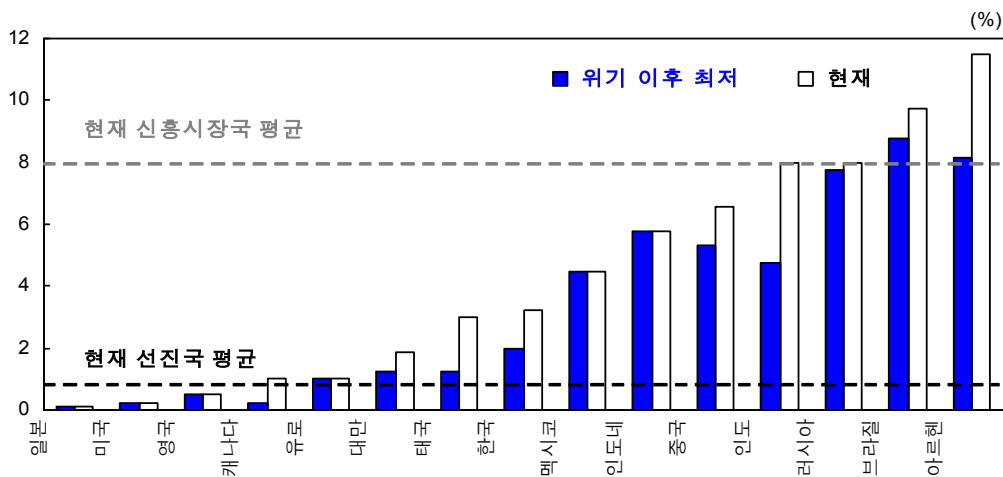
주요국의 물가



● 한편,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약화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긴축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

- 거시정책적 대응 여력이 있는 신흥시장국들을 중심으로 해외수요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유로지역의 경우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전망도 약화됨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주요국의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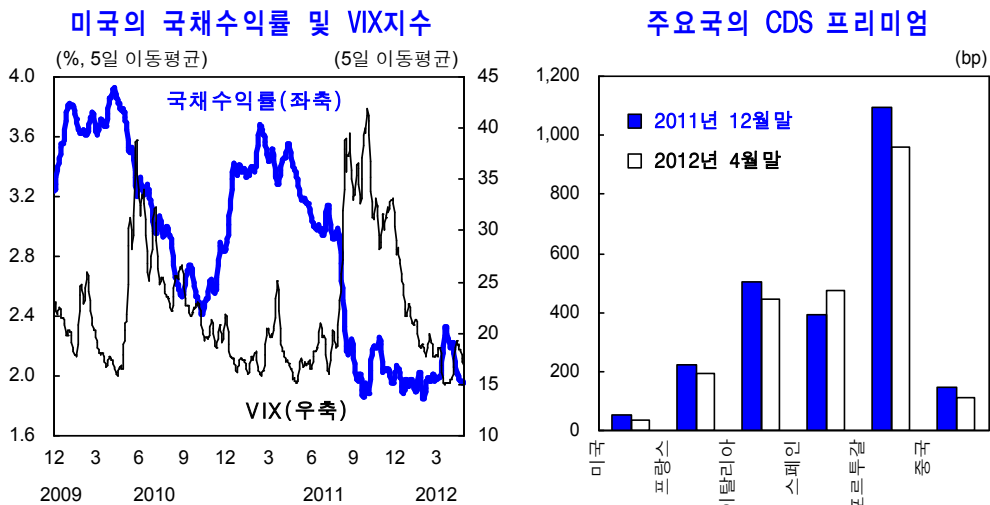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국제금융센터.

■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구제금융 조치 이후 유럽 재정위기도 완화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

● 작년 하반기 이후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크게 확대

— 주요 국가들의 재정긴축 기조가 지속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까지 제기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장기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신흥시장국의 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표들도 크게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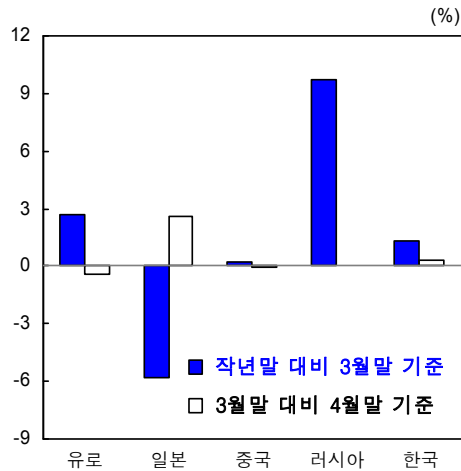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블룸버그.

● 금년 들어 일부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주요 구제금융 조치와 함께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비교적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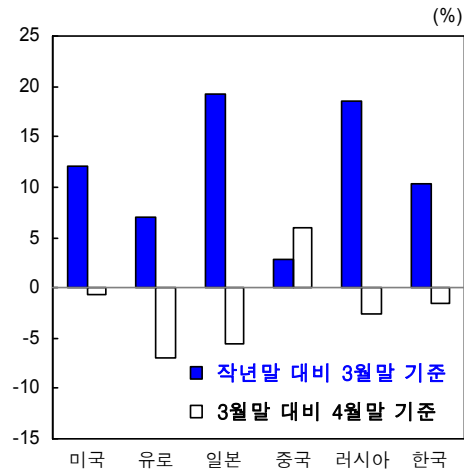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으로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주요 변동성지수가 하락하고 위험자산의 선호 경향도 증가

— 특히, IMF 등 국제기구의 재원이 확충되고 유럽중앙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장기유동성 공급(LTRO) 등을 시행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등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의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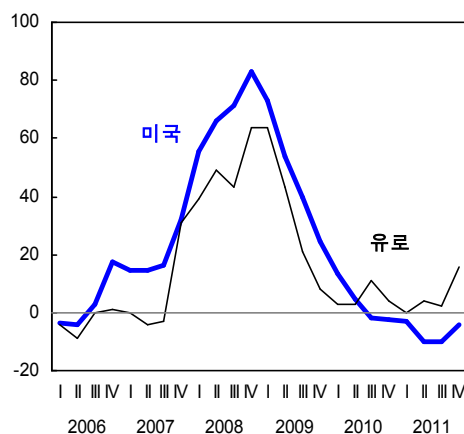
주요국의 주가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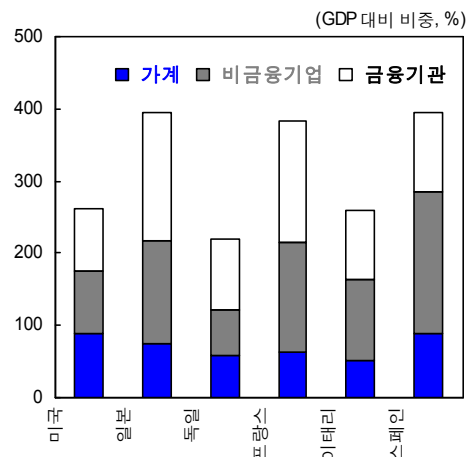
● 최근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나, 재정위기 확산 우려와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은행의 부채조정 등 하방위험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

- 금융기관의 자금시장 지표가 개선되고 경제 주체들의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주요 재정위기 국가들의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도 실패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야기될 가능성도 높으며, 국가별 정책적 위험과 여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재정위기가 진화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주요 선진국의 대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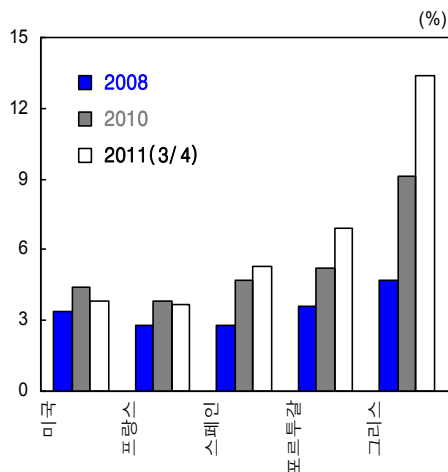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부문별 부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12.

- 한편,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나타나고, 이는 각국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와 자산가격의 하락을 초래한 바 있음.
 - 그 결과 일부 과대평가된 신흥시장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 측면도 있으나, 주요 국가들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전반에 불안심리가 급증
- 구제금융 조치 이후에는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신흥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모습
 - 주요 선진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신흥시장국의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신용이 급증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적완화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갈등도 잔존
 -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급격한 채무조정이 초래될 가능성은 적으나,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여하에 따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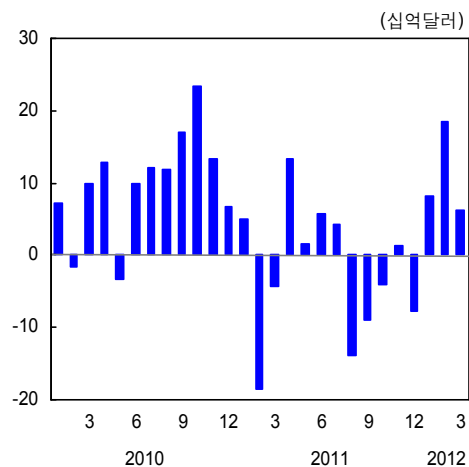
주요국의 부실채권 비율



주: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1년 2/4분기 기준.

자료: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순유입



■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선진국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채 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완만한 개선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해외수요 부진으로 주요 신흥시장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비교적 견실한 내수,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여력 등을 고려할 때 실물경기에서 급격한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
 - IMF는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경기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3%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의 2012~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NIEs ¹⁾
2011년 9월	4.0 [4.5]	1.8 [2.5]	1.1 [1.5]	2.3 [2.0]	9.0 [9.5]	4.5 [4.4]
2012년 1월	3.3 [3.9]	1.8 [2.2]	-0.5 [0.8]	1.7 [1.6]	8.2 [8.8]	3.3 [4.1]
2012년 4월	3.5 [4.1]	2.1 [2.4]	-0.3 [0.9]	2.0 [1.7]	8.2 [8.8]	3.4 [4.2]

주: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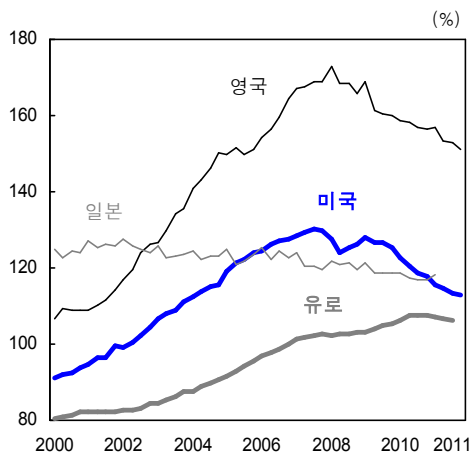
2) []안은 2013년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January · Apri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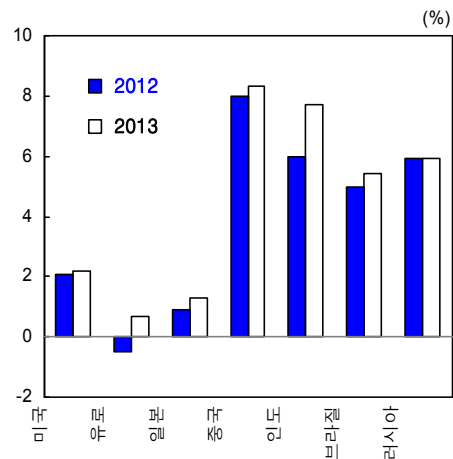
- 그러나 IMF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확산되어 금융기관의 부채조정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선진국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현재의 전망보다 1%p까지 둔화될 수 있음.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어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도 각국의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어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경제는 주택시장의 회복 지연과 유로지역의 위기 확산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업률과 부채조정 압력, 주택가격의 약세 등은 향후 경기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IMF의 성장률 전망치: (2012년) 2.1% → (2013년) 2.4%
- 유로경제는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대외수요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의 실물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ECB의 장기대출을 비롯한 주요 구제금융 조치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로 주요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등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재정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관련 국가들의 실업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역 내 국가 간 성장률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IMF의 성장률 전망치: (2012년) -0.3% → (2013년) 0.9%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주요국의 실질소비 증가율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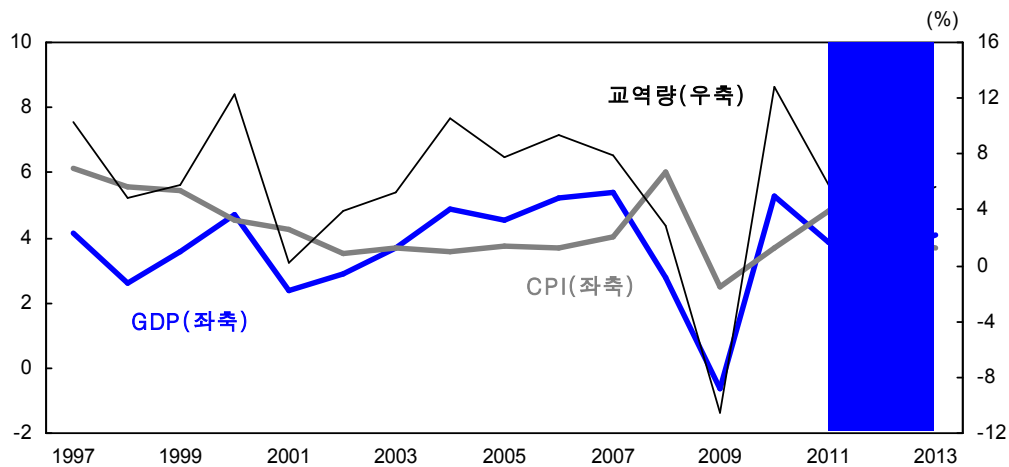
- 일본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전력 공급 문제 등이 실물경제 개선에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금년에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IMF의 성장률 전망치: (2012년) 2.0% → (2013년) 1.7%

- 중국경제는 해외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 등 주요 내수지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3년까지 8%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IMF의 성장률 전망치: (2012년) 8.2% → (2013년) 8.8%

주요 세계 경제지표



주: 2012~2013년은 IMF의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2.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¹⁾

(%)

	2010	2011	2012	2013
세 계 ²⁾	5.3 (4.2)	3.9 (2.7)	3.5 (2.5)	4.1 (3.2)
선진국	3.2	1.6	1.4 (1.3)	2.0 (2.0)
미국	3.0	1.7	2.1 (2.2) [2.0]	2.4 (2.4) [2.5]
일본	4.4	-0.7	2.0 (1.5) [2.0]	1.7 (2.1) [1.6]
유로지역	1.9	1.4	-0.3 (-0.5) [0.2]	0.9 (0.8) [1.4]
개도국	7.5	6.2	5.7 (5.5)	6.0 (6.2)
아시아 ³⁾	9.7	7.8	7.3 (6.5)	7.9 (7.0)
중국	10.4	9.2	8.2 (8.4) [8.5]	8.8 (8.6) [9.5]
대만	10.7	4.0	3.6 (3.8)	4.7 (4.9)
인도	10.6	7.2	6.9 (7.2) [7.2]	7.3 (8.0) [8.2]
브라질	7.5	2.7	3.0 (3.2) [3.2]	4.2 (5.0) [3.9]
러시아	4.3	4.3	4.0 (3.7) [4.1]	3.9 (3.9) [4.1]

주: 1) IMF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와 []의 수치는 각각 Global Insight와 OECD 자료에 근거.

2)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

3) 아시아지역에서 Global Insight는 일본만을 제외하지만,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선진국에 포함).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April 2012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OECD, *Economic Outlook*, No. 90, November 2011.

● 주요 재정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부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금년에도 일부 국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8~10%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격한 수요 위축에 대비하여 긴축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

주요국의 2012~13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전망

(GDP 대비 비중, %)

	미국	유로	영국	일본	중국
경상수지	-3.3 [-3.1]	0.7 [1.0]	-1.7 [-1.1]	2.2 [2.7]	2.3 [2.6]
재정수지	-8.1 [-6.3]	-3.2 [-2.7]	-8.0 [-6.6]	-10.0 [-8.7]	-1.3 [-1.0]
국가채무	106.6 [110.2]	90.0 [91.0]	88.4 [91.4]	235.8 [241.1]	22.0 [19.4]

주: []안은 2013년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 IMF, *Fiscal Monitor*, April 2012.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가. 미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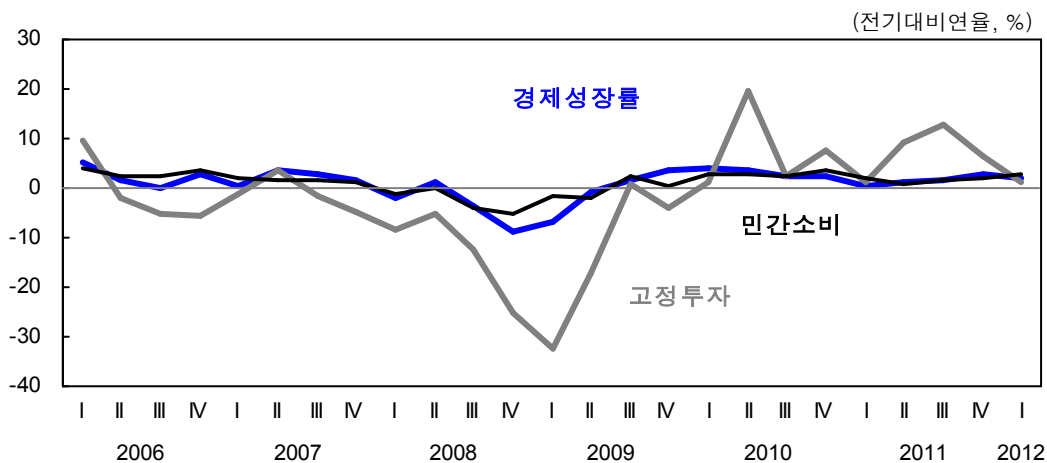
미국경제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물경기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부문의 회복 지연 등 하방위험도 잔존

■ 금년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고정투자가 위축되면서 작년 4/4분기보다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확대되는 모습

● 201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2.2%(전기대비연율)를 기록

-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의 2.1%에서 2.9%까지 확대되었으며, 주택투자 증가율은 11.6%에서 19.1%까지 확대
- 한편,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둔화된 가운데, 기업고정투자 증가율 또한 다소 둔화된 1.4%를 기록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확대된 가운데,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소폭 확대됨.

미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미 상무부.

미국의 국민계정(실질)

(전기대비연율, %)

	2009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GDP	-3.5	3.0	1.7	0.4	1.3	1.8	3.0	2.2
민간소비	-1.9	2.0	2.2	2.1	0.7	1.7	2.1	2.9
고정투자	-18.8	2.6	6.8	1.2	9.2	13.0	6.3	1.4
건설	-21.2	-15.8	4.6	-14.3	22.6	14.4	-0.9	-12.0
설비	-16.0	14.6	10.4	8.7	6.2	16.2	7.5	1.7
주거용	-22.2	-4.3	-1.3	-2.4	4.2	1.3	11.6	19.1
총 수출	-9.4	11.3	6.7	7.9	3.6	4.7	2.7	5.4
총 수입	-13.6	12.5	4.9	8.3	1.4	1.2	3.7	4.3
정부소비 및 투자	1.7	0.7	-2.1	-5.9	-0.9	-0.1	-4.2	-3.0

자료: 미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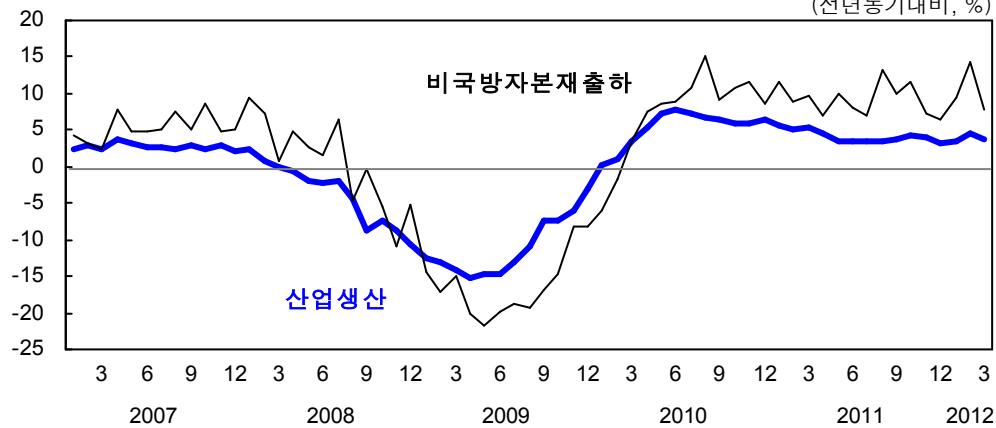
■ 생산관련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는 모습

● 생산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지표의 경우 증가율이 소폭 축소

— 산업생산과 비국방자본재출하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모습

미국의 산업생산과 비국방자본재출하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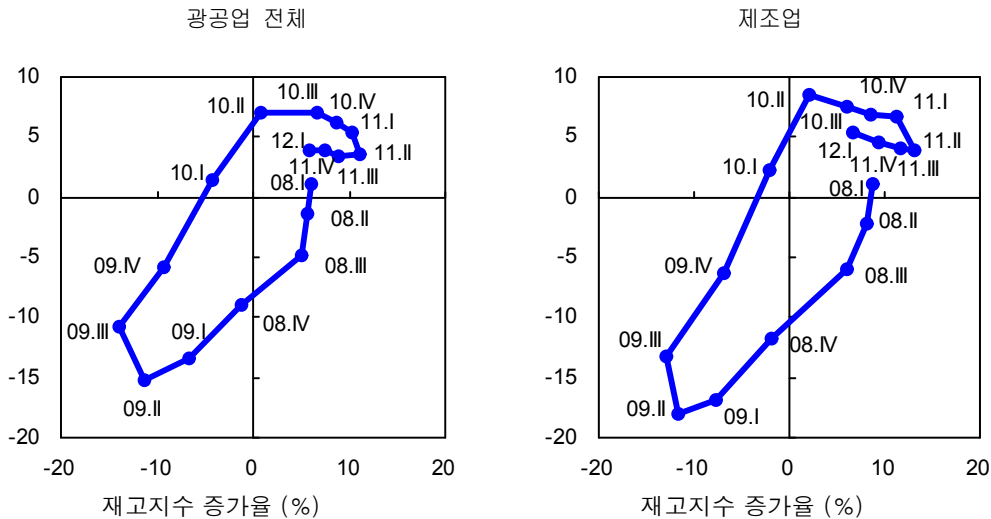


자료: FRB, 미 통계국.

-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고 증가세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을 유지하는 모습

－ 한편, 금년 1/4분기 광공업 전체의 생산 증가세는 전분기 4.0%에서 3.9%로 소폭 둔화되었으며, 재고 증가세 역시 8.1%에서 6.6%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미국의 생산·재고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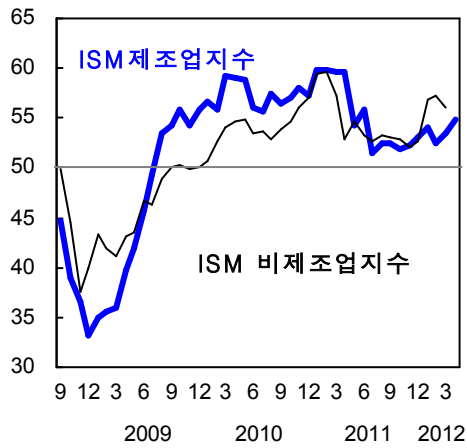


주: 2012년 1/4분기의 광공업 전체의 재고지수는 2월말 기준임.
자료: 미 통계국, FRB.

- ISM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 모두 고용지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여건이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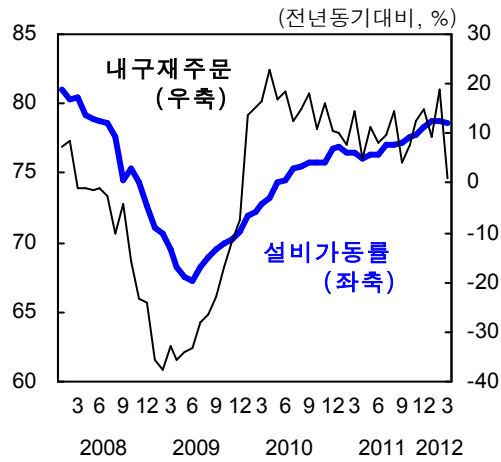
－ ISM제조업지수는 작년 8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 4월 중에는 54.8을 기록하였으며, ISM비제조업지수 역시 작년 3/4분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여 3월 중에는 56.0까지 확대

미국의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



자료: 미 공급관리협회, 미 통계국.

미국의 설비가동률과 내구재주문



- 한편, 설비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구재 주문의 증가폭은 최근 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내구재 주문은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금년 들어 항공기와 운송부문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의 둔화 등에 기인하여 증가율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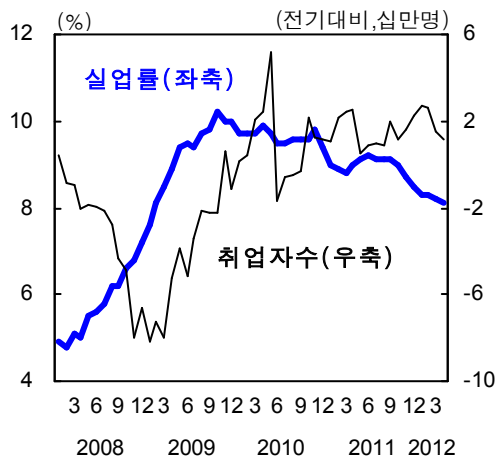
- 최근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 비농업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8.1%까지 하락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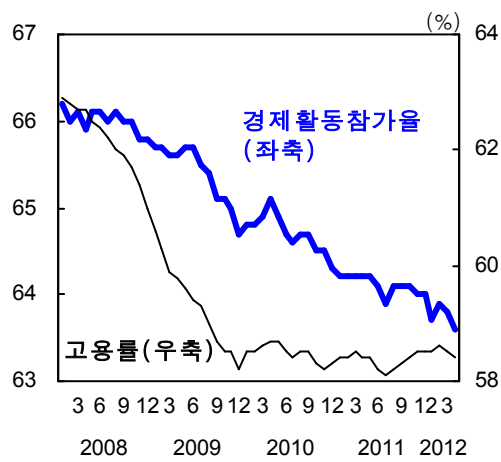
— 금년 중 취업자수가 전기대비 20만 건 이상의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전체 고용대비 시간제(part-time) 고용의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등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세도 유지

— 한편, 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세를 유지

미국의 실업률과 취업자수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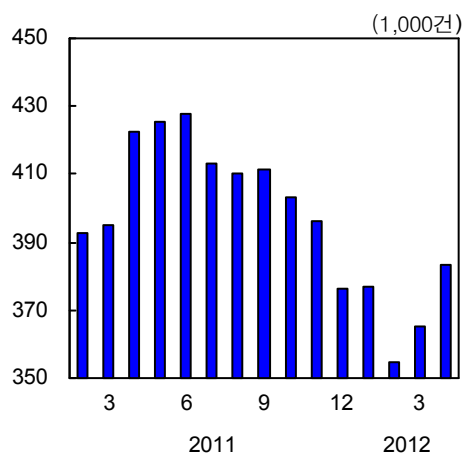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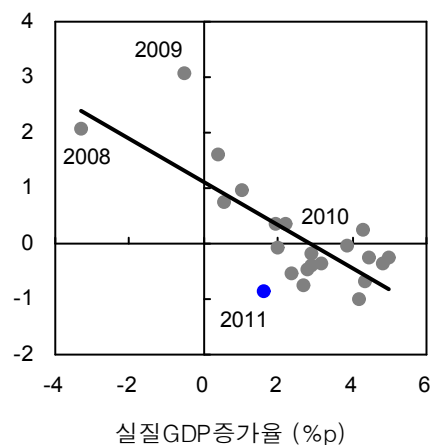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비농업고용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수당신청건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 개선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3월 이후 고용 증가폭이 20만 건 이하로 축소되고, 그동안 감소세를 유지하던 미국의 월평균 실업수당신청건수도 3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미국의 실업수당신청건수



미국의 실질GDP증가율과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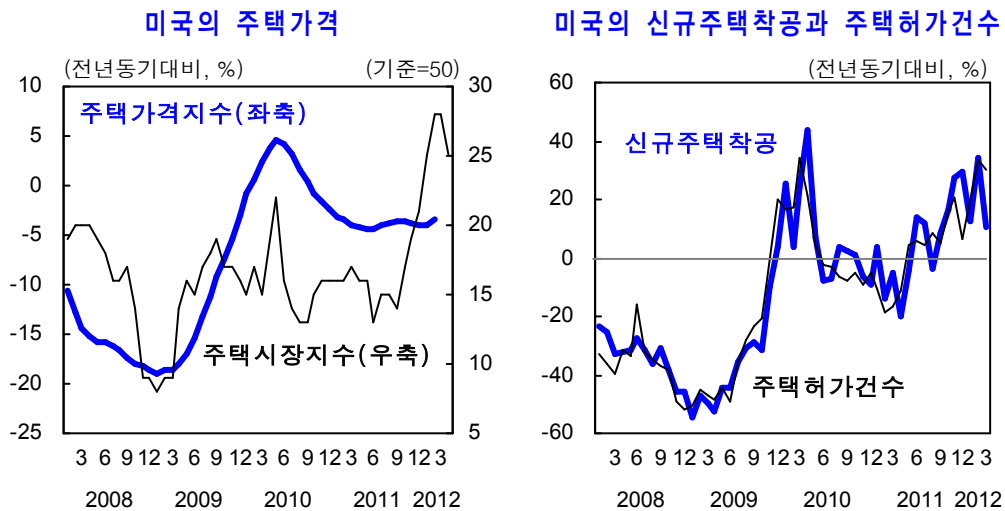


주: 실질GDP증가율은 연도별 4/4분기 값에 대한 증가율임.
자료: 미 노동부, 미 상무부.

- 한편,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개선과 실물경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도 상존
 - － 특히, 작년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간의 관계는 기존의 추세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
 - － 또한, 평균 실업지속기간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 실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상회하는 등 고용시장 내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
 - － 이에 대해, 최근 실업률 하락의 원인은 고용창출보다는 위기 이전에 비해 기업의 해고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평가도 제시

■ 주택판매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부문 주요 지표들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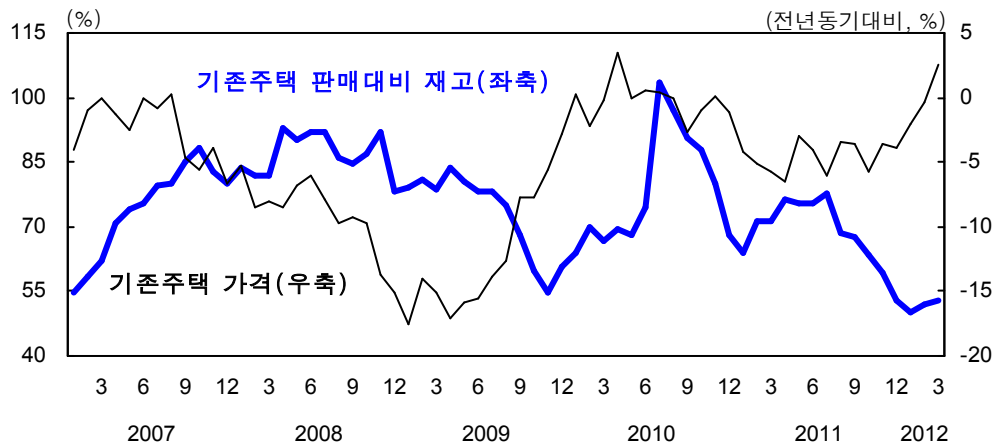
- 주택시장지수가 하락하고 주택가격지수도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기존주택 재고 감소폭이 확대되고 주택판매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
 - － 금년 3월 중 주택시장지수가 28까지 확대되었으나 4월 중 25로 하락하였으며, 주택가격 지수의 감소폭은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으나 감소세를 유지하는 모습
 - － 신규주택착공률과 주택허가건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폭이 축소됨.



자료: S&P, NAHB, 미 통계국.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판매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기존주택의 재고 감소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판매대비 재고비율도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주택판매대비 재고와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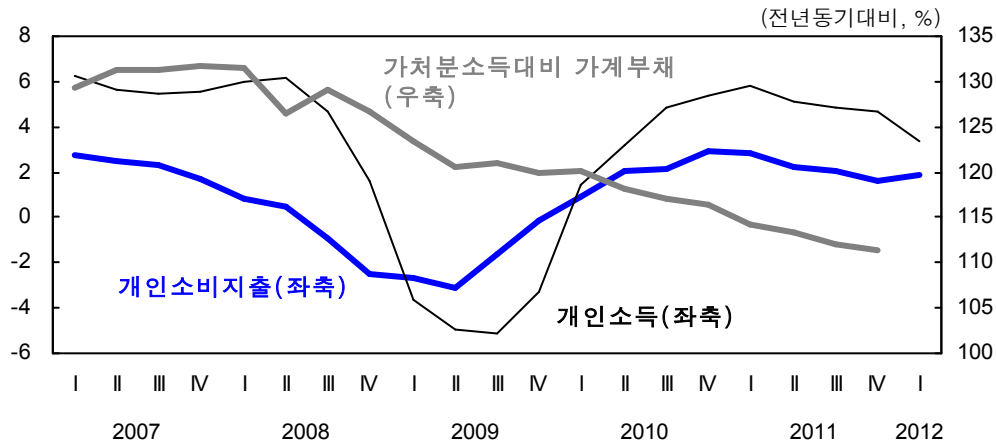
자료: 전미부동산업자협회.

■ 가계부채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개인소득관련 지표들도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여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개인소득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가계부채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최근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됨.

-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작년 1/4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년 1/4분기 중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개인소득의 경우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작년 4/4분기까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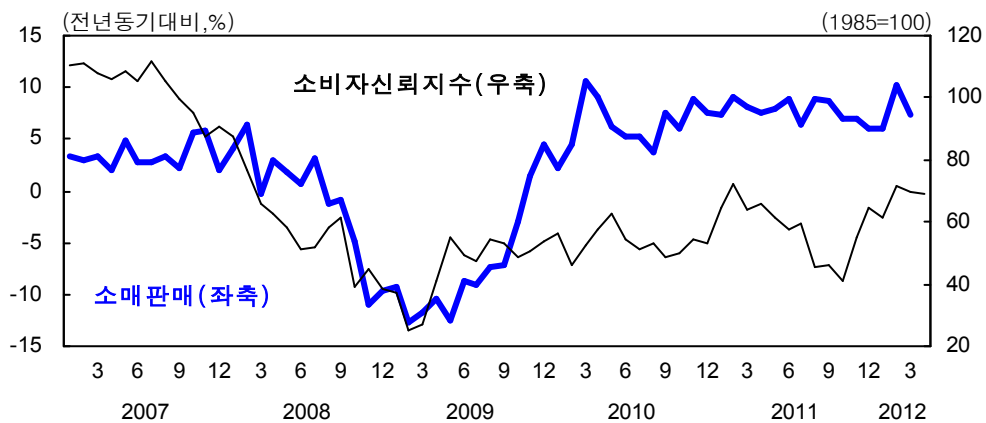
미국의 개인소비지출과 개인소득 및 가계부채 비율



자료: 미 상무부, FRB.

-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소매판매 또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여 작년 3/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
 - 작년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자신뢰지수는 최근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4월 중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미국의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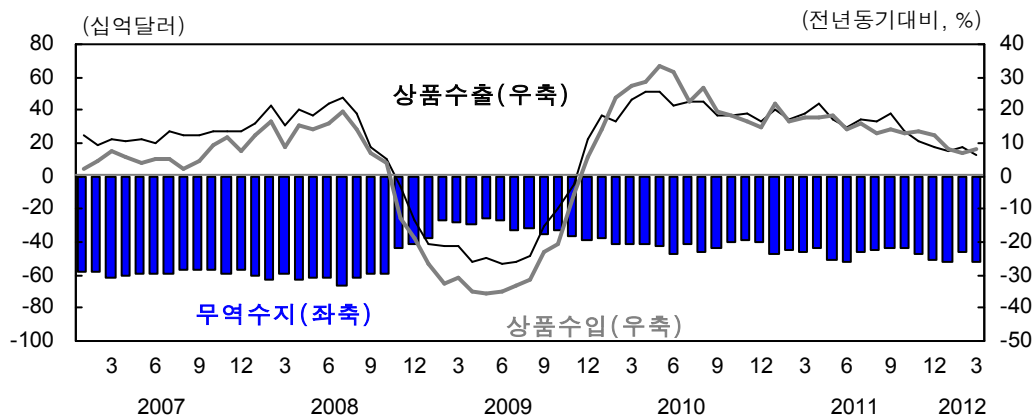
자료: 미 통계국, 컨퍼런스 보드.

■ 미국의 대외거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작년 4/4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은 다시 확대됨.

●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점차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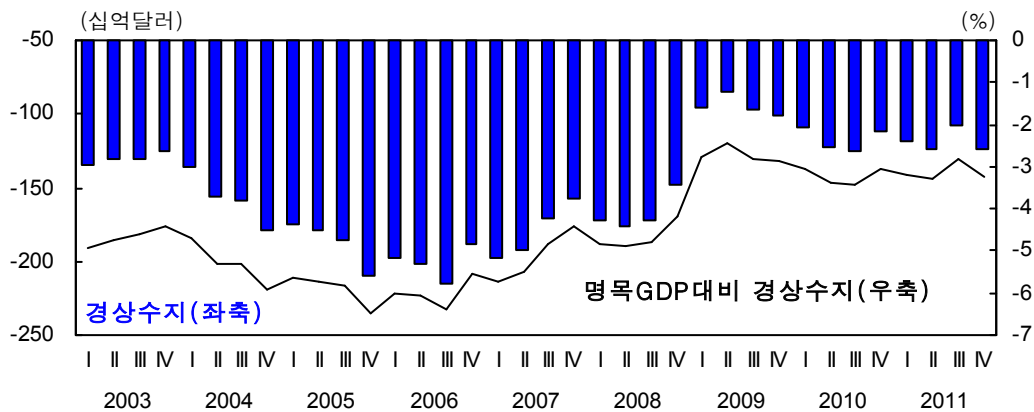
- 작년 3/4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가운데, 금년 2월 중 적자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월 중 다시 확대
- 작년 4/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GDP대비 3.2%수준인 1,241억 달러를 기록

미국의 상품수출입과 무역수지



자료: 미 통계국.

미국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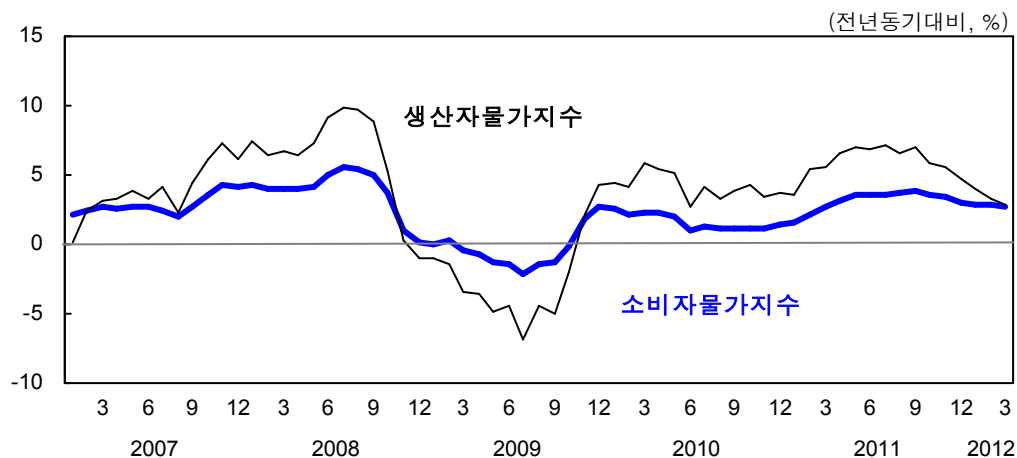
자료: 미 상무부.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는 등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유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확대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금년 들어 2%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 또한 3월 중 2.8%까지 하락
- 수출물가와 수입물가도 3월 중 각각 0.8%, 3.7%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증가폭이 축소
- 한편,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생산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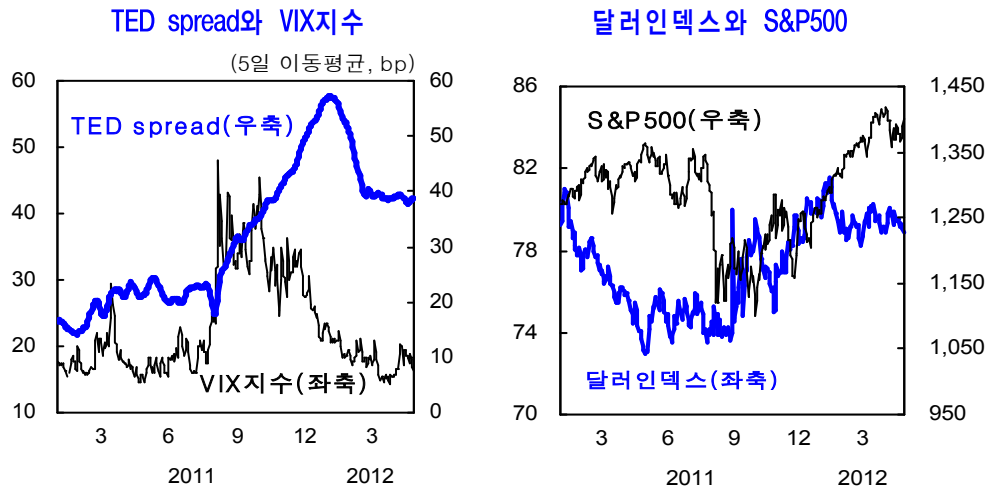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부.

■ 미국의 경기지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 미국의 실물 경기지표들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유로지역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VIX지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내 변동성이 다소 축소됨.

- 작년 3/4분기 이후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유로 재정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면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전환된 이후 변동성이 축소된 모습

- 미국의 주가지수는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부정적 지표가 나타나면서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작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



자료: 국제금융센터.

■ 최근 IMF와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상향조정

- IMF는 금년 1월 중 201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나, 4월 중에는 2.1%로 전망치를 상향조정
- 한편,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IMF보다 약 0.3%p 높은 2.4%로 예상

주요 투자은행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국제투자은행	2012				2012	2013
	1/4	2/4	3/4	4/4		
Barclays Capital	2.5	3.0	3.0	—	2.4	2.5
Credit Suisse	2.0	2.3	2.4	2.4	2.4	2.5
Deutsche Bank	2.9	3.2	3.3	—	2.7	3.0
Goldman Sachs	2.3	2.4	2.3	2.1	2.3	2.2
Citi	1.2	2.1	2.3	1.2	2.1	2.0
JP Morgan	2.5	3.0	2.0	1.5	2.4	2.2
성장률 평균	2.2	2.7	2.6	1.8	2.4	2.4

주: 1) 2012년 4월말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연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나. 유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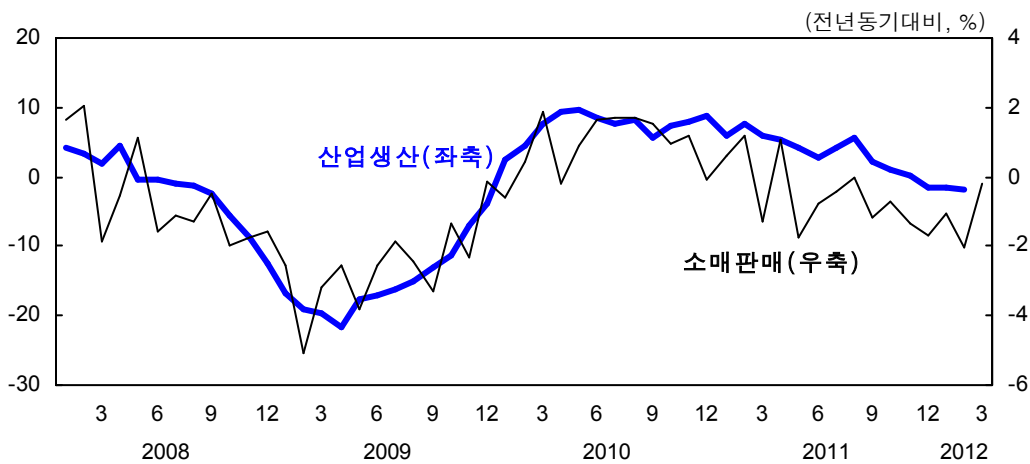
유로지역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실물경기도 부진한 모습

■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생산과 소비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실물경기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3개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실물경기 여건이 빠르게 악화

- 2월 중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1.8% 감소하여 전월의 -1.6%보다 하락세가 확대
- 재정위기국가들의 산업생산이 약 6.0%까지 감소한 가운데, 2월 중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독일의 생산도 0.1% 감소
- 한편, 소매판매는 독일(0.3%)과 프랑스(2.6%)의 판매 개선으로 인해 3월 중 0.2% 감소하여 전월(-2.0%)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전월대비 증가율은 0.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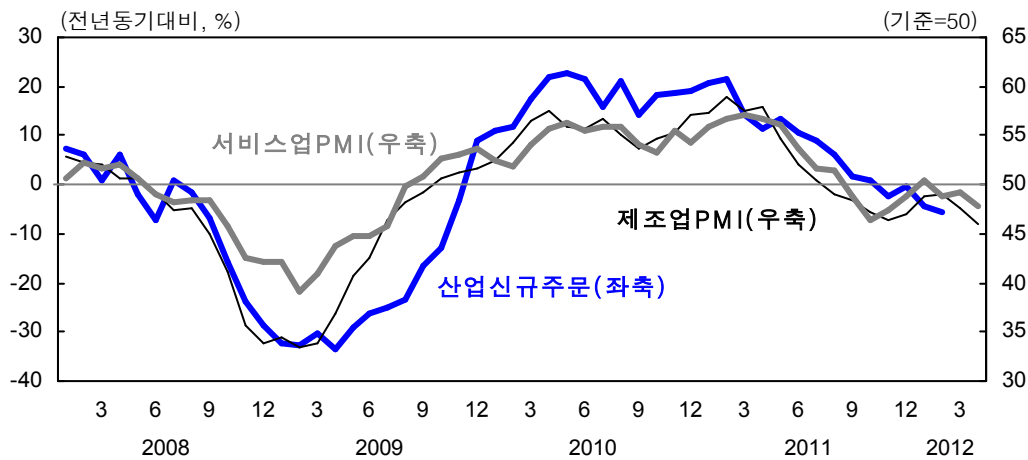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자료: Eurostat.

- 또한, 산업신규주문이 하락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지수도 작년 1/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
 - － 4월 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35개월 중 최저치인 46.0을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또한 4월 중 전월보다 1.3p 하락한 47.9를 기록하여 유로지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는 47.4까지 하락
 - － 프랑스(1.4%), 폴란드 (28.7%) 국가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독일(-5.4%), 이탈리아 (-17.6%) 등 대부분 국가들의 신규주문량이 감소하면서, 2월 중 제조업 산업신규주문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7%를 기록하여 전월(-4.3%)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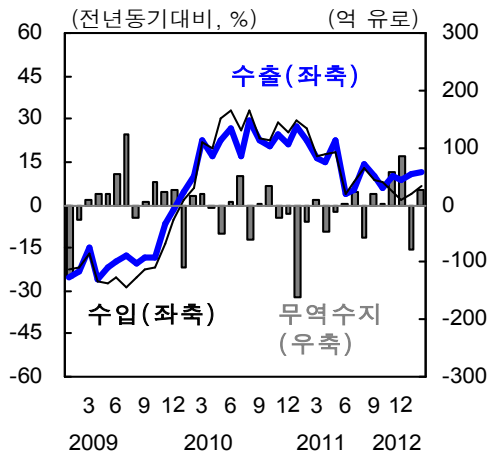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산업신규주문 및 구매관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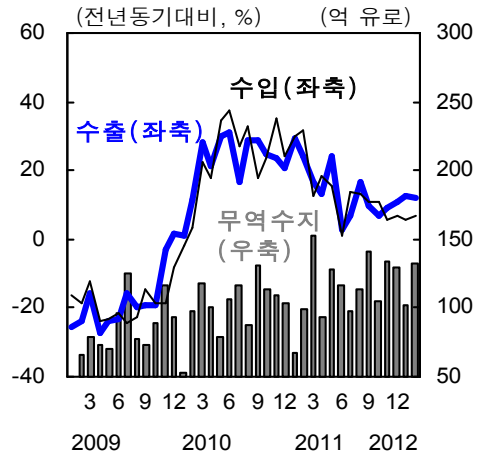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한편, 해외수요가 다소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
 - 수출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난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입도 작년 12월 이후 증가하는 모습
 - － 2월 중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각각 11.2%, 6.9%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확대된 가운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 － 한편, 독일의 수출 증가율은 전월(12.8%)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축소된 12.2%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은 6.7%로 전월(5.9%)에 비해 소폭 확대

유로지역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독일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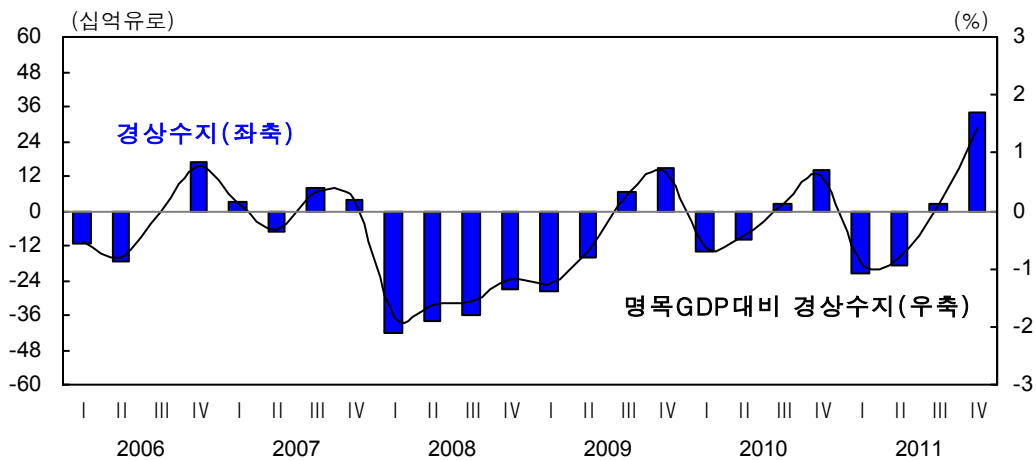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한편, 경상수지는 작년 4/4분기에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적자로 전환

— 금년 1월에 101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월에는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59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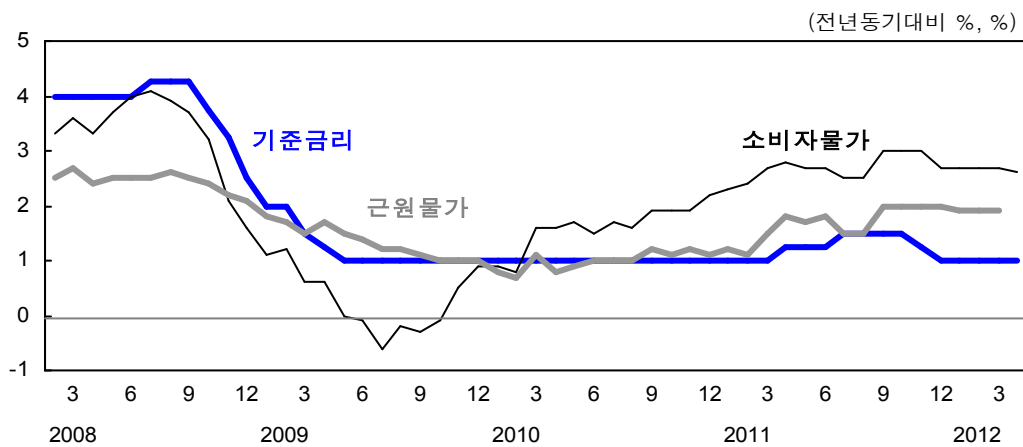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이후 점차 하락하는 모습

●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유지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하반기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지난 4월에는 1%의 기준금리를 유지
-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중 2.6%로 전월에 비해 0.1%p 하락하면서 작년 9월 (3.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

유로지역의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자료: Eurostat.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신선식품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 말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근원물가도 전월과 동일한 1.9% 상승

유로지역의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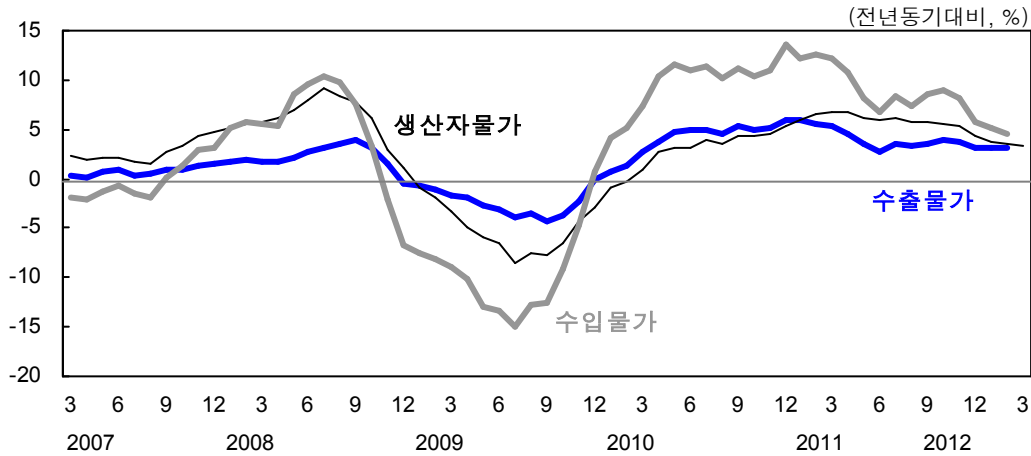
(%)

	2010	2011	2012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1.6	2.7	2.7	2.7	2.7
근원물가	1.0	1.7	1.9	1.9	1.9
에너지	7.4	11.9	9.2	9.5	8.5
식품	1.1	2.7	3.1	3.3	3.2
신선식품	1.3	1.8	1.6	2.1	2.2
서비스	1.4	1.8	1.9	1.8	1.8

자료: ECB.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월에도 전월(3.6%)에 비해 소폭 하락한 3.3%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수출물가와 수입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1%, 4.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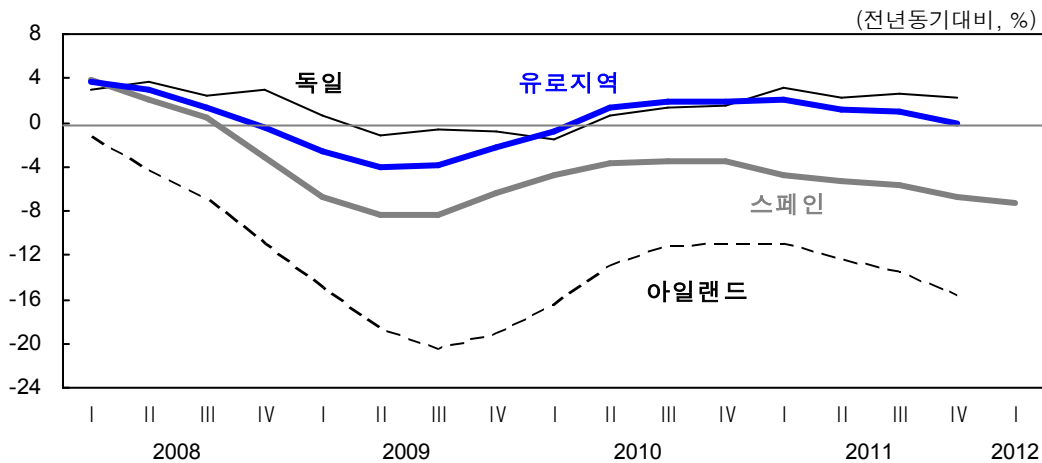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



자료: ECB.

- 한편, 유로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국가별로는 작년 4/4분기 중 스페인(-6.8%), 아일랜드(-15.8%), 포르투갈(-0.8%) 등의 국가들이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스페인의 경우 금년 1/4분기 중 7.3% 하락하며 2005년의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유로지역의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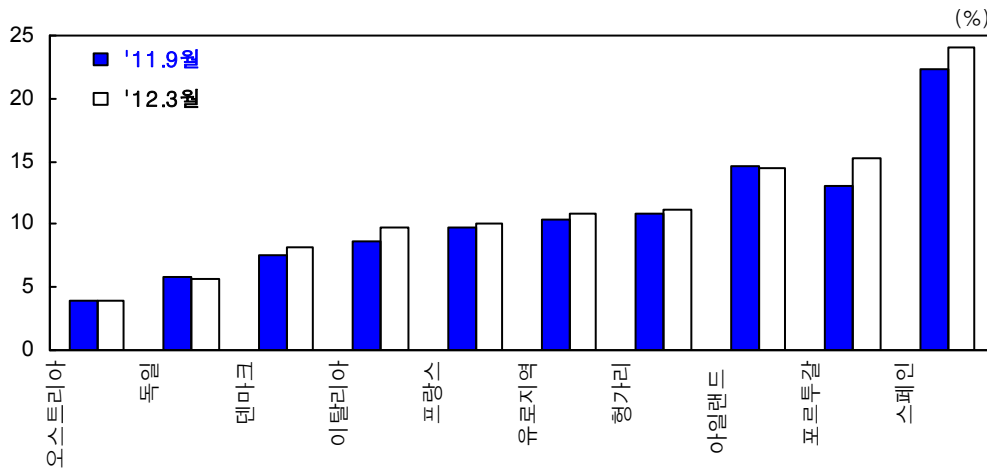
자료: ECB.

■ 작년 9월 이후 실업률은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 3월 중 실업률은 유로지역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의 고용여건은 꾸준히 개선되면서 지역 내 격차가 심화

- 유로지역 실업률은 3월 중 전월(10.8%) 보다 상승한 10.9%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24.1%로 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오스트리아가 4.0%로 가장 낮고 독일은 5.6%를 기록
- 한편, 연령별로는 유로지역 전체의 25세 미만 실업률이 22.1%로 전월(21.9%)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스페인과 독일의 25세 미만 실업률은 각각 51.1%, 7.9%를 기록

유로지역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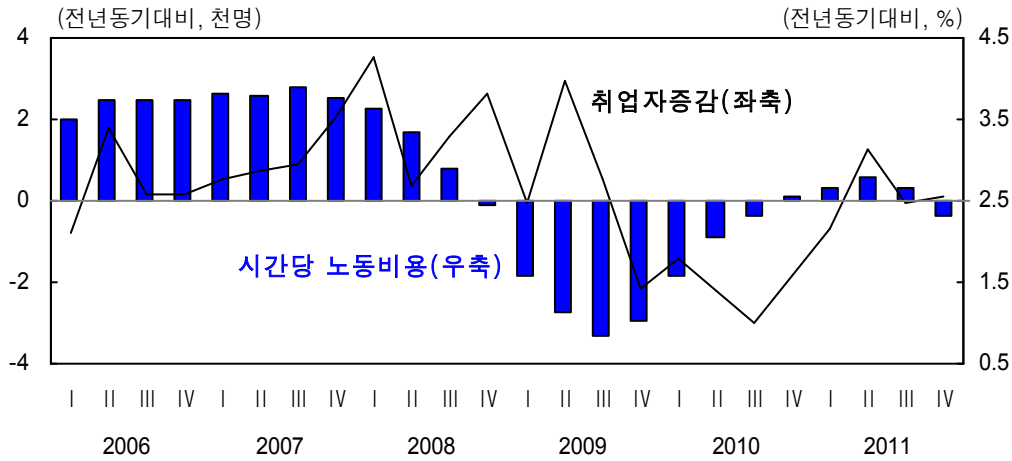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작년 하반기 이후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시간당 노동비용의 증가세도 둔화된 모습

-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345,390명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245,000명 감소한 가운데, 시간당 노동비용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한 모습

유로지역의 취업자 수



자료: 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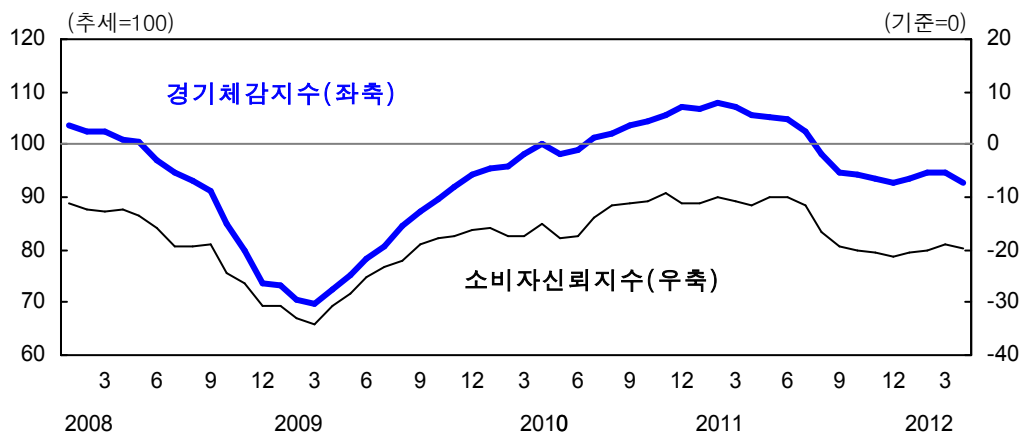
■ 실물경기의 부진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유로지역 주요 경제주체들의 심리 지수는 악화되는 모습

● 유로지역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들은 기준치를 하회하며 작년 3/4분기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

— 경기체감지수는 작년 12월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에는 전월(94.5)에 비해 하락한 92.4를 기록

— 또한, 소비자신뢰지수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4월 중 다시 하락하며 -19.9를 기록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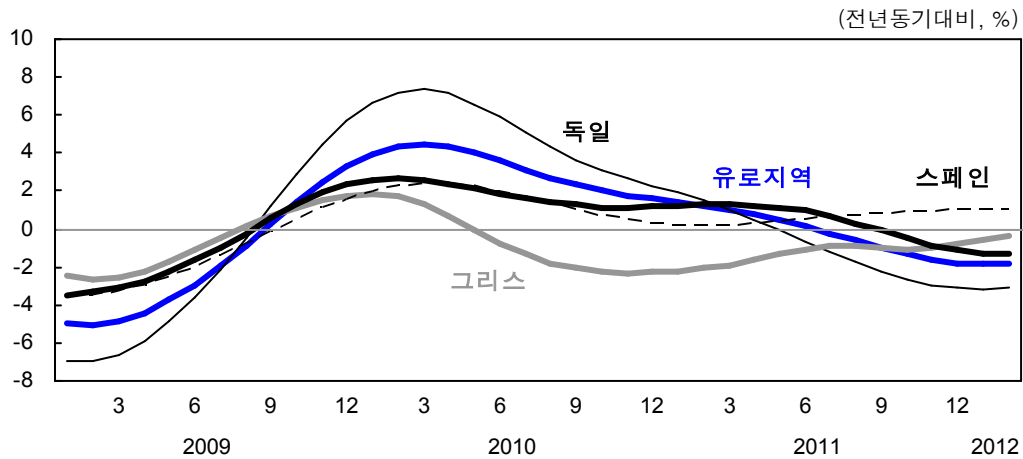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한편, 유로지역의 선행지표는 최근의 경기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프랑스 및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선행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유로지역 전체로도 하락하는 추세

유로지역의 OECD 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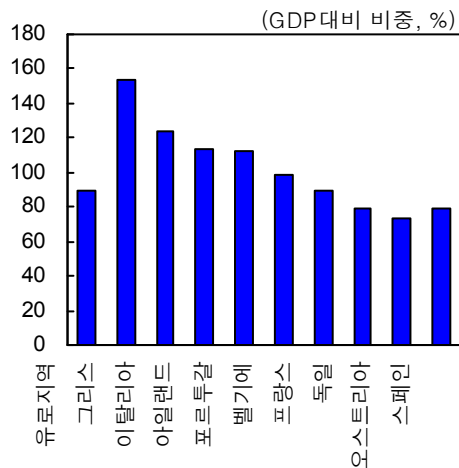
자료: OECD.

■ 일부 재정위기 국가들의 긴축정책과 고용부진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도 유로지역의 실물경제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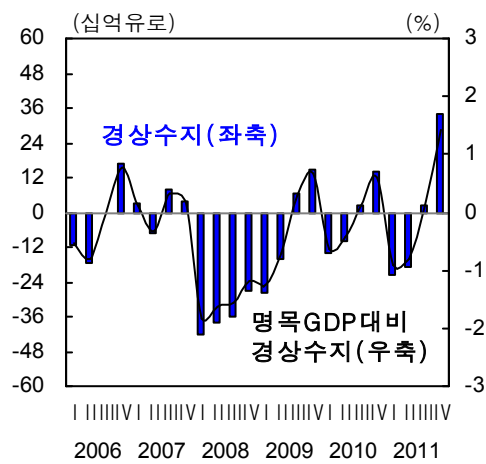
● 유로지역의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GDP대비 90%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은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가별로는 그리스가 GDP대비 153%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페인을 제외한 재정위기 국가들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유로지역의 경상수지는 금년 GDP대비 0.7%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상수지 개선이 예상되고 있음.

유로지역 국가별 정부부채 규모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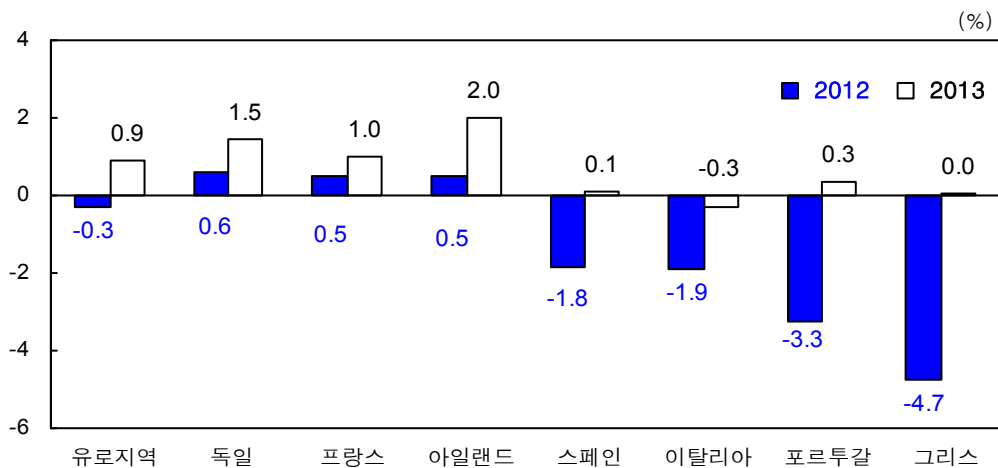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 주요기관들은 유로지역 경제가 금년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내년에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MF는 금융시장의 개선추세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유로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5%에서 상향조정하여 -0.3%로 전망
- 한편, ECB는 당초 2012년의 경제성장률을 -0.4~1%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들어 소폭 하향조정한 -0.5~0.3%로 전망

유로지역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주요 투자은행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12				2012	2013
	1/4	2/4	3/4	4/4		
Barclays Capital	-0.2	-0.1	0.5		-0.4	0.9
Citi	-1.1	-1.2	-0.6	0.0	-1.0	-0.2
Credit Suisse	0.4	0.4	0.7	2.0	-0.1	1.5
Deutsche bank	-0.4	0.9	0.8		-0.2	0.8
Goldman Sachs	-0.6	-0.7	-0.3	0.2	-0.5	0.6
JP Morgan	-0.8	-0.5	0.3	0.5	-0.4	0.4
성장률 평균	-0.5	-0.2	0.2	0.7	-0.4	0.7

주: 1) 2012년 4월 전망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다. 일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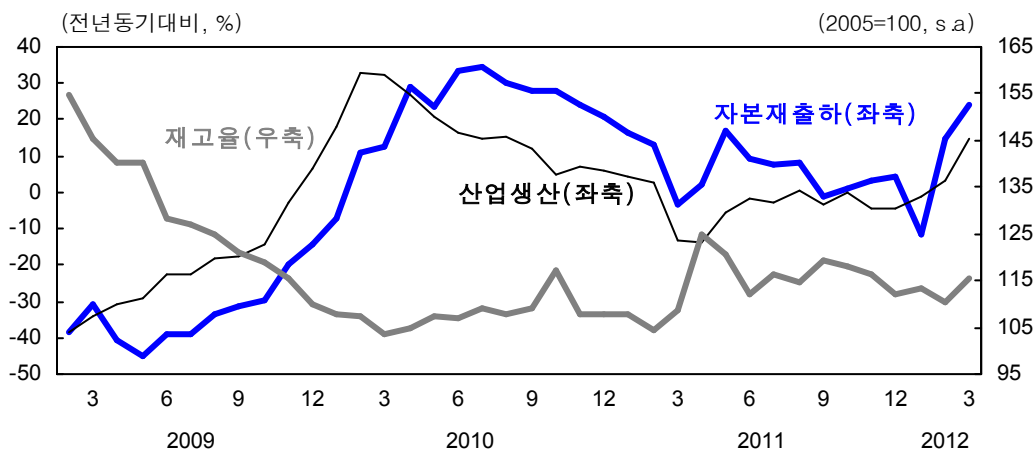
일본은 주요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

■ 생산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

● 산업생산은 부품 공급이 회복되면서 자동차 및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금년 1월 이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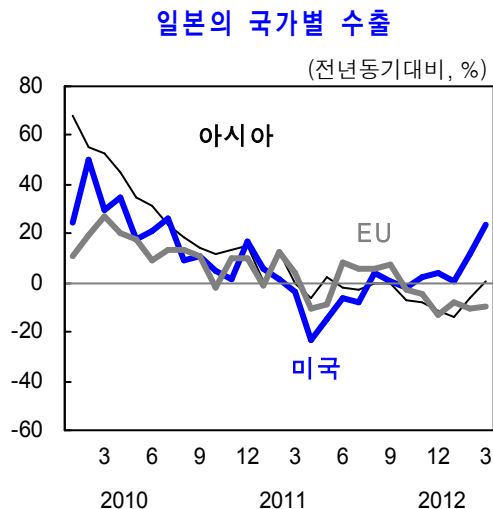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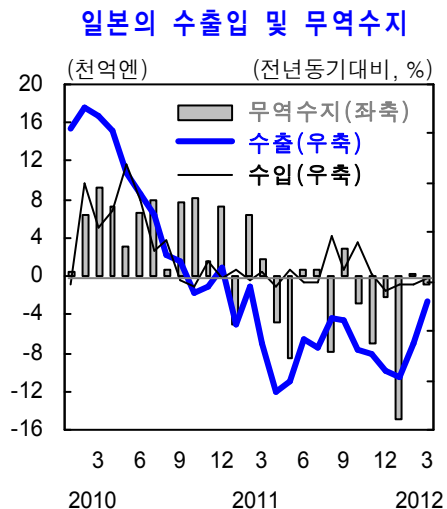
- 작년 대지진으로 인해 크게 하락한 산업생산은 기저효과 등으로 3월 중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전월(3.1%)보다 확대된 13.9%를 기록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1.0% 증가
-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자본재출하 증가율도 24.3%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크게 확대
- 한편, 재고율은 전월(-2.7%)의 감소에서 증가(4.6%)로 전환

일본의 자본재출하, 산업생산 및 재고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도 증가세를 유지
 -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던 수출은 5.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
 - 상품별로는 수출의 23.4%를 차지하는 운송기기가 전년동월대비 25.4% 증가하였고 21.6%를 차지하는 일반기기는 4.5% 증가
 - 국가별로는 수출 증가율이 미국 8.5%, 유로지역 10.6%, 아시아 지역 6.0%를 기록하여 각각 전월에 비해 4.1%p, 2.6%p, 0.1%p 증가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6.2% 증가하면서 전체 미국수출 증가율에 9.3%p 기여
 - 수입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월에 비해 1.3%p 증가한 10.6%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원전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원유와 LNG가 각각 전체 수입증가율의 3.9%p, 3.7%p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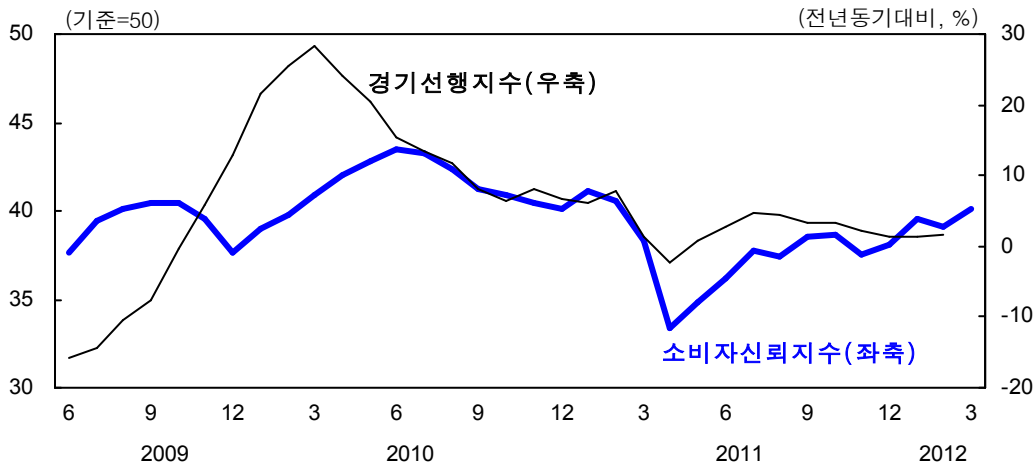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 주요 경제주체들의 심리지수는 개선되는 모습이며,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소비자신뢰지수 및 경기선행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작년 3월 급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대지진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 또한,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일본의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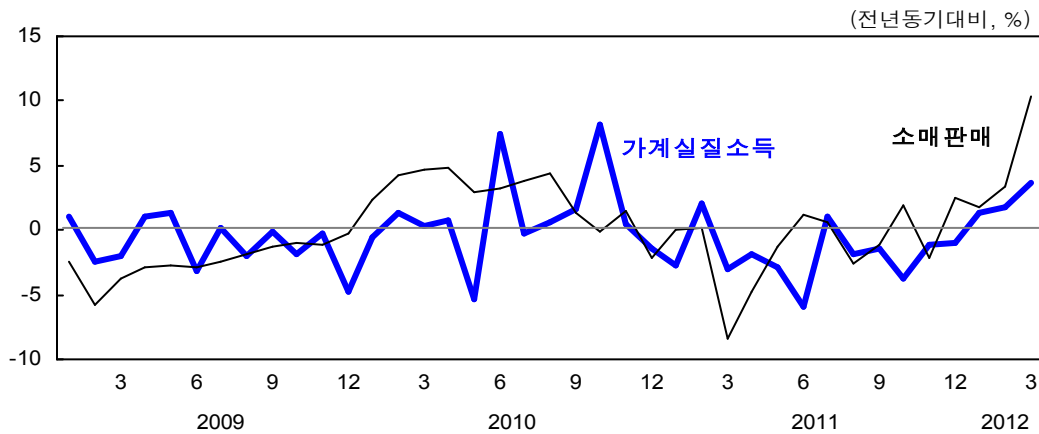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일본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는 작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

- 가계의 가처분소득(실질)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3월 중에는 3.7%로 전월의 1.8%보다 확대
- 한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월(3.4%)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증가에 기인하여 3월 중 10.3%의 증가율을 기록
- 특히, 일본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정책(한해 총 3,000억엔)에 따라 자동차 판매는 3월 중 전년동월대비 50.4% 증가하여 전월(21.3%)에 비해 확대

일본의 소매판매 및 가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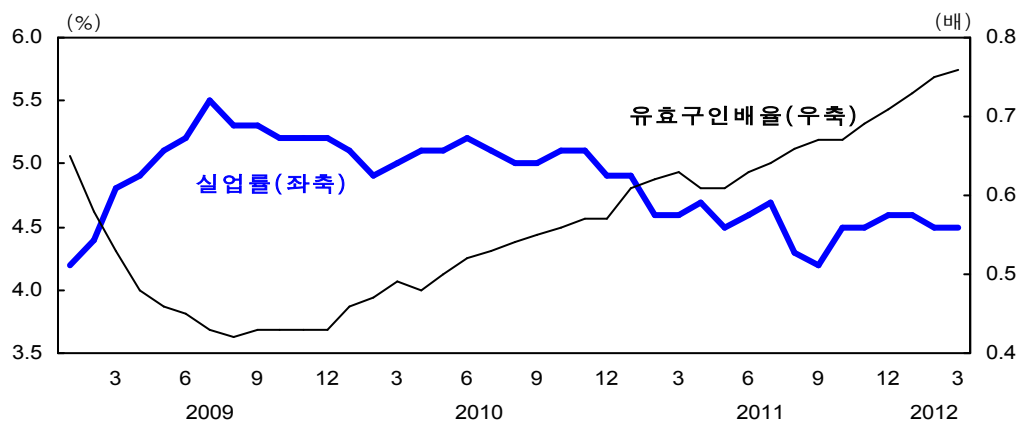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

■ 실물경기의 회복세에 기인하여 노동시장 여건도 매우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

- 산업생산의 빠른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유효구인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3월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과 같은 58.7%를 유지한 가운데, 실업률 또한 전월과 같은 4.5%를 기록하였으나 유효구인배율은 0.01p 상승한 0.76을 기록
 - 실업률은 15~24세가 8.6%로 전월에 비해 0.6%p 상승한 가운데, 25~34세가 0.5%p 하락한 6.0%, 55~64세가 0.4%p 상승한 4.3%를 기록

일본의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



주: 유효구인배율=구인자/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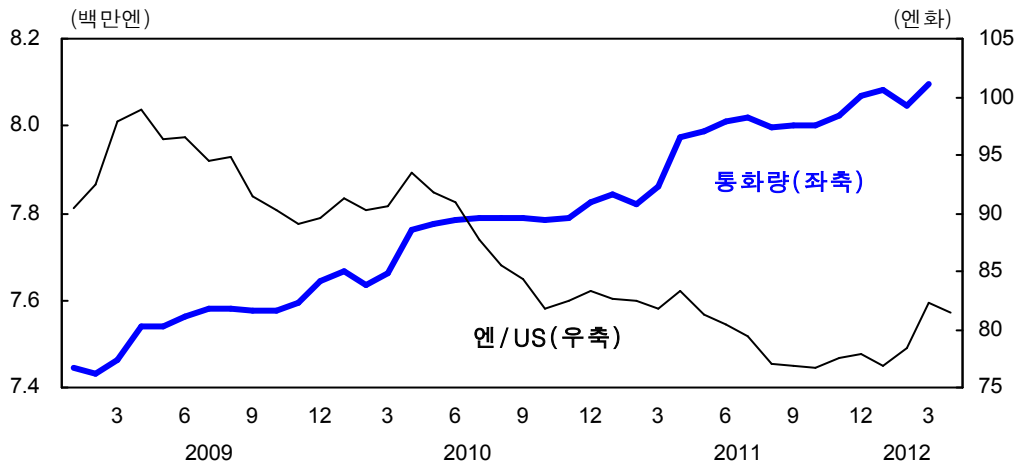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Bloomberg.

■ 한편,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및 물가목표 제시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1/4분기 중 소폭 상승

● 일본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한 가운데, 엔화의 가치는 금년 1/4분기 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소폭 상승

- 일본은행은 지난해 대지진, 태국홍수 및 엔고현상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엔화의 가치는 금년 1/4분기 동안 하락한 모습을 보이다 4월 중 달러당 81.4엔으로 전월(82.4엔)보다 상승
- 한편, 지난달 27일 일본은행은 추가 양적완화를 위해 자산매입기금 한도를 기존 65조 엔에서 70조엔으로 증액

일본의 통화량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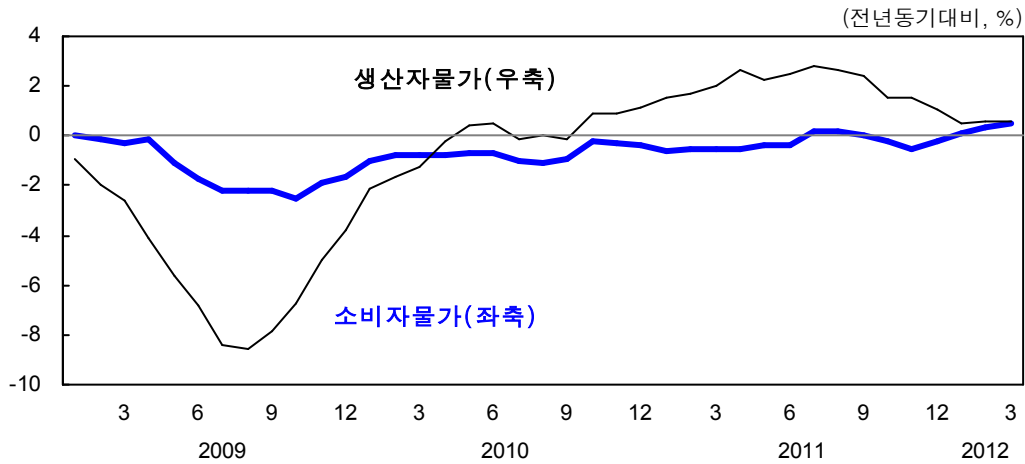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 3월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본중앙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1%를 여전히 하회하는 모습이나, 금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0%를 상회

-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가격(5.1%) 및 신선식품가격(7.3%) 상승에 기인해 전월에 비해 0.2%p 상승한 0.5%를 기록한 반면, 근원물가는 전월의 -0.5%에서 상승한 -0.4%를 기록
- 한편, 원전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유지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0.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일본의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자료: 일본은행.

■ 일본경제는 재정악화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지진피해 복구 및 미국 경기회복 등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정책당국이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부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IMF는 금년 일본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비율을 각각 GDP대비 -10.0%, 235.8%로 예상
-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

일본의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상수지	2.8	3.6	2.0	2.2	2.7
재정수지	-10.4	-9.4	-10.1	-10.0	-8.7
국가채무	210.2	215.3	229.8	235.8	241.1

주: 2012년과 2013년 수치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 IMF, *Fiscal Monitor*, April 2012.

- 대지진 피해복구 및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기인하여 2012년 경제 성장률은 2%내외로 전망되고 있음.

— IMF는 2012년 성장률을 금년 1월보다 0.4%p 상향 조정된 2.0%로 예상한 가운데, 2013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12				2012	2013
	1/4	2/4	3/4	4/4		
Barclays Capital	2.6	3.4	3.0		2.4	2.1
Citi	1.0	2.9	2.4	1.9	2.0	1.6
Credit Suisse	2.7	0.7	1.5	2.1	1.8	2.0
Deutsche Bank	4.1	2.7	1.6		2.8	1.5
Goldman Sachs	2.8	1.7	2.2	1.8	2.1	1.6
JP Morgan	2.0	1.4	1.2	1.0	2.0	1.3
성장률 평균	2.5	2.1	2.0	1.7	2.2	1.7

주: 1) 2012년 4월말 전망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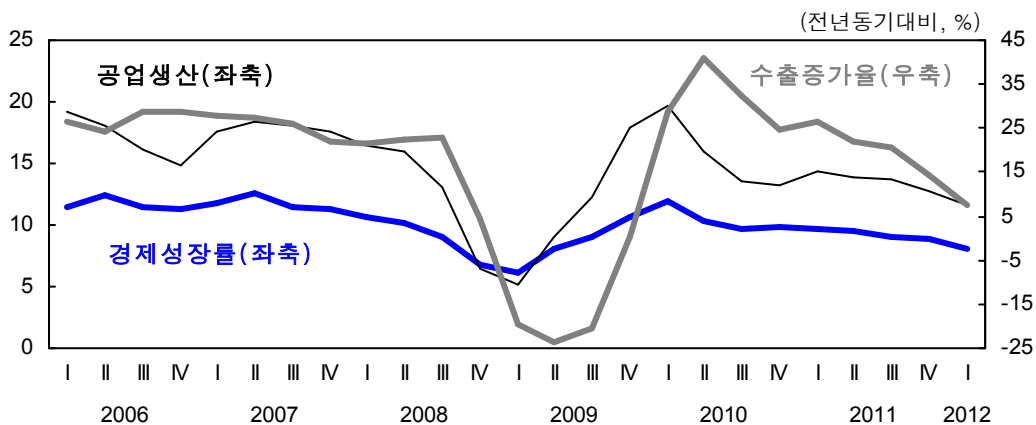
라.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활동도 다소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긴축적 정책기조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모두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완만히 하락되는 모습

- 통화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수출 및 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하락하여 금년 1/4분기에는 8.1%를 기록
 - － 2011년은 대외수요 부진과 긴축정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9.2%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부분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해왔으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이어 둔화세를 지속
 - － 대외수요 감소에 기인하여 수출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고정자산투자도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둔화세를 유지

중국의 경제성장률, 수출 및 공업생산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GDP성장률	10.3	9.2	9.7	9.5	9.1	8.9	8.1	-	-
공업생산	15.7	13.9	14.4	13.9	13.8	12.8	11.6	11.9	9.3
소매판매	18.4	17.1	16.3	17.2	17.3	17.5	14.8	15.2	14.1
고정투자 ¹⁾	23.8	23.8	25.0	25.6	24.9	23.8	20.9	20.9	20.2
부동산	33.2	27.9	34.1	32.9	32.0	27.9	23.5	23.5	18.7
수출 ²⁾	31.3	20.3	26.4	22.0	20.5	14.2	7.6	8.9	4.9
수입 ²⁾	38.9	24.9	32.8	23.1	24.8	20.6	6.9	5.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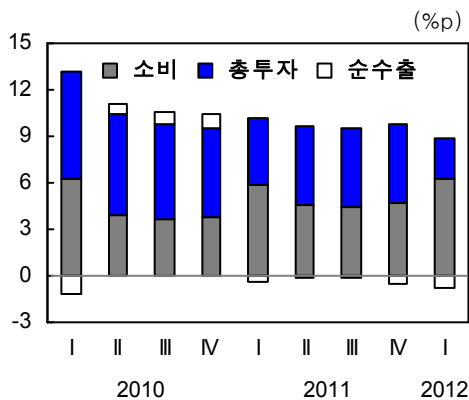
주: 1) 누계액 기준, 2) US\$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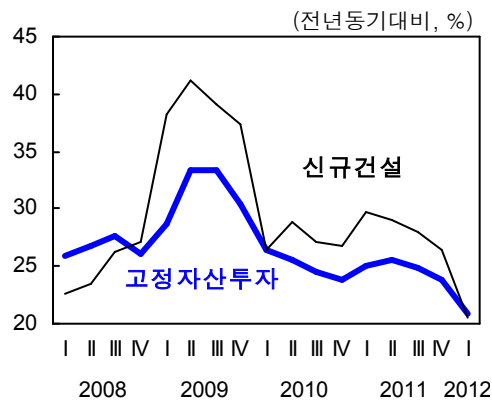
● 수출 경기 하락과 투자 부진이 최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됨.

- 2011년 소비, 투자,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4.8%p, 5.0%p, -0.5%p를 기록하며 내수 부문이 성장을 견인
- 2012년 1/4분기 중 소비, 투자,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6.2%p, 2.7%p, -0.8%p로 투자의 기여도는 축소되고, 순수출 기여도의 감소폭은 확대
- EU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며 수출 경기 위축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
- 1/4분기 중 고정자산투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던 신규건설 투자가 둔화되면서 지난해 동기(25.0%) 보다 축소된 20.9%의 증가율을 기록

성장기여도

주: 실질 누계기준.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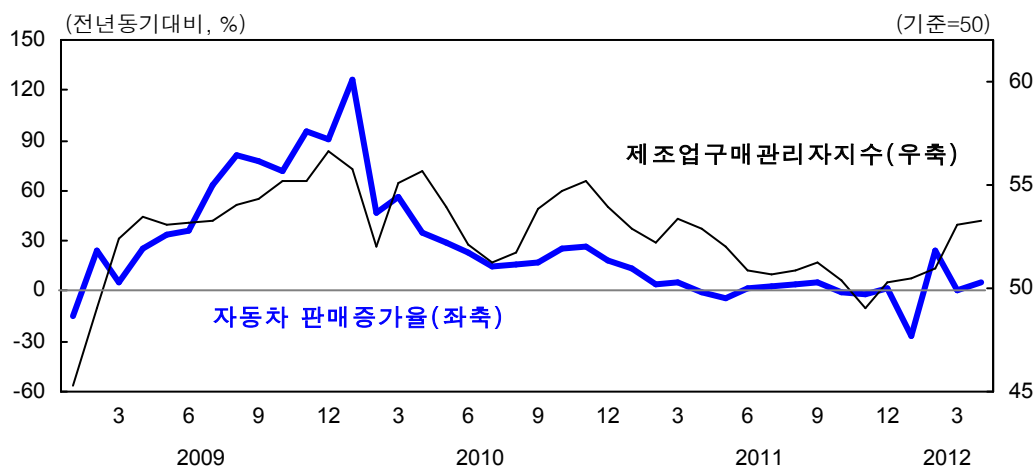
고정자산투자와 신규건설투자

주: 명목 누계액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생산 및 소비 등 주요 실물 경제지표도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공업생산이 완만한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매판매(명목)와 고정자산투자(명목) 증가율의 하락폭은 1/4분기 중 소폭 확대
 - 1/4분기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14.8% 증가하며 전분기(17.5%)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동기간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실질)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9.8%를 기록
 - 부동산 개발 투자 부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신규건설 부문(명목, 누계기준)이 지난해(26.5%)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1~4월: 21.1%)된 가운데, 지방정부 투자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폭이 축소
- 자동차판매의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는 최근 들어 개선추세를 지속
 - 자동차판매는 지난해 자동차 구매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이 대부분 축소 및 종료됨에 따라 부진이 지속되면서 최근 2분기 연속 감소('2011 4/4: -0.7% → '2012 1/4: -3.4%)
 -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는 신규주문지수의 상승에 기인하여 기준선을 상회하며 4개월 연속 상승

중국의 자동차판매 및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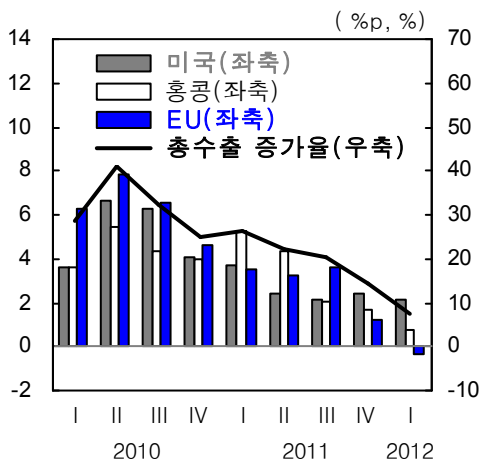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CAAM(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 해외수요 위축이 지속되며 수출입의 둔화세는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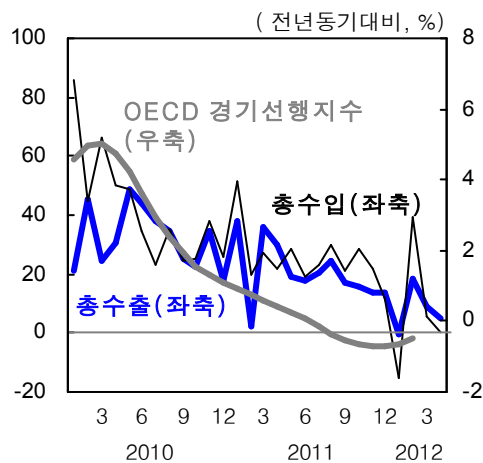
- 수출입 증가율은 최근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1/4분기 중 각각 7.6%, 6.9%를 기록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 1/4분기 중 수출증가율은 유럽 및 홍콩으로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전분기(14.2%)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7.6%를 기록하였으며, 4월 중에도 4.9%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
 - － 수입증가율은 3월 중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분기의 20.6%에서 6.9%로 크게 하락
- 특히 유럽 및 홍콩지역으로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도 확대
 - － 4월 중 EU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4%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감소
 - － 1/4분기 중 EU 및 홍콩의 수출 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약 8.4%p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 증가율 감소분(-18.8%p)의 45%를 차지
 -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둔화되며 1/4분기 중 9.8% 하락하였고, 4월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EU(-11.0%), 한국(-8.6%)에서의 수입도 비교적 크게 둔화

총수출 증가율과 국가별 기여도



자료: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 증가율과 OECD 선행지수



자료: 중국 해관총서, OECD.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수 출 ¹⁾	20.3	26.4	22.0	20.5	14.2	7.6	18.4	8.9	4.9
미 국	14.5	21.4	13.3	11.2	14.0	12.8	22.6	14.0	10.0
일 본	22.5	28.0	19.9	26.1	17.4	10.3	27.3	3.4	5.4
E U	14.4	17.1	16.6	18.1	6.5	-1.8	2.2	-3.1	-2.4
수 입 ¹⁾	24.9	32.8	23.1	24.8	20.6	6.9	39.6	5.3	0.3
무역수지 ²⁾	155.1	-0.7	46.8	63.8	48.1	1.2	-31.5	5.4	18.4

주: 1) US\$ 기준. 2)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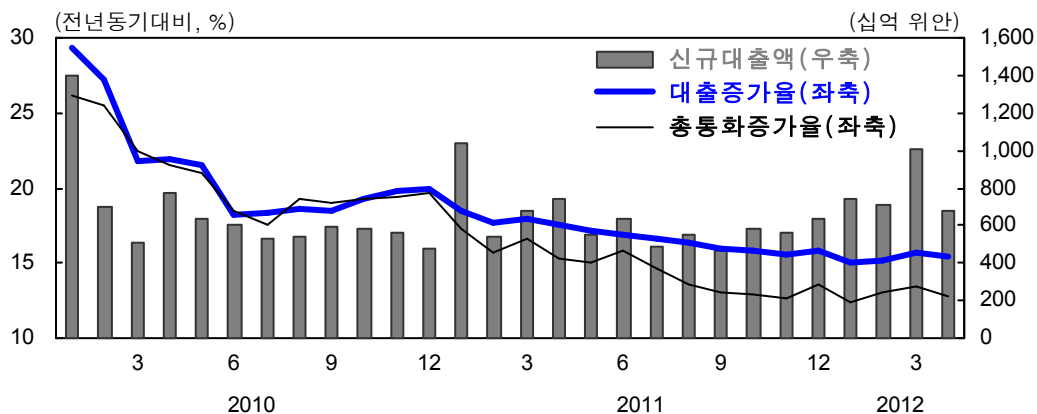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 물가상승압력이 축소됨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데 기인하여
유동성 증가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모습

● 대출 및 총통화(M2) 증가율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하 및 대출총량
확대 발표에 이어 일부 지방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인하하면서 소폭 상승

- 총통화 증가율은 1월 중 정부 목표치(14%)를 크게 하회하는 12.4%를 기록하였으나 4월
중 12.8%로 소폭 상승하였고, 1월 중 대출 증가율도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
준인 15.0%까지 하락하였으나 4월에는 15.4%로 소폭 상승
- 3월 위안화 신규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하여 1~4월 누적 신규 대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4.8% 증가

신규 대출액, 총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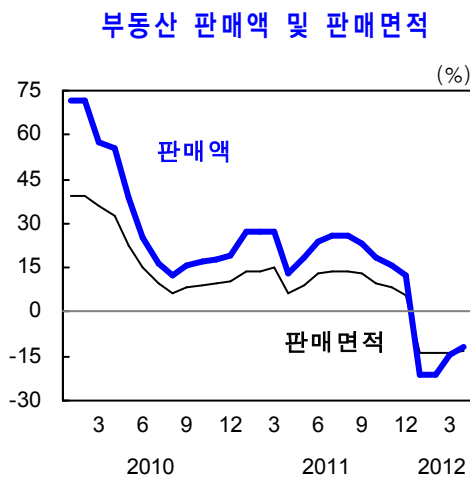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가격 억제정책이 유지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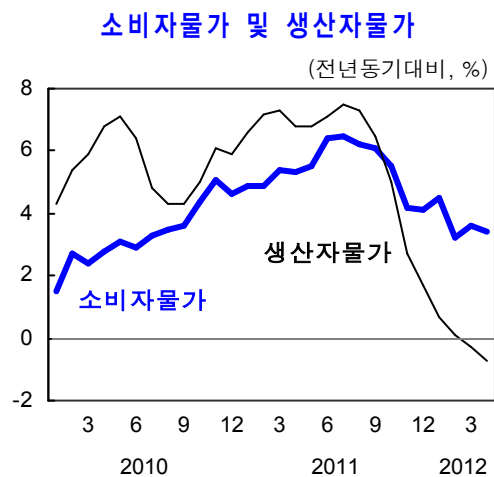
- 부동산 판매액과 판매면적이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2월 중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3월 이후 감소세가 축소
- 상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대도시의 전월대비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감소폭도 전기보다 확대
- 한편, 70개 중대형 도시 중 부동산(신규주택) 판매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지역은 지난해 12월 2개 지역에서 금년 3월 중 8개 지역으로 소폭 증가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이자 인하를 시행하는 등 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선별적인 미세조정을 병행하는 모습

●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식료품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점차 안정되는 가운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생산재 가격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

- 지난 10월 이후 식료품 가격의 급등세가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금년 2월 중 3.2%로 안정되었고, 3월에는 농작물의 일시적인 수급불안에 기인하여 3.6%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4월 중 3.4%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이후 생산재 가격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하면서 지난해 12월 1.7%에서 4월 중 -0.7%로 하락



주: 누계기준.
자료: CEIC.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경제는 해외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내수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2013년까지 8%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목표를 기존의 8%에서 7.5%로 하향조정
 - － 거시경제 목표는 CPI 상승률 4% 이내, M2 증가율 14%, 신규고용 900만명 이상, 재정적자규모는 8,000억 위안으로 설정
 - －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500만호의 보장성주택 완공을 추진할 계획
 - － 역대 전인대의 성장률 목표치와 실적을 감안할 때 2012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 주요 전망기관들은 2012~13년 중국의 성장률이 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IMF의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2012~13년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부진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의 성장에 힘입어 8%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ADB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유로존의 국가채무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2012~2013년에 8% 중반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12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12·5계획에 의한 정부의 인프라투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사회지출 및 임금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주요기관의 성장률 및 물가 전망

(%, %p)

		IMF		ADB		투자은행(평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성장률	기존	8.2	8.8	9.1	-	8.4	8.5
	수정	8.2	8.8	8.5	8.7	8.5	8.6
	조정폭	0.0	0.0	-0.3	-	0.1	0.1
경상수지	기존	5.6	-	3.8	-	3.5	-
	수정	2.3	2.6	2.1	1.7	2.4	2.1
	조정폭	-3.3	-	-1.7	-	-0.1	0.0

주: 1) 성장률 및 경상수지의 수정전망치는 2012년 4월말 기준.

2) 성장률의 기존전망치 중 IMF 및 국제금융센터는 2012년 1월말 기준이며, 나머지 기존 전망치는 2011년 9월말 기준.

자료: IMF, ADB,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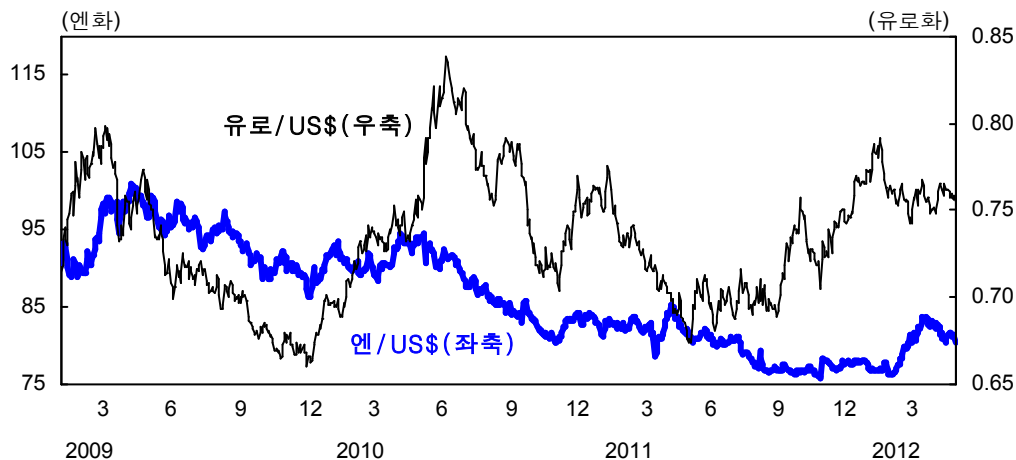
3. 환율 및 금리

최근 장기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나, 달러화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 금년 초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달러화의 가치는 미국경제 전반에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양적완화 조치의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2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유로화는 지역 내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와 관련된 구제금융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연초에 강세를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1월말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 한편, 엔화의 가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크게 하락하였으나 4월 이후 다시 상승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



-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달러화가 하반기 들어 다시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엔/달러 환율의 경우 전망시점(4월)부터 3개월 후 81.2엔으로 상승한 뒤, 6개월 후 79.9엔, 1년 후에는 80.7엔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유로/달러 환율의 경우 전망시점(4월)부터 3개월 후 0.77유로로 상승한 뒤 6개월 후 0.77유로, 1년 후에는 다시 0.77유로로 하반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엔/달러			유로/달러		
	3개월	6개월	1년	3개월	6개월	1년
Barclays Capital	85.0	88.0	90.0	0.78	0.80	0.83
JP Morgan	86.0	84.0	82.0	0.75	0.74	0.74
Goldman Sachs	77.0	76.0	74.0	0.75	0.72	0.69
Morgan Stanley	78.0	77.0	80.0	0.78	0.81	0.87
Deutsche Bank	76.0	72.0	75.0	0.78	0.80	0.74
HSBC	77.0	75.0	72.0	0.74	0.71	0.69
Standard Chartered	80.0	79.0	80.0	0.80	0.78	0.77
평 균	81.2	79.9	80.7	0.77	0.77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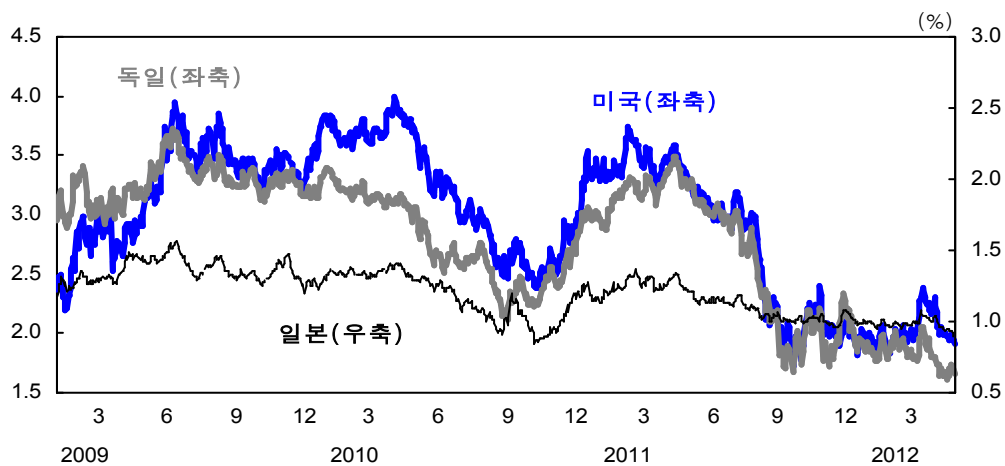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 주요 선진국의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실물경기지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면서 상승하였으나, 3월말 이후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 일부 재정위기 국가들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되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증가하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국채금리는 비교적 빠르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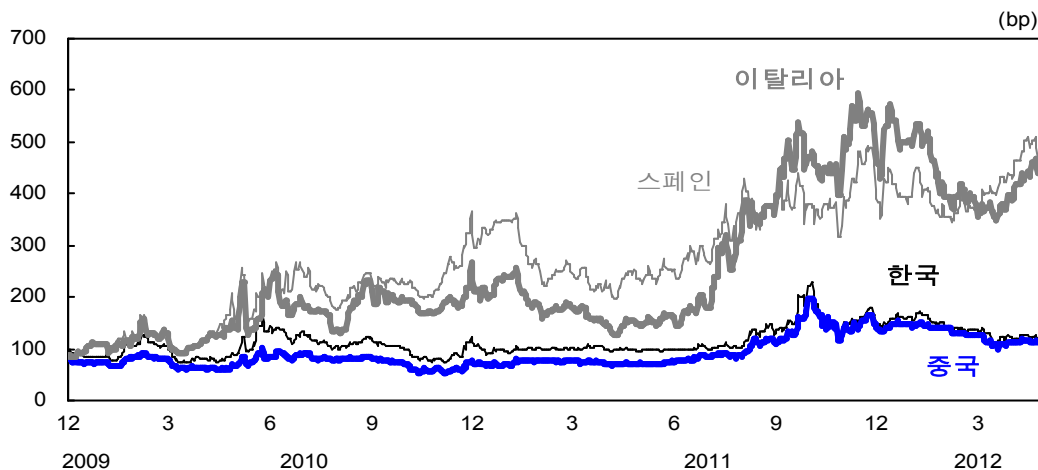
— 독일과 일본의 장기국채금리도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주요국 국채 수익률



- 한편, 주요 국제금융 조치 이후 재정위기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



-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향후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장기국채금리는 대체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2012년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전망

(%)

	미국 국채(10년물)			유로화 채권(10년물)			일본 국채(10년물)		
	'12 2/4	'12 3/4	'12 4/4	'12 2/4	'12 3/4	'12 4/4	'12 2/4	'12 3/4	'12 4/4
Barclays	2.25	2.00	2.00	2.10	2.20	2.25	1.20	1.15	1.10
BNP Paribas	2.30	2.45	2.70	1.90	2.10	2.25	1.10	1.10	1.15
Citigroup	2.25	2.35	2.45	1.75	1.70	1.75	0.95	1.00	1.20
Deutsche Bank	2.00	2.00	—	2.20	2.25	—	1.10	1.10	—
JP Morgan	2.40	2.50	2.50	1.80	2.00	2.00	1.15	1.05	1.05
Morgan Stanley	2.00	2.00	—	1.80	2.00	—	1.00	—	—
UBS	2.40	2.60	2.70	2.20	2.30	2.40	1.15	1.30	1.35
평 균	2.27	2.32	2.48	1.99	2.13	2.20	1.11	1.10	1.16

자료: 국제금융센터.

4.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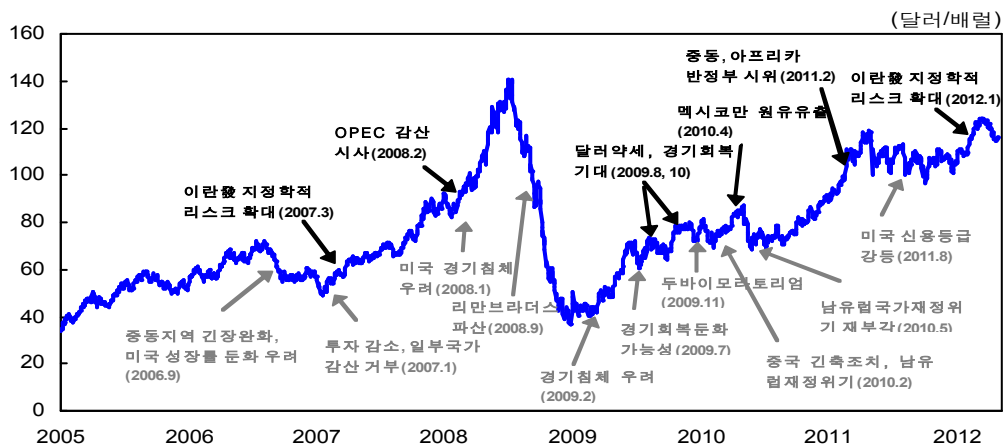
국제유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원자재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제원유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미국 등 일부 지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는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

－ 두바이유 가격은 4월말 현재 116.4달러로 작년 말 대비 11.0% 상승함.

유 가



유 가

(달러/배럴, 평균기준)

	2010	2011					2012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두바이	89.0	105.0	105.8	103.5	107.9	105.5	109.5	116.2	122.5	117.3
브렌트	91.8	110.1	111.5	109.1	110.5	107.7	111.0	119.3	124.9	120.0
서부텍사스	89.2	86.3	85.6	86.5	97.3	98.7	100.4	102.3	106.3	103.4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 일부 유가분석 기관들은 2012년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는 주요 지역에서의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와 신흥 시장국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일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

주요 기관 유가 전망

(달러/배럴)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1년 평균	2012년					2013년 평균	비고
			1/4	2/4	3/4	4/4	평균		
CGES (4월)	Brent	112.2	119.7	118.3	105.5	100.8	110.9		기준유가
		112.2	119.7	120.6	114.8	123.2	119.6		고유가
		112.2	119.7	116.0	96.0	82.0	103.4		저유가
CERA (3월)	Dubai	106.2	114.3	119.9	115.5	116.6	116.6	114.2	기준유가
	Brent	111.3	118.4	123.7	119.5	119.0	120.1	117.5	
	WTI	95.0	102.9	102.7	103.2	107.0	103.9	114.8	
EIA (4월)	WTI	94.9	102.9	106.0	107.0	107.0	105.7	105.8	기준유가
PIRA (4월)	Brent	111.3	118.5	119.5	122.0	126.0	121.5		기준유가
	WTI	95.1	103.0	105.1	111.7	120.1	110.0		

주: 1)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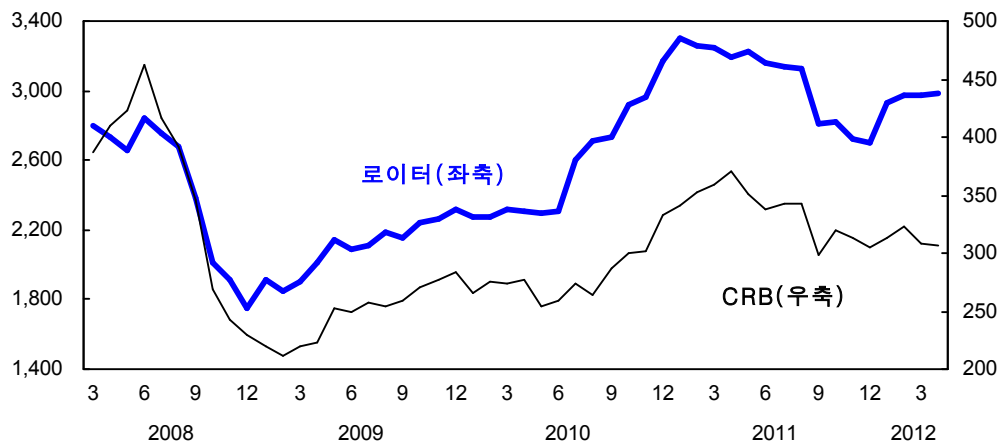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자료: 석유정보망.

■ 주요 상품지수는 국제유가와 일부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

- 금년 들어 국제유가의 급등이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로이터상품지수도 상승
- 그러나 최근 들어 비철금속과 일부 곡물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상품가격지수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 니켈 및 알루미늄 가격을 비롯한 주요 비철금속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면을 제외한 소맥과 옥수수 등 일부 곡물의 가격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
 - － 한편, 금 가격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연초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

주요 상품가격 지수



주: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 반도체 가격은 SD램 가격이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인 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하락
- SD램(1Gb DDR3, 아시아 현물시장 기준) 가격은 4월말 기준 개당 0.71달러로 금년 1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한편, 낸드 플래시 메모리(16Gb MLC) 가격은 주요 업체의 증산 및 투자 확대와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반도체 현물가격

(달러/개, 기말기준)

	2010	2011					2012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Gb DDR3 SD램	1.09	0.63	0.67	0.63	0.55	0.64	0.70	0.71	0.71	0.71
16Gb NAND Flash ¹⁾	4.86	2.85	3.00	2.98	2.95	2.81	2.72	2.40	2.22	2.16

주: 1) MLC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KDI 경제전망 현안분석 목록

원유와 주요 원자재의 가격전망	1982 2/4	거시경제팀
중심통화지표의 선정	1982 2/4	거시경제팀
외채현황과 문제점	1982 3/4	이 선
중동원유시장과 한국건설수출 전망	1982 3/4	장오현
단기금융기관의 최근동향과 개선방향	1982 4/4	이덕훈
최근 국제경제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1982 4/4	김중웅
유가 인하의 기대효과와 대응방향	1983 1/4	장오현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과 그 해결책	1983 1/4	엄봉성
최근의 임금동향과 당면정책과제	1983 2/4	박원구
선진국경제정상회담과 세계경제의 당면과제	1983 2/4	서상목
국제외채위기와 한국의 외채	1983 3/4	김인철
남미제국의 경제위기와 향후전망	1983 3/4	이인호
태평양지역의 공산품교역현황과 공산품교역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1983 4/4	양수길
근년의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원인	1983 4/4	유정호
미대통령선거와 경제적 파급효과	1984 1/4	이성섭
미달러화 변동과 우리나라의 환율결정	1984 1/4	김인철
최근 경기동향과 통화정책	1984 2/4	남상우 이덕훈
증권시장 개방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1984 2/4	엄봉성
최근의 임금 및 노동시장 동향	1984 3/4	김수곤 최돈길
산업구조의 개선과 중소기업의 육성	1984 3/4	김재원
경기순환과 경기종합지수	1984 3/4	여운방
한일관계의 역사적 전환과 새로운 경제협력방향	1984 4/4	김중웅 이경주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과정과 수입규제법	1984 4/4	엄봉성
가계저축 동향과 유인제도의 개편방향	1985 1/4	이계식
2000년을 향한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1985 1/4	곽태원
신국제 무역협상과 태평양협력방안	1985 2/4	양수길
최근의 고용동향과 정책과제	1985 3/4	박원구 장준경
경제특구와 중공의 개방정책	1985 3/4	홍종덕
산업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1986 1/4	박준경
경기종합지수의 예측능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986 1/4	여운방
OPEC행태의 분석과 유가전망	1986 2/4	이 선
서비스개방의 문제와 정책방향	1986 2/4	김인철
엔고와 새로운 한일경제관계	1986 3/4	이규억
한일 기업저축과 세제비교	1986 3/4	이계식 배준호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1986 4/4	엄봉성 이영기
J커브효과와 대일 무역수지	1986 4/4	박원암
환위험과 외환선물거래의 해징효과분석	1987 1/4	이 선
흑자기조하의 환율정책에 대한 소고	1987 1/4	좌승희
실업·임금·물가에 대한 현황,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1987 2/4	김중수

증권시장의 최근 현황과 주식공급의 확대	1987 2/4	이덕훈 홍성훈
미증권 시장의 붕괴 : 그 배경과 여파	1987 4/4	유정호
미래의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1987 4/4	이원영
통화량 증시정책의 재평가	1988 1/4	강문수
경제안정과 흑자관리	1988 1/4	노성태
80년대 일본의 금융국제화와 해외증권투자	1988 2/4	엄봉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장기구조에 대한 논의	1988 2/4	좌승희
환율, 임금과 이윤율	1988 3/4	박원암
현행 증시통화지표 및 그 운용방법의 변경 필요성	1988 3/4	박우규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문제와 정책방향	1988 4/4	송대희
부실은행정리와 신용질서유지	1988 4/4	강문수
경제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1989 1/4	이재형
1988년 가을 연례회의 (KDI • Project LINK Central 공동주관)	1989 1/4	김진영
통화의 파급효과와 통화정책 개선방향	1989 2/4	남상우 이덕훈
주택건설 경기변동의 추세	1989 2/4	김관영
교역조건변동의 추이와 파급효과	1989 3/4	노성태 오상훈
주식옵션에 관한 연구	1989 3/4	금정연
과학기술투자의 장기계획-투자재원의 조달과 활용을 중심으로	1989 4/4	이원영
최근의 실업률 분석	1989 4/4	장창원
현 경기 국면의 진단과 정책대응	1990 1/4	박우규
자본이득환수기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1990 1/4	손재영
최근 물가불안의 요인과 대응방향	1990 2/4	남상우 이선애
성장잠재력과 경제운용	1990 2/4	박준경
건설투자활동의 전망	1990 2/4	김관영
원화, 엔화 환율변동의 수출입 및 물가효과분석	1990 3/4	심상달·좌승희
재정의 역할과 운용방안	1990 3/4	송대희 유일호 문형표
재정지축의 거시경제효과	1991 1/4	유윤하
명목임금의 추정과 관련된 제모형의 비교연구	1991 1/4	김성연
산업경쟁력과 경제운용	1991 1/4	박준경
유가인상의 산업부문별 효과분석: 일반 균형적 접근	1991 1/4	이원영 안영석
92년의 증시개방과 자금흐름의 문제	1991 2/4	최범수
새로운 여건하의 제조업 대책	1991 2/4	김지홍
5 • 8조치의 토지 정책적 의미	1991 2/4	손재영
물가와 공공요금관리	1991 2/4	김종석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1991 2/4	정진승
2000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조달 전망	1991 2/4	유일호
물가불안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리정책	1991 2/4	박우규
최근의 인력수급추세와 정책과제	1991 2/4	박원구 장창원
세계잉여금발생 및 추경편성의 문제점	1991 3/4	문형표
상반기 무역수지적자요인 분석	1991 3/4	유윤하

무역수지악화와 수입의존도	1991 3/4	유정호
금융긴축과 수신금리인상	1991 3/4	박우규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당면과제	1991 3/4	김준경
수출입과 선행지표	1991 3/4	박원암
기술개발지원정책 효율화방안	1991 3/4	이홍구
선거의 거시경제효과	1991 4/4	심상달
최근 수출입 물량변화의 요인	1991 4/4	백웅기
금리자유화의 진행지표와 예대 마진률	1991 4/4	박우규
석유화학의 구조조정문제	1991 4/4	김지홍
90년대의 산업환경과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1991 4/4	박준경
자금 흐름의 개선과 상업어음 할인제도 활성화 방안	1991 4/4	김준경
유통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응과제	1991 4/4	남일총
거시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1992 1/4	좌승희
제조업 금융비용 현황과 정책과제	1992 1/4	이영기
자금순화계정으로 본 고금리현상의 원인	1992 1/4	최범수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	1992 1/4	문형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와 투자환경	1992 1/4	이원영
월별 경기지표를 이용한 내수의 단기예측	1992 1/4	심상달 이항용
법정공휴일 단축에 따른 제조업 인력난해소 및 생산증대효과	1992 1/4	백웅기
현 경기국면의 진단	1992 2/4	박우규
투자증가율의 둔화는 심각한 문제인가	1992 2/4	최범수
기업금융행태와 거시경제운용	1992 2/4	이영기
안정적 재정운용과 통합예산관리	1992 2/4	황성현
근년의 무역수지악화와 우리 사회의 반응	1992 2/4	유정호
경지논쟁소고	1992 2/4	백웅기
산업경쟁력과 정부역할	1992 2/4	박준경
엔화 약세반전과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1995 3/4	조동철 고영선 오상훈
경기연착륙 전망과 향후의 경기국면 진단	1995 3/4	김준일
최근의 물가압력 추이	1995 3/4	유윤하 성명기
금리추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995 3/4	김준일
최근의 무역수지적자에 대한 평가	1995 3/4	유윤하 고영선
노동력부족 및 정책과제	1995 3/4	장창원 이진면
경기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1995 4/4	김준경 김윤수
경기국면 진단	1995 4/4	김준일 이항용
환율변동과 경상수지	1995 4/4	조동철 이항용
금리의 10%대 진입 가능성 타진	1996 1/4	조동철 오상훈
L/C 내도액의 수출 예고능력	1996 1/4	거시경제팀
소비자금융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6 1/4	김준경 김윤수
최근의 소비재수입 동향 및 시사점	1996 2/4	김준경 박양래
최근의 수출부진에 대한 평가와 대외경쟁력 점검	1996 2/4	거시경제팀

무역외 및 이전 수지의 추이 및 일본, 대만과의 비교	1996 2/4	조동철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1996 3/4	김세종
한국, 일본 및 대만의 소비자물가 비교	1996 3/4	유윤하 성명기
최근의 부도율 현황분석과 향후 전망	1996 3/4	김준일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효과 및 정책방향	1996 3/4	김승진
OECD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균형금리수준의 모색	1997 1/4	함준호
우리나라 저축률의 분석과 전망	1997 1/4	홍기석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	1997 1/4	고영선
엔화강세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997 2/4	조동철
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	1997 2/4	김준경
여성실업 증가의 요인분석	1997 2/4	김대일
80년대 이후 통화정책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1997 3/4	신인석
기업의 과다부채와 장기불황 가능성	1998 1/4	김준경
건설업체 부도급증 원인 및 평가	1998 1/4	김준경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형태별 파급효과	1998 1/4	조동철
유가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1998 1/4	한진희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에 대한 평가	1998 1/4	조동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채소화 방안	1998 2/4	조동철 함준호 황성현
재고투자의 변동과 경제적 파급효과	1998 2/4	홍기석 유덕현
신용경색의 분석적 이해 및 대응방향	1998 2/4	조동철 신인석 함준호 나동민
남미국가들의 금융위기재발과 시사점	1998 3/4	심상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방향	1998 3/4	조동철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	1998 3/4	남일총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 개혁방안	1998 4/4	김준경
노동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및 전망	1998 4/4	유경준
중장기 산업전망과 정책방향	1998 4/4	장기비전팀
외화위기 이전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1999 1/4	한진희
재벌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1999 1/4	김준경
외채상환 능력의 거시적 평가 및 국가부채 관리의 기본방향	1999 1/4	함준호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물가 변동의 특징과 요인분석	1999 1/4	성명기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1999 2/4	홍기석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1999 2/4	조성욱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실업률 전망	1999 2/4	유경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1999 3/4	고영선
90년대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괄적 환율위험 분석	1999 3/4	함준호 유재균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및 장기성장을 전망	1999 4/4	한진희 김종일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2000 1/4	성소미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망과 과제	2000 1/4	우천식
균형실업률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2000 2/4	유경준
교역조건 악화와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2000 3/4	조동철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대한 분석	2000 4/4	한진희 양정삼
최근의 실업률 동향분석	2001 2/4	최경수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	2002 1/4	신인석 박창균
가계대출과 소비의 관계 분석	2002 4/4	신인석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선택: 일본과 미국의 사례	2003 4/4	고영선
소비 및 저축률의 추이와 시사점	2004 1/4	조동철 임경목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2004 2/4	김동석
상장사 기업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설비투자 분석	2004 2/4	임경목
최근의 건설경기 둔화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04 4/4	이항용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평가와 총수요항목에 미치는 영향	2004 4/4	조동철
개인소득에 대한 분석 및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	2004 4/4	조성훈 김현욱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5 1/4	김동석 조동철
소비자기대지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력	2005 1/4	김장렬 이항용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	2005 2/4	임경목 김동석
단시간 취업자 증가현상 분석	2005 2/4	김용성 신석하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의 원인 분석	2005 3/4	신인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국내기업의 진입·퇴출간의 관계	2005 3/4	최용석 차문중
최근 물가여건 점검	2005 4/4	신인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고성장 중소기업체의 특성 분석	2005 4/4	안상훈
최근 해외소비 급증현상의 이해	2006 1/4	허석균
최근 경상수지 추이의 분석과 전망	2006 1/4	이항용 김현욱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간의 괴리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06 2/4	김용성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한 이해 및 전망	2006 3/4	조동철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6 3/4	신석하
최근 은행 외화차입 증가의 배경과 위험요인	2006 4/4	김현욱
최근의 물가안정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06 4/4	조동철
기업 수익성의 변동성 증가와 설비투자	2006 4/4	임경목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2007 상반기	유경준
재무구조조정 측면에서 살펴본 최근 설비투자 추세	2007 상반기	임경목
기업의 국제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내 수출을 중심으로	2007 상반기	이시욱 임경목
투자형태별 경기변동 요인 분석	2007 하반기	이재준
최근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요인 분석	2007 하반기	이시욱 신석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	2007 하반기	송준혁 연태훈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2008 상반기	신석하 김희삼
최근 물가상승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	2008 상반기	조동철 송준혁
자산가격 변동과 민간소비	2008 하반기	김영일
성장률 및 주가 변동에서 차지하는 해외요인의 비중 변화	2008 하반기	송준혁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	2008 하반기	김준경
최근 우리나라 수출 급락세의 특징 및 요인 분석	2009 상반기	이시욱 이한규
외국자본 유출입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009 상반기	송민규

민간소비의 구성항목별 추이에 대한 분석	2009 상반기	김영일
최근 설비투자 회복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2009 하반기	임경목
최근 물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2009 하반기	정대희
여성 중심의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분석	2009 하반기	김희삼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평가	2010 상반기	임경목
최근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2010 상반기	이재준 정대희
주요 공기업 부채의 장단기 위험요인 평가	2010 하반기	김성태
외국인 채권투자의 국내 장·단기금리차에 대한 영향 분석	2010 하반기	이한규 정대희
가계 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2010 하반기	김영일 임경목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2011 상반기	이재준 이준상
최근 물가상승세의 구성항목별 특징과 향후 물가 여건	2011 상반기	김현욱 김성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 추이	2011 상반기	김동석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2011 하반기	김성태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2011 하반기	김태봉 이한규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	2011 하반기	황수경 신석하 김인경